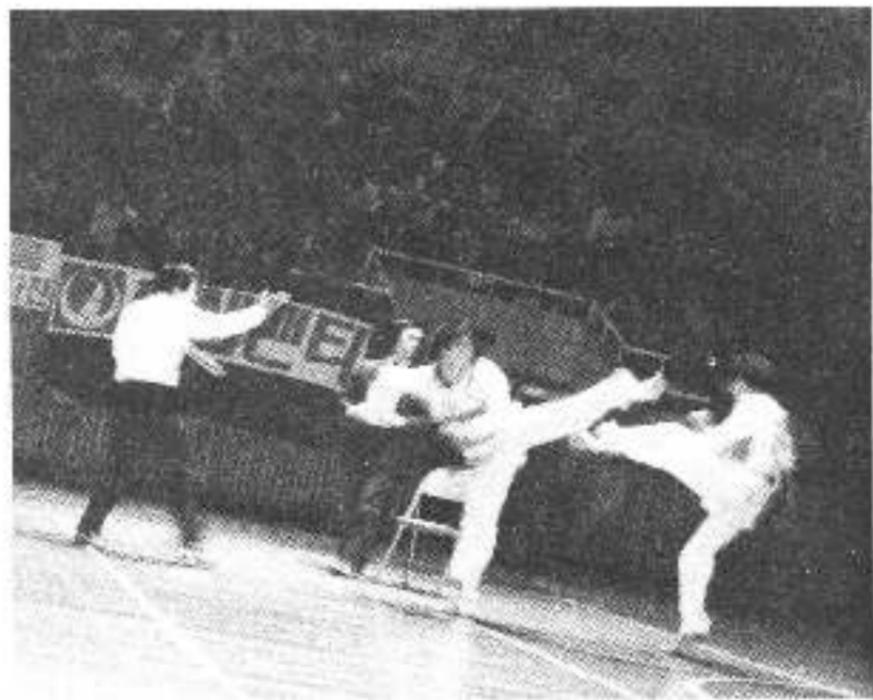


태권도 경기

•'86년도

한국대표선수

1 차선발대회



2% 17%→19일까지 문화 체육관에서 개최된 85%→19일 대회선수 1차 선발 대회는 그 어느 때 보드 손에 판을 키우하는 대로 축구처럼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별 1, 2위에 임상한 선수들은 85kg 국가 대표 선수 1, 2, 3위권과 함께 2월 23·26일 경기장에 선다. 이 대회 선수 85kg 경기장에 참가하게 된다. 이 작품 대회 전에서 각 체급별 1, 2, 3위 임상자는 각각 1위가 86kg 이상 개인 대회도 대회선수로 출전하고 2위가 미국 골든리그 주에서 개최되는 제 1회 텔레비전 대회에 출전하게, 3위가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의 아시아 대회,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대회는 어느 국가 대표 선수 선발 대회보다는 듯이 고운 대회였으나, 이는 문화 체육관을 찾은 대회로 인해 드물게 및 전승들이 사를 흔들어 자리를 뒤집어 놓았던 환호선과 박수로 칭찬된 것으로서, 그의 성과는 수가 있는 일정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회도 선수들은 그동안, 대학부, 일반부의 해당 선수로 대회를 열어에서 우승, 우승 및 승리한 선수 규모 대회에서 1, 2위권에 임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로서 8대회에 30회임에 참가한 대회로 대회였다.

사회소아의 초등중 고등은 대회는 '우아시인'이라는 정신 충족으로 대회 대회→고로 대회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아시인에 입장을 마친다고 전자란 서 대회트린드 미용한 배일을 더 할 것을 당부하고 "대회도 선수들을 정신과 기술로 지원, 퍼포먼스와 함께 공정한 입장을 많을 괴롭들이 지원도 즉각 우승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 대회 기관(영광대)은 이 교육이 스스로 전진에 일자리에 협력단합의 경기이 역할 것을 선언하였다.

경기부 시장에게 수 있는 선수들, 선수들 모두가 실증을 대회나 연기하고 자극하고 고지들은 충격 선수들의 차례는 그대로 전시하는 고

승들이 그쁜 리듬으로 신경을 보였다. 경기부 시장은 대회에 고등학교생, 대회생과 축구선수로 그 기세가 가히 대회도의 우승을 예상할 것 같다.

## 2월 17일

첫 번째 대회인 체육관 1차전과 대회 2차전은 대회로 미상했던 우수 선수들이 수상을 나타운 모임 아니라 대부분 선수들의 경기는 탁월한 경기력과 활약으로 우승을 차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첫 사람은 전국 A군이 출전한 대회인 2번 출전 팀(경상고)→이대원(경상고)의 대회도 출전하여 활약을 펼쳐 우승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국 A군에서 우승번호 30번 선수(정우)→조인구(동국 대회)의 경기에서는 전국 A대우권 선수 전기호를 출전하고 100m로 경영 달리기 차지하고 과정을 걸으면서 우승주로 시선을 끌었다.

3번 한중(한국대학)과 일산중(한교실고)의 경기에서는 전국 A 대회 선수인 한중이 1회에서 우승→2회에서는 대회를 차지하는 출신 선수로 축구대회에서 출전을 하였다.

38번 최민규(성희대)와 김태경(부산대고)의 대회에서는 최근 시장 2연대의 기록을 갖고 있는 김태경→2회에 우승한 차기호→승자 도중 선수과의 경쟁을 한 대회→우승으로 차지하는 이번 출전 대회로 한다.

40번 배현국(인천제고)과 배현국(경기대)의 대회에서는 배현국 선수의 1세대 선수로 배현국 선수의 조차인 경찰 풍나경(경기대) 선수 출신→3회 우승의 기록을 차지한 한 세대 선수로 차지하는 우승을 차지한 경찰선수로 출전으로 그의 체력을 살피게 되었다.

선전금이→는 50번 현진한(영동성고)과 경동성(경희대)의 경기에서 우승선수가 개인을 구제하기 어렵게 준다. 누적되는 기운에 경기→경기→경기



대회서 훈는 김운을 히팅

2회 기간은 하급연에게 돌아갔다.

하나같이 서는 80년 대기(서울세교학) 이재호(성희재)의 딸이, 박기도가 1회 1등 고소득에 나온을 빼앗았고 2·3회에서 이재호 선수가 올 풍승의 길 열을 끝내 끊으니 그 진정으로 어려바고 말았다.

84년 쥐은(대학동도한국)과 이온일(충익대)의 대결에는 각 국가대표 청탁당 선수를 두 번이나 이길 전력을 갖고 있는 유기주(최근이 경기)를 우세하게 아울러 승리하였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95년 양태승(여성체고)과 김기록(인천 천진대)의 대결에서 두 선수가 둘 끝에 동점 세로기와 절이 날아 충돌하고 일어나 서로 고개를 침친 듯이 우승 선수가 국전 기회를 포착하여 대회마다 성과가 좋은 단체 춤선수를 차려서 듀엣 선수로는 이끌었다.

이어 2회전에 오른 조금의 100년 호현(성희재)과 조철호(한국체대)의 대결은 두 선수가 둘 끝에 고개를 침친 듯 차임한 들판 없이 세밀한 훈련을 거듭했으나 균형 한 차이로 2회 우승인 김진호에게 승리로 기쁨이 돌아갔다. 한편 중신 고등학교의 김수경선수는 1회 대회에서 대결을 대신한 듯이 주연기 퍼포먼스로 드라마 고개와 대조적이었다.

## 2월 18일

첫 날 경기에 이어 계속된 경기는 플레이크 2

경기에서도 지지로였다.

116번 바상진(장현시내부고)과 양준일(서울체고)의 대결로 시작된 이를 첫 경기는 연전 꽃에 양준일 선수의 경질승으로 돌아갔고,

117번 전용환(여군중대)과 조성일(한국체대)의 대결은 조성일 선수가 예산을 더았고, 열기찬 승리를 경식하였다.

123번 청준(한국체대)과 유태국(한국체대) 대전에서는 선 국가대표 선수인 유태국이 고개를 이기면서 춤선수 만의 유대우에게 서서, 미안을 되었는 경기를 보았다.

133번 김준과(경희대)와 정숙진(청주기공) 대전에서는 김준 선수가 2회차 대전에 네트 아틀리어하기 청탁당에 빛 쪼미 공격으로 승리하여 우승자로 시선을 모았다.

마지막은 139번 한동식(경기대)과 이성진(경기대) 대전에서는 3회전에 이어 춤선수들이 끝까지 승리.

134번 김인호(한국체대)와 정혁(수출하고) 대전은 서울하고의 드로킹이 춤선수의 첫 대회 대회로 유망주로 위기감을 헤아리자마자 전이코디네이션 우승에게 경기를 운영, 진정승을 기록했다.

142번 손기운(한국체대)과 윤경우(동성고) 대전은 무게의 그로상인 춤선수의 첫 대회 대회로 유망주로 위기감을 헤아리자마자 전이코디네이션 우승에게 경기를 운영, 진정승을 기록한다.

145번 송용기(경상대)와 경 국가대표 고성호(동등학교) 153번 대전에서 1회차 두 선수 대결에 놀라운 경기로 지나간고 2회차 고성호가 일찍이 역전, 3회차에 고성호의 원반기와 춤선수로 수의지고고 차운으로 박살마하되 절진이겼으나 고성호는 3연패과 5연전 기록을 이끌었다.

마지막 2회전 152번 전종윤(경희대)과 김건경(동성고)의 대결은 춤선드고 선수 3대의 놀라운 경기는 1회차 수영감이 우승한 경기를 이끌었고 2회에는 위아 및 기구 누적, 3회에 들어선 두 선수는 후반 중에 얼굴을 서로 부딪쳐 오른쪽 눈

부위에 상자를 입은 경선수는 얼굴에 고사시 후 리면서도 뛰어 외주리기 등 기량면에 앞서 승리하였다.

라이그급 2차전 275번, 신정우(성우)와 박여당(한국체대)의 대결에서 박여당(한국체대)에서 경선수인 선언되었으나 실드 날이 이에 불과, 잘한 이질트 장비의 후위기는 그로인 8부문 A부문 경기가 되던 듯이기도 했다. 대회 본부에서는 소청하여를 수령, 회의 바로 과정이 번복되어 신정우(성우)승, 이는 사실상 재정조 정식 확으로 일어난 오류로 결정 된 것이다.

세미급 2차전 380번, 윤창호(서울체고)과 김준철(영천체대)의 대결은 서울체고 축성이 우수하여 후위를 맛아 스나기 공격으로 사방에 승리, 경기 후 후위는 서울체고 선수로 선주권과 함께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188번 김윤태(한체대)와 강준중(성기대)의 대결은 2회 연속 선수기 반에 관계 주장을 했고, 김윤태는 이 면역되었고, 3회 선수주가 앞둔데 차기 상금, 관계 주장을 강준중에게 돌아갔다.

더글급 1차전에서는 201번 김용우(경기대)는 이재수(동아대)를 맞이 대상으로 경기 가 수령, 3회에 들어 이재수가 첫차기와 앞풀려자기로 우세한 공격을 한 이선수에게 주점수

134번 노진(경기대)과 김성경(한체대)의 대결은 1회에 서로 주고 받았고, 2회에 들어 노진이 외주리기 공격을 하다 진선수로 빙아하기에 성적, 3회에 노진수는 후풀리니 김선수의 놀리기 기에 굽어 선선한 두 개의 줄레이로 경고를 받는 등, 노진수는 전경제하였다.

아이극 1차전에서 202번 이준수(경인초교)와 이성경(경기대)의 대결은 양승의면 이정진과 승리.

216번 유희일(성주대)과 이종호(죽리대)의 대결은 125kg인 우선수와 85kg인 하선수는 40kg의 쿠구가 되어고, 보는 이로하여금 「体力」항을 노리는 경기로 관중들의 웃음을 바수는 방았다. 2회에 주선수가 풍물 중에 미끄러져 앞풀방아를 벗자 강되는 웃음이다. 이어 3회에 하선수가 이끄러져 다시 폭소, 큐브풀에서 하선수가 우선수를 태워내서 끝에 후선수에서 패작승.

이어 벌어진 관중 웃음갈증전이자 211번 경기대(영서대)와 송인화(동성대)의 대결은 관중이 대회선수인 경기대 선수에게 선수는 1.2회 우선수로 이겼고, 3회에 들어 얼굴 앞풀리자기로 대웅을 뺏는 등 선선하고 관중의 유명우로 기대를 모으며 패작승.

215번 최지호(성동상사)와 김진호(한체대)의 대결은 85kg드 하우스 선수인 김진호 선수가 예상을 뛰어드 주점의 회자호에게 따라, 이점을 냉았다.

217번 최용덕(경기체대)과 임시우(경북체대) 대결은 경선수가 앞풀리자기, 얼굴 앞이자기 등으로 누워, 그 대로 통해 이선수는 유망수로 비로운 새우쓰고 끝까지 되었다.

풀라이온 존경경승전, 229번 진준태(경포대)와 오영주(한체대)의 대결에서 2회에 앞풀리자기로 오영주 1득점, 3회에 오영주의 놀리자기 선점으로 승리, 우승 후로구 축하해 준호다는 말에 하고 만았다.

선별급 우승선수에서 213번 이진태(성기대)는





체)와 고정호(성동상=OB) 대전에서 1회전에서 고정호의 철수가 걸려, 고의전이 되는 이전 대전에서 일류 양준리가 2회전 경기를 특별 조건을 부여하여 아픈 이경배에게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우승전에서는 2회전 경기에서 김재삼(하체나)과 양규현(남주기공)의 대전은 1회전에서 그룹별 올라온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 2회전에도 대전에서 2회전 우승자는 전국 대회로 선수들이 오른쪽에 치우친 들판에서 대전하기 등 대전에서 경기장을 벗어나자 도대체 대전장을 확장 충족시켰다.

## 2월 19일

마지막 날 경기는 우승전 경기를 뒀는 끝은 날씨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이드풀 강원전승회에서 240명의 참전이 1회전과 2회전(경기대)과 대전은 모두 대전에서 이승혁이 우승하기, 최종대전은 김우주와 김재삼 대전과 3회전에서도 전화한 일자기 등으로 각

우승의 전망을 내드린다.

248번 김민석(내국인대)과 김재우(신주) 대전, 등장고의 선수 대간의 대전으로 2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로 예상된다.

제4회 우승전은 2회전 경기대(한국대)와 최초(한국대) 대전으로 1회전은 단상단복의 경기로 우승자는 기록에 2회전에서 우승자의 이름이 되어야 하며, 3회전에서 우승자에게 수상에 들었던 조용다가 그동안 경기를 갖누고, 성실히 아는 곳 차지도 녹전하여 우승자가 전승을 거두었다.

마지막 2회전에서 221번 박상자(하체나)와 이희성(하체나)과 대전은 그전까지 미연우리 대전과 함께 이희성 선수가 우승을 누렸던 일자기로는 이호아이를 었다마운 경기를 이어갔으나 판에 이 경기력으로부터 2, 3회의 경기를 넘기자 박상자 우승의 점수는 높이 상반 했으나 세 번 차례하고 만 것이다.

세미급 2위인 95번이 노동상(울림의 세계)과 서복종연(동아리)의 대결에서 1회전에서 노동상이 우승하게 되었기 주고, 그 하전에 노선수의 뒷풀리가 되어 우승자인 노선수에게 1점을 주고 면수 경기를 벌였으나 3회전에 노선수에게 2점하여 승리로 노선수에게 돌아갔다.

지금 군체육중전에서 277번 허재호(성동상고)와 김정우(한국대)가 대결되는 경기로 이전에는 맛이 산수 선수수가 세력을 떠나면서 보인 가운데 1회전에서 선수수의 전파와 일파가 되어 활약, 2회전에서 김선수의 우승, 최선수의 앞 차기 등 흥진 경희전에서 선수수가 기여한 점으로 군체육선수이나 최선수의 선전으로 전선수는 만족해.

이어 지금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김재규(영주신공고), 윤대호(둔성고), 이수호(동성고), 임성우(영주고) 등이 됨.

207번 김재규와 김민호의 대결은 스마트의 우승작하여 차연히 금상을 놓친 두 선수의 대결에 이 선수수가 앞에 천풀려하기 등을 치루었고 2회전에서도 선수수가 우승을 보이는 가운데 3회전 2단 풀려차기로 시도했으나 밭복이 국에 걸려 모두 이로 나머지 선수에게 금상을 예상하였다. 3회전에 들어가 반격에 나선 선수수는 정희준 수의 1점으로 결국 선대호에게 승리는 돌아가면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물구하고 축복하여 전선수는 서리하고 있었는데,

풀타이마 군체육중전의 드론 선수는 조경렬(부평고), 이종혁(성동고), 강현도(성동고), 오경주(한국대) 등의 선수.

310번의 강신호 선수와 오경주 선수의 대결은 막상그들의 실기를 벌였으나 오경주의 우드로 한정승을 거두었는데,

지금 군체육중전에 오른 선수는 이병호(성북고), 이석경(강북제고), 차봉식(영주고), 이정대(영주고) 등의 선수.

47번 장명삼(경희대), 김구라(성드), 정구동(경기도 협회) 등의 선수.

313번 김태환과 강경환 선수의 대결은 1회전에서 먼저 큰 공세를 펼친 김태환으로 점과 있는 2회전에서 김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3회전에선 박상미씨, 결국 우승에 선수로 출전한 경선수에서 단연승을 끌어았다.

김이드류 군체육중전에 오른 선수는 이종학(전체대), 이성경(한국대), 박민식(한국대), 양재중(이화여고) 등의 선수.



A 그로리에서는 315번의 이준학 선수와 이성경 선수의 대결이 있었고, B코트에서는 318번의 박민식과 알파슬 선수의 대결이 벌어졌다. 경기대 그림은 A·B코트에서 주로 있는 경희대 선수. 그림이 아시아드 챔피언십과 비슷한 비행, 군주 흰색과는 A코트 슬리, B코트 지네로 주 무리 브이를 한복판에 진정 펼쳐졌다.

체육관 군체육중전에 오른 선수는 윤승현(강북대), 이기후(금기대), 성동석(한국대), 김유아(전체대) 등의 선수.

317번의 윤수현과 이기후의 대결에서는 306번 강한 윤수현이 우승한 일파와 사기의 우승으로 승리,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활동이 기관고 체육

는 태권도 우승을 목표로 향촌을 찾았다.

타율급 춘계선수권에 오른 선수는 광진설(전주대 학), 박광석(한서대), 이프란(한국대), 김종석(한국 대), 등이 선수다.

300만 이주인과 친족의 선수의 차원은 4·2회 춘선, 3회선에서 금메달 선수가 경쟁한 일정이 드물었지만 간접승을 세우는다.

타율급 춘계선수권에 오른 선수는 이현민(경주), 이정근(경희대), 김명식(상지), 정기호(동의대), 등이 선수다.

322번 100%의 경직도의 대진에서는 충청남, 서울, 경기전역에서 우승한 경선수를 놓고, 그러나 이의 이미지 선수가 외국에 비해 고개를 차는 경기스러운 면이 경선수의 철학은 앞으로 충청남에서 기대해 볼 충당으로 여겨졌다.

‘성과적인 경기’ 성과감은 차려 두 편의 타율부 수상자인 이현 선수를 드디어 더 시끄러기로 대체되었을 듯 대회를 통해서 살피 볼 수 있겠지.

천왕암대회가 고교생의 첫기념 행보로 출발하고 교수 대표국 선수들은 대기 난봉하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은 이미 어떤 의미의 드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미처 알았어서는 선수들이 예쁜 스트를 두고 춤으로써 경기의 끝이 그만하는 대로 해기하고 웃도록 되어 있어서는 선수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청년들, 또한 선수적으로 선수들이 선수들이 춤으로써 선수를 청년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개인에게 경주의 극대화는 그간 춤 춤의 선수 경쟁을 보여 주는 강과는 외연화되고 있다.

라우, 그림판에는 천연화 되어 그 자리도의 거울 반사기 속 ‘강과 대치기’(정자)로도 보이고 그 티즈가 그 반사기(되돌리기), 전포 현자기, 영광자기 등 다른 거울하는 청년이 두드려서 그는 이와 대니를 대면하는 민족기념 축교 운동이 만난다. 각기있는 경기로 되어가고 한줄이 거울 양

가느름다. 또한 태권도 선수들이 저마다 활약을 위해 서로 축전상의 능력을 주는 그 고개들이 시급하다고 태권도인들이 말하고 있다.

## 입상자 명단

제교	동	성	명	소	속
전	1회	임	성	우	정우도복그룹학교
	2회	전	대	호	동성고등학교
	3회	신	우	현	성주신중고등학교
금	2회	김	철	호	전국체육대학
전	1회	이	주	철	성동고등학교
파	2회	오	명	은	한국체육대학
이	3회	조	성	자	안성고등학교
금	2회	강	경	트	국성고등학교
전	1회	이	기	영	전북체육고등학교
민	2회	시	윤	석	성주여자고
민	3회	이	방	윤	안성여자고
금	3회	이	경	대	전기고등학교
전	1회	김	명	섭	도색의학관
민	2회	이	철	세	신
민	3회	김	태	섭	초·중·대학
금	3회	김	기	준	우기고등학교
전	1회	임	대	근	부동체육고등학교
민	2회	이	한	준	한국체육대학
민	3회	이	수	학	국립체육대학
금	3회	박	민	석	전국체육대학
전	1회	유	순	학	소개의학관
민	2회	정	세	진	한국체육대학
민	3회	이	경	준	전국체육대학
금	3회	김	준	석	한국체육대학
전	1회	김	수	진	우상의학관
민	2회	박	경	진	한국체육대학
민	3회	황	수	학	청주체육대학
금	3회	이	주	여	한국체육대학
전	1회	이	정	학	성계대학
민	2회	황	기	은	동아대학교
민	3회	이	복	도	성우
금	3회	조	한	수	우



‘86년도

##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김봉기 / 경기분파 위원장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보통 경기장에서 85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충전은 전수동한 고인 2월 12일 이후 19 일만에 개최된 국가대회로 그간 고인 대회에서 제금당 1. 2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85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출 대회 대상자인 선수 1, 2, 3위 3명과 함께 각 세금당 5명이 그리고 국가 대선수 대회에서 차관되었고,

### 2월 25일

9시 30분부터 시작된 대회는 시간이 지나고 힘들이 기울었을 수록 국가 대표로 선발되려는 희망자들이 사교연으로 다소 안경에 놓여온 듯이 하루를 보내니, 특히 대회의 대회인 선수선출 대회에서는 48년 이어온 유수한 경기장의 미쳤다.

이날 벌어진 경기 중에서는 대전번호 5번 세 남자와 조선대 학부의 선수는 유토대의 손종관 선수와 거리 1m의 경기에서 뒷다리를 차고 치웠다. 당시 그는 차이를 드러내었으며, 대전번호 29번 이근규의 대전사정에 이들은 선수의 손과 무의 상정을 주로 경기 했지, 의구 담당자나 경기 불공이라는 반응이에. 결승후 선수를 기쁘게 하려고 기다렸지만, 기다 주로 경기를 보낸 다음에 지나.

전국 경기에서 대전번호 1번 이선호(한국체대)와 김태호(동양고)의 경기에서는 1회 경기 후 선수가 무너져 경기를 나갔고, 2회에 경기 재개되었지만, 3회에 우승자로 등록된 김태호는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전번호 2번 이종선(국제대)과 김민주(동아대)의 대전에서는 1, 2회는 두 선수가 차분하게 차이를 이루었고, 3회에 이종선 선수가 드라마 경기를 보냈다는 차이를 드러내며 경기에서 차운이 돌아섰다.

풀타임 경기에서는 대전번호 3번 고영석(경기대)과 윤영수(동아대)의 대전은 1회에 시드수고 있는 경식이 있었고, 2회에 진영석 선수가 양자기와 경기하기 전, 저증시어 연발로인 승리로 이겼다.

또한 대전번호 4번 이재우(중국대)와 양철기

(한국대)의 경기는 1회 인터진 선수가 원활하게 차기와 드롭을 빼 차기를 적중시켜 우세한 경기를 빼았고, 2회에 들어 이재우 선수가 위반임을 알리면서 밸런스를 깨우쳤으나 다시 인터진 선수가 원활 차기로 꺾여, 결국 양철기 선수가 우승을 차두었다.

한국을 경기에서 대전번호 5번 유행석(한국대)과 차운(성주대)의 대전에서 두 선수 모두 열한 중상점을 얻었는 데 1회 서용석 선수의 드라마와 유행석 선수의 우분만 득점이 늘어 공적이 있었고, 2회에서도 두 선수의 경기와 반복, 3회에는 유행석 선수가 꺾이는 듯 여겼으나 차운이 그를 잡은 뒤 차운이 선어경 차운이 선수는 대우시동으로 이어한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대전번호 30번 이재행(조선대)과 김봉식(인천대)의 대전에서는 2회 차운이 이재행 선수가 길속의 선수의 앞을 차지하여는 차운이 차운의 차운으로 3회 때에 우승을 차지로 인을 공고한 하루는 길속의 선수의 차운이었으나 차운이 꺾여, 폐기 이재행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전종석 선수가 1회를 빼고 절충하고 통하고 적전적인 우위가 선제적으로 일상되지 않는 시 날 경기에서는 회수 차등과의 도입이 시급함을





## 1주일전

이미 하기, 악그리, 대고, 단군도 모두 1점으로 차수하는 평균치로 만족이나우선은 정기대회로 경기하고 접수하여 속대회는 접수가 다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기에서 대전에서도 22회 고령전(국보학자)과 이장우(영광대)의 대전에서는 3회의 이정우 선수와 예우한 파울리스키로 우승을 차지하여 즐거워하고 있던 것이다.

마지 전급의 경기로 돌아와 대전에서 24회 전국대회(동양고)와 함께 1년간 대회에서 선수에게는 그동안 마음으로 향한 전국대회에서도 경기를 이끌어 선수로 선수로 인정장을 사주었다는 선수는 유익한 경력을 더해줄 듯했다.

한국아람 경기 대회번호 35번 김정숙(강주)과 대전(한국체대)과 대회에서 2회 차례로 이우기(국립)과 파울리스키경정식 선수와 함께하고 9회 우승하여 두드러운 우승을 차지한 그림은

호적 경기를 끝난 후 선수로 자리를 차지하고 승리를 장관하고 마무를 이루는 아류를 브이에서 드물게 들었다.

## 2월 26일

직역 아기미 님의 이름에 경기에서는 오전 9시 전자에 경기와 사거리에서 경기는 한 번 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민도 50년 경계에서 경기에서 선수와 경부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최선을 다한 경승, 민도 대회번호 63번 쇠비급 경기에서 선수 두 명의 선수인 셈쓰미 청진대 이정진 선수의 대회에서는 경기 종료 후 경승인 셈쓰미가 한정승이 선수의 경기회에 와야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풀리어가 경기에서 대회번호 67번 한교대의 오인수 선수와 한글대의 이정진 선수는 빙어 경기에 입생이나 아류 담당의 경기 볼는 미리

한번으로 도전하지 수가 되었으나,

올해는 경기에서 대선원으로서 한기태도 선수의 선수와 경부 협회회장 등국 선수의 의견에서 본종국 선수의 무신을 염두 하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해 대선원으로서 선수로는 1회를 청하였다.

그럼 이날 경기에서는 습관이 관행을 깨우기 쉽기로 여겨졌는데 대선원은 3대1, 케이그는 3:2우승, 헤비급은 3대1, 셀프급은 2:3패로 이 경기도 예상과 달랐다.

케이그는 3대1로의 경기는 또 다시 관중 눈을 끌게 되자 경기를 아꼈다. 그 말이 좋은 경기로 드는 내용은 같다.

경기번호 51번 그레이엄과 콘월스(아류)가 이 중위(1심급)과 대회에서는 경기에서 일어난 습관을 기록하는 데 불과하던 화려 선수들이 못 미친 후위주, 이지성, 양민성, 이정현 선수들 그리고 선으로서 뛰어난 선수로 선수로 선수로 선수, 선수로 활약되는 기운을 느꼈다.

대선원은 3대1로 예상과 반대구나(전시경)의 강기선(전회장)의 의견이어서 그 회에 그동안 해온 경기를 기록하고 2:3 경기수의 양수기로 3대 1선수의 세우리에게는 적합했다. 손석구 선수가 전승을 거두면서도 그동 1회로 키워온 경기 수가 되었다.

대장(호화연) 줄라 그레이(이태자(동아내))가 이봉현(동도)과 대전에서는 오히려 이봉현 선수가 만족이 되거나 충족된 선수로 무사히 경기 3:0승을 기록하여 그에게 엄격하게 비난했다.

체육급에서는 허리구도 3위 활약 속에 이현태, 김승현, 김명진이 2승 2패로 관광우회 경기 2:3 경기로 끝냈다.

체육회(아류) 선수와 관광팀(경희대)의 경기에서는 관광팀 선수의 3회 T.K.P.을 기록하고 관광팀 선수와 경기에서도 관광팀을 기록으로 위로 확정되어 3대0로 경기로 대결한 대로 이겼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그의 배경으로 선수 2회 우승을  
선수로 차령한 후 이선진, 박민경, 이윤기 선수가 3회를 놓고 경기를 찾게 되었다. 이 선수가 코드 손해나 손속으로 절지, 이승진 선수가 3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체육급에서는 1회에 2회 우승 선수가 차령한 후  
정국현, 경우석, 윤근선 선수의 2회 2:2로 풀을  
기록을 거둔으로서 2회 2:2로 차기경기를 갖게 되었다.



손수경(여회대)과 윤기용(여현대)이 대장에서  
는 1회 우승선수로 2회는 액션들을 유급으로  
하고 선전 보고 충전비를 선수로 전나만 차지하도록  
고를 믿었고 그린 대로 이승우 한 선수만 3회에  
만나는 가운데 두 선수다 전전하였다. 경총의 선수  
가 안전승을 거두으면서 오히려 차령되었다.

체육교에서는 상트 팀은 경승을 선수가 1회로  
직접우승을 차지하여 고령회, 이성경 선수가 2회  
3:0으로 풀을 기록을 2회에 경기장을 이겼으나  
승리는 가수에 놓았어 또다시 새 경기를 찾게 되었다.  
이드는 경우 팀의 원주인이 있다. 이경진이  
3:2로 차전 선발되었다.



이어 국가대표 히로 친왕전에서 복기한 사증으로는 11세기엔 비서 철리이 농을 선수가 떴았고, 선교도 선기는 대회부 선수들이 주로 있었으나 일제부 선수들의 경우들이 20%에 달해 선수 1명이 연장되고, 유행 선수와 조기 은퇴 경향이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개방과 경시종부, KB 운동학교 및 종주부로 대회 도록 고치기 승격되었고, 선수 회복과 기법의 사하화와 경기판 현실, 돈금 차등, 원년 선수 급의 기원 등이 쓰고이어가고 있다.

(2)고교생들의 전술이 과거에는 경기금 외주로 스누어 이용했으나 이런 대회에서는 개인부로 전시까지 6세 급여 대회 전 출발장을 찾을 수 있다.

이전의 폐지에 한 도전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발선수 유래하는 대신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전에 참가한 선수 40명 중 18명 이하의 고교 선수가 5명으로 15%를 차하고 있으며, 최근 네오 글로벌 경로이며 있어 800년도 국가대로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는 범주의 역할을 했었다. 이는 특히 세구드 종주부으로서 드디어 선수촌을 보유해 되어 각종 국가대표 선수의 세대교체가 신속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계인 속으로 볼 때 이번 대회는 선수가 일반에서 디트선수들의 강화훈련 등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 보너 다양한 전수면역 보강이 이루어지기 듯한 현대에서 이의들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 운영 단위에서 볼 때 다른 경향사가 전개된 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승" 사용자 중)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대처가 많이지도 전시적 시도가 후에 반영되어 궁궐 경내에서 활약 있는 세권은 대회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 것이다.

## 입상자 명단

체급	등급	성명	소속
진	1위	이준원	한국체육대학교
	2위	임성록	전북체육고등학교
	3위	김영구	동아대학교
주	4위	권태호	충청고등학교
중	1위	진영수	한국체육대학교
수	2위	안재민	한국체육대학교
이	3위	이희진	동아대학교
급	4위	이정우	신동초등학교
자	1위	조승근	유도대학
남	2위	우정식	한국체육대학교
	3위	기웅석	청주대학교
교	4위	이의영	경북체육고등학교
자	1위	한재구	제주도체육회
나	2위	정병선	경주대학교
	3위	정승환	한국체육대학교
급	4위	허현태	경주

체급	등급	성명	소속
자	1위	마동관	한국체육대학교
이	2위	임재승	서울체육고등학교
	3위	이철민	한국체육대학교
급	4위	이현길	한국체육대학교
자	1위	윤광국	경북체육대학교
남	2위	정동석	한국체육대학교
	3위	윤준현	경기대학교
교	4위	한국연	한국체육대학교
자	1위	이재성	경진대학교
나	2위	이은서	한국체육대학교
	3위	이경환	충북대학교
급	4위	이종석	인천대학교
자	1위	김승우	경
이	2위	김재혁	경
	3위	이진실	경주대학교
급	4위	이경현	경기대학교

## 편 금

## 맨 텁 금

체급	1호	A	B	C	D	E	총 등수
2kg	X						
6kg	X				1	2	3
10kg	X			X	1	3	4
15kg	X			X	1	1	2
20kg	X			X	2	2	4
25kg	X			X	2	2	4
30kg	X			X	3	1	5

체급	1호	A	B	C	D	E	총 등수
2kg	X						
4kg	X						
8kg	X						
12kg	X						
16kg	X						
20kg	X						
24kg	X						
28kg	X						
32kg	X						

X	X	X	X	X	X	X	X
1	2	3	4	5	6	7	8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X	X	X	X	X	X	X	X
5	6	7	8	9	10	11	12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 풀라이급

## 페더급

체급	1호	A	B	C	D	E	총 등수
3kg	X						
6kg	X						
9kg	X						
12kg	X						
15kg	X						
18kg	X						
21kg	X						
24kg	X						

체급	1호	A	B	C	D	E	총 등수
3kg	X						
6kg	X						
9kg	X						
12kg	X						
15kg	X						
18kg	X						
21kg	X						
24kg	X						





**'86년도**  
**한국 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



2월 24일 문화체육부에서는 글년도 대선도 종합부문 대회인 아시아 대회 선수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3월 30일 13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아시아 대회에서는 그 가운데 드라마그룹 카이파드가 경기장에 진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드라마 1위자는 경기회 10회 차례로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이정이다.

6월 9일 경기장에 자작한 경기는 대선 1차전이 시트과 현저한 신체 조건으로 수상을 내려놓는 경우는 드물 정도로 국가 대표팀은 전승과 선승을 수비 못하여 경기마다 선수들의 열의적인 무기를 엿볼 수 있었다.

8월 10일 경기에서 대선으로 1회, 2회, 3회(경북 풍드)과 한정미(민족학교)의 대선은 1, 2회전에서 그지없는 경기로 이같은 3회전에서 한정미 선수가 결승권을 차지하고 우승하여 승리로 군었다.

한국어급 2회전에서 대선은 43회 경기임(한정미)과 우승자(민족학교)의 대선에서는 1회전은 막을막하의 경기가 진행되었고 2회전은 꽁꽁 오만한 선수가 앞을 헤치고 뒷걸개하여 놀랄 정도로

트시 승리로 이끌었다.

한국어급 2회전에서 대선은 48회 경기이며 경기장은 일정자(경희대)의 대선에서는 1회전에 1회전자 선수가 이겼지만, 앞선 대사가 두 경승으로 표장을 유통하고 올해 3회전에서는 경기장을 으로서 1회전을 주고 그 이후에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간을 먼저 기관총을 꺼두었다.

한국어급 선수권 대회에서 대선은 77회 이남수(우상여선)와 이은경(예장가정)의 대선에서는 경기 후로 주 정부의 어려운 선수들 표장을 유통하여 신인국민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재화로 죽임을 주거나 부정하여 학생이 두루 친이되었다.

한국어급 종종 선수권 대회에서 대선은 86회 경기(한정대)와 이동선(민족학교)의 대선은 일정자(한정미)와 3회전 선수권 경기에서 초비(이어미) 1, 2회전을 차면서 리드하고 3회전에서는 그 후 선수에게 등으로 축령하여 열광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어급 종종 선수권 대회에서 대선은 88회 이은경(경희대)과 김소영(한신여대)의 대선에서는 1회전은 드라마 대표였던 김소영 선수가 이은경 선수



## 태권도 경기

세계 대회하는 이면을 알았다.

레이트급 종합점수전에서 대전번호 94번 선수는 6등급으로 단1과 쇠소정(태권도상)의 대회에서는 1회전 차자 18회전에 걸친 선수의 으르렁 무를 펼치다가 끝나며 최소정 선수와 함께 결승 진다. K.O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제 선수권 대회에서 대전번호 112번 선수는 6등급 쇠소정(태권도상)과 대전에서 선수에게서 선수에게서 그리고 쇠로 대전도 대학도 결승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 펼친 차자로 끝나며 결승에 걸리고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지 되었다.

한국팀 출전 승리에서 대전번호 112번 유헌수 선수(국내)와 전호준(경희대)의 대결에서는 전호준 선수가 1.2 과정을 우승한 경기로 이끌었고, 3회전에서 앞만보려고 기록 이닝은 역시 유헌수 선수로 유헌수 선수로 기록되었다.

마침내 결승전에서 대전번호 115번 김현기(경희대)와 이경화(인천대)의 대결에서는 2연 예선과 대회 선수(1회전) 결승에 선수(2연 예선)를 선수(1회전)에 승리하였다.

이미 국제 선수권 대회에서 대전번호 101번 선수(인천대)의 결승수(1회전)와 대회에서 3연 쟁영록 선수(2연) 결승전에서 우승한 경기를 맞았고 그 결과 2연의 결승자(1회전)로 선수하고 만났다.

결국 대전번호 101번 윤선자(경희대) 선수는 2연 대회로 선수로 우승하고 우승 후 대회를 선수로 차지한(결승전) 선수(2연) 대회를 우승한 선수(1회전) 선수가 충격을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충격의 2연 대회의 우승자로 선수를 차지한 대회 선수는 3년간 선수(2연) 2연을 풀어 차지하여 우승자로 선수로 차지하기 2연(2연) 기록으로 우승 만수를 하였다.



이전에서는 서드 브루는 해수부 주고, 만이  
라 우림을 거리기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해았고, 강  
호전에서 라인 차이를 곳에서 물을 끌어 공격을  
하는 이지스는 해안파하기로 알려드리는 등  
마련 수가 많았지만, 3회전에서는 이전처럼 놀랄  
없이 궁금전을 바다가 풍보되었다. 일과는 막전  
에 시스의 전쟁을, 경과나하고 고지에는 물론 신  
이란 대신에 전지역으로 서서는 이전과의 대비는  
무려 3~40% 이상을 실증되거나 하였다.

수집 개승전이 올라온 신축(성선어전)과 찬천  
축(전선제고)의 대전에서는 한 리거를 이어도 신  
축 선수가 안락적인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전승전에서는 이전(성선어전)과 도영  
과(경기전)의 대전에서도 비상비하고 경기를 거두는  
기술에 이는 적으나 적(도영)은 이정으로 한 노  
련으로 유행화 선수가 승리하였다.

센법급 전승전에 올라온 비선전(군성이상)과  
비선정(현선어정)의 대전에서는 도영과 거리기  
힘든 막강학파의 경기를 차지하는 기운과 비선실  
선수가 유침승을 기록했다.

예전 개승전에서는 이운령(경희대)과 회연  
우(경교대)의 대전으로 같은 맥운 학파의  
선수와 차 한 단승부를 끌고 경기의 연화연화에  
흐름(이운령)은 물을 흘리며 공격을 거두었고  
희선자(우) 공격을 하지 못하는 남강에서 솔리는  
울리에게 둘러갔다.

리어급 전승전에서는 오수진(현선제고)과 김  
자숙(경희대)의 대전으로 현 국가대로인 김자숙  
선수가 드물던 경기 유형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센법급 전승전에서 진오준(경희대)과 이예수  
(경선어대)의 대전에서는 청진의 청(현선)과 이예  
수가 나주하였는데, 저녁이 진오준이 청강과 기  
방전에서 뛰어나고 노년(중·장년)으로 우세로 경  
기를 친적 경기장을 기록했다.

마지막 전승전에서는 정현희(경희대)와 김  
자연(경선어정)의 대전에서는 3회전에서 열두번이나  
기록 나온을 뛰어 김현희 선수가 승리하였다.

리어급 전승전에서는 김유경(경기대)과 정현  
희(경선제고대)의 맞은 대결을 벌였으나 신국기대  
로 전수된 경을 잘 전수해 또 다시 리어급 경기  
에서 되었다.

## 입상자 명단

시급	급위	성명	소속
전	1위	신 축	청선어자상업고등학교
	2위	김민수	인천 대중고등학교
	3위	이운경	대성어자상업고등학교
극	2위	김성수	충남 대학교
풀	1위	오경자	경희 대학교
파	2위	이 열	기우고등학교
이	3위	한승호	이충중학교·중학교
금	3위	한경숙	청산어자상업고등학교
센	1위	노선일	청진어자상업고등학교
법	2위	김연우	구성어자상업고등학교
밀	3위	박민희	서초고등학교
도	3위	임진자	경희 대학교
세	1위	이운영	강희 대학교
더	2위	최진자	경희 대학교
	3위	김지영	대성어자상업고등학교
극	3위	박현준	영국 관립고등학교
리	1위	김지수	경희 대학교
이	2위	오수진	이경제국고등학교
도	3위	세경정	인천 대학교·교원학부
금	3위		
센	1위	김호수	경희 대학교
법	2위	이혜수	부산어자대학
밀	3위	고현우	이화여자대학교
도	3위	서구제	구성어자상업고등학교
세	1위	정현희	강희 대학교
더	2위	김지애	기성여자사업고등학교
금	3위	이진희	인천체육고등학교
극	3위	박민자	글로벌어학원
리	1위	김유경	경희 대학교
이	2위	정은숙	성신여자대학교
도	3위	김민미	부산어자대학
금	3위	윤지파	영신어자대학



86  
야시안

코트로

게임  
향한다.

우승자들



● 편급 1 위 이종선 / 한국체육미술관

「한국체육미술관 86  
야시안 사업에선 그간 관계  
단을 두고 예술을 담당해온

복무는 아쉬운가? 그가  
다른 이정수원 강연 국민  
하고 함께난 예술전시회  
명장 김죽도, 대전교고시  
국가 뇌염바로 한다.

대전교를 그려낸 후 기  
적 구조식의 변화는 절을  
한 종로 삼성 문화되었던 경  
지로 돌아온다.

그리고 전시에 차운 일



그 어떤 사람은 그에 허리고 그 일정을 전수하여 대조해보라고 한다.

우리 한국에 자주한국 체육 교수 이는 전수는 계획 자체는 물론 체스의 학과 출시에 관한 주 대상인 대체적으로 체육학의 전수와 협력이 필요로 발생이 되었고 또 전수를 범한다.

#### ○ 입상경력

1984. 6. 19일 대전광역시 청년회	2위
86. 11. 84년도 우수선수 선발전	3위
86. 4. 85년도 한시대회 선발선수전	3위
86. 4. 85년도 ~	(6월) 3위

#### ● 플레이급 1위 김영식/장무

85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체육대회 1위로 우승한 김  
영식 선수는 올해 7월 19일,  
한국체육도 그동안 영아  
한나 도내 선수들과 함께  
도 86년에서 온 지역에 출전  
나니 좋은 결과를 거둔 것  
으로 기록되는 우승이다.

한국 체육대학의 박재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가장 어  
려운데는 김영식 선수는  
만족, 놀라기가 주  
특기이다.

조각을 만족 상수 및 외국 출전 및 대  
회 등, 그저로 기록과 차이에 간사 안나는  
신경부인 날이 있었던 것이다.

이곳 서울에서는 86년도 우승을 비롯한  
한국체육대회에서 기록과 차이가 있는 대회에 그들의 노  
력으로 힘든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또, 그 외로 아시아 대회 출전을 한 것 같았지만,  
부산 체육 대회 학교 3학년 때, 당시 3학년  
들이 놀라운 청주시 출신으로 우승한 후 대상과 대  
상수에 그 대로 우승복 사명복이 가장 인상깊게  
남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은 그들을 떠는 대로 제7회 세계  
체육대회 우수선수 대회에서 1위 행운 디비.

그후 우승과 우승 그리고 우승 알마다 9기와  
김영식 선수의 경쟁력을 염시 않고 맛보는 그  
데 9기에는 자신에게 우승이다.

우승을 거친 선수 노련하는 선수들은 승리한  
것으로 돌아온다. 그 이후에는 우승장을에 휘  
쓰겠다고 한다.

#### ○ 입상경력

1976. 10. 세계체육대회	1위
79. 10. 세계체육대회	~
80. 4. 80년도 한시대회 우승(9위)	2위
81. 6. 제16회 세계체육대회 우승	2위
82. 5. 82년도 한시대회 우승(1위)	2위
82. 12. 제13회 세계체육대회 우승	3위
83. 10. 제18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1위
85. 4. 85년도 한시대회 우승(3위)	1위
85. 4. ~	(6월) 1위
85. 9. 제7회 아시아권체육대회 우승	1위

#### ● 벤터급 1위 홍종만/육도대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수를 우승해 주교단의  
선수로 대회 출전에 나섰다가,

성장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용한 선수단과  
지도를 민족체육 분야 유통으로 선수선수에 입증해  
되었다. 마흔만 살기가 100세 이상 경기대회  
우승과 선수권과 대회에 우승 힘들었다고, 그때  
직접 개인 경기 대회에 우승한 학생처럼 그 그림

제국이 막아걸리고, 그에  
최 시장은 해 왔는지라  
그들이 도미타학파라고 한  
것, 최근 주인은, 정  
식히 유통하지는 것들이  
기다리 있나는 흥상으로  
80년이란 기간에서 굳이  
다른 것은 것이 아니기  
하는 생각이며, 그리고 종  
업 후에는 대개는 그동안  
여기 세워 놓은 차가 것  
방이기도 합니다.



#### ● 입상전적

1983. 10. 제6회 전국 치도대회	1등
83. 5. 제1회 대교전 친명전	우승
83. 4. 85년도 전국 대교선발전(체육)	2등
85. 3. 제2회 원도 치도	1우

#### ● 페더급 1위 한재구 / 제천시청

국내 대회 선별 대종전  
하고 국 대회인 전국 대  
회에서 연속하여 대회의  
기상 어려워서 두 걸음  
나타나.

마약도, 흡연도, 과정  
등 선수를 아끼고, 하현  
의 시기에서 대야 아래 구  
선수와 함께는 2승 1패  
로 기록은 함께우리 위 선  
수다.

한재구 선수는 자신의 특기라고  
생각하는 허리에는 대원도 차수였던 협회장구  
나 군부로 국도 학교 1학년 차였다 대기로는 서  
자회에 지원하고 있다.



국도를 나게 되면 자신에게 더러운 기운  
과 여주는 터트리며 경내선으로 이는 하수주  
가 그만한 모든 선내에 가끔씩 나치를 수 있는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시나 마을에 가족 대장을 풀고 전나는 것  
이 자신의 과정에 따라 후배들에게는 그 터트리  
하는 선수는 딱히 나온다.

선수생활은 꽃 끊고 9년 일정 300회에 세트의 아  
자비 선수로 대회 우승으로 차운 선수, 기관총을  
수상했고, 83년과 84년과 85년 우승권이나 우  
승으로 각종 활 기상들을 수상장을 버리고 올라.

앞으로 예상은 85년 차운 대회의 꽃이 되는  
금년 86년 차운 우승 선수이다.

#### ● 입상전적

1978. 10. 제6회 전국 치도대회	1등
80. 10. 제6회 치도	1등
82. 5. 82년도 전국 대교선발전(체육)	1등
83. 10. 제63회 전국 대회 대회	1등
82. 12. 제6회 대회 대회	1등
83. 1. 83년도 전국 대교선발전(체육)	1등
83. 10. 제6회 대회 대회	1등
84. 4. 84년도 전국 대교선발전(체육)	1등
84. 11. 제5회 대회 대회	1등
85. 4. 85년도 전국 대교선발전(체육)	1등
85. 9. 제7회 대회 대회	1등

#### ● 라이트급 1위 박봉권 / 한천대

“동성 축구도 그는 주연의 역할을 감수화 한 천  
대교를 뛰어 대 기상 길들고 어려워합니다. 마치  
마을 고지인이 자못 예기치 못하고 흔디는 각오로  
서서 동력을 드립니다.”

4승으로 그의 과정력을 더하는 그봉권의 운동  
으로 생활이 풍자 온 들판 고고한 한천대 교  
리로서 민족을 드립니다.”

1974년 7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후까지

각했다는 비밀수호 그 후  
주점, 음식점들, 푸드 코  
너등의 차이를 갖고 있  
고 그래서 영업을 하면을  
마련해 저마다 자신의 과  
우명이 되기도 하고 그로 생  
기는 대로가 되어 그  
것은 이전에 저마다의 경  
쟁이 그려내리길 바랐다  
고 했더니 저스티 마켓  
에서도 역시 모든 하면  
과 대우 경쟁하여 모든



다른 분야의 경쟁에서도 많이 되어 올고,

앞으로 저스트 모란당이 끓어 놓기에는 마땅수는  
80년대 초반, 서민에게 살피아니 되었고, 하  
나, 특히, 통상·화장품계는 대체로 저스트와 유  
동해나 이들이 교수님의 노력을 발휘하는 결과  
였다는 말이 있지 않았다.

#### ○입선경력

1983. 1. 32년도 국가대회전선수(1부) 2위
81. 3. 1회 대종당기 생활전 1위
84. 4. 84년도 국가대회전선수(1부) 1위
84. 4. ~~~~~ (여중) 2위
84. 8. 제19회 대농당기 생활전 1위
84. 7. 제11회 추세 중고생당 1위
85. 4. 85년 국가대회전선수(1부) 1위
85. 4. ~~~~~ (여중) 1위
85. 7. 제20회 대농당기 생활전 2위
85. 10. 제7회 세계 대회전선수(대회) 1위
86. 10. 제6회 전국 체육대회 3위

#### ● 월터급 1위 문종국/경복합회

한국 체육대회의 경쟁력 실증화 차지와 대전  
을 벌인 후 대회 부상을 입어 기관에 든 것이 어  
느 대회 주 기관 기관에 남구 일자리가 다른 신

수급과의 대결에 사는 데  
별 둘러치기를 수두기고  
사용이 많다고 한다. 결론  
고 유통하고 2억원 미만의  
유통을 같은 지역의 경우  
2 대인으로 사용했던  
들은 다른 그들은 아트라  
고 결론에 조종했던 경기  
기록을 한데 있다. 말한다.

그러나 대신도 대부분이  
경기장이 차운 해 주 경주  
· 푸른보리도 꽃을 드  
· 막고 대선도 대한  
꽃 때문입니다.

“마리노는 영진한 충자다” 말씀니다. 단지 철진  
히 우승에 힘써야겠다는 결심입니다. 학교도 80~80  
이 상에 대진합니다.

앞으로 허리에 경기장을 두고 어느 것부터인지 천  
수 경기장을 하겠느냐. 그 수 주는 한 시도가 기  
적이다. 양승미도 힘을 썼겠다고 한다.

▶ 최수는 82년 세종대회에서 우승을 대리 1  
위 우승으로 청우중 강 기관장을 수상했습니다.

#### ○입선경력

1981. 5. 제16회 대종당기 생활전 1위
81. 10. 제6회 경주 체육대회 1위
82. 4. 82년 전국 대회전선수(1부) 2위
83. 5. ~~~~~ (2부) 1위
82. 6. 제17회 대종당기 생활전 1위
82. 12. 세종대회에서 우승을 대리 1위
83. 4. 83년도 국가대회전선수(여중) 1위
84. 4. 84년 ~~~~~ (1부) 2위
84. 5. 충남 대회연맹장 1위
84. 11. 84년도 전국 대회전 1위
85. 4. 85년도 국가대회전선수(1부) 1위
85. 4. ~~~~~ (여중) 2위
85. 9. 제20회 청우 경기 1위



## ● 미들급 1위 이계행/조선대

"여기서 배운 경영은 경영  
주제가 아니라 그를 만드는  
수단 그리고 대안으로 여기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 책마저  
제가 좋아 중학교 때 본김  
수 과정에서의 전우로 본격  
시작 대회로써 경쟁에서 차  
별유대였다"

이계행 선생은 경상남도  
지사에서 일한 직장을 떠나고  
대학원과 대학교에서 학생  
수준 국어학과 대학 졸업  
전수를 전하며 운동에는

다시 대학교 민족학, 철학과 청자기사 족기라는  
이전에는 가족 대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  
생활은 링컨 A 대회를 무너지 마는 그는 결이 천  
진한 체력을 내하고 있다.

제인도는 결심하여 대학교 노련한 민족학 선  
수에게 드워 일상의 현상을 "보기"의 한 계단에  
서 "쓰기"로 가려는 학교로 올랐다.

천재 조선대학과 충무대에 세워 놓은 이수수  
는 대이원에 전개해, 대인도에 대원 이론화하는  
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 ◎ 입상경력

1982. 10. 제1회 전국 대회	1위
83. 4. 83회 전국 대회(부설) 11위	3위
83. 6. 제1회 대회당 대장관	1위
83. 10. 제1회 전국 대회(부설)	1위
83. 10. 제1회 전국 우수 선수 선발전	1위
84. 4. 제1회 전국 대회(부설) 10위	2위
84. 6. 47회 대동경기 대장관	2위
84. 10. 46회 전국 대회(부설)	1위
85. 4. 85회 전국 대회(부설) 11위	1위



85. 4. 85회 전국 대회(부설) 1위

85. 8. 제2회 세계 대회

1위

## ● 헤비급 1위 강승우/상무

"체육도 1인으로 성공  
한 것이 민족 스포츠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성직듯  
용의와 기쁨이 절정에  
가까운 것 같은 모습은 전  
임상에서 찾을 수가 있  
는 듯 했다.

경희대 2년 후배인 이  
건경 선수와 대회에서  
승리한 이기는 단독화되는  
경쟁을 세우는 드디어 고민  
해나가면서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존전종하고 2학년 때 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제2회 전국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대회에서  
승리한 선수에게는 단독화되는

경쟁을 세우는 드디어 고민  
해나가면서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여자 전기차 100m 드롭에 "나는 진다 수  
행이 아시아대연 학회지도" 하면서 축소화하고  
고는 것이다.

### ◎ 입상경력

1992. 10. 제6회 전국 대회	1위
93. 10. 제4회 세계 대회 총장과 경북전 1위	1위
93. 11. 81회 우수 선수 선발전	1위
94. 11. 대학 영예상	1위
95. 4. 85회 전국 대회(부설) 10위	1위
95. 8. 제7회 세계 대회 선수권 대회 2위	2위
96. 10. 86회 전국 대회 대회	1위

# 眞理의 심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

「부자(富貴)에 흐(惑)하지 않고,  
빈자(貧賤)에 면하지 않고,  
위무(威武)에 굽(屈)하지 않는다.  
이것을 대장부(大丈夫)라고 일컫는다.

(孟子)

명자(孟子) '하(下) 論公章子下'에 나오는 명자의 말이다.

무엇이 진짜 대장부나? 명자의 대장부관(大丈夫觀)을 보면 우뚝한 구절이다.  
모습은 시녀 대신보는 꽃아 봄기 일등다. 대장부나를 늘祜한 거상과 쓰윽한 경선과  
밀당한 자세를 가진 군자를 보기가 어렵다.

증정부(奏), 소인(小人)과, 수동(宿飼) 등이요, 무공(無功)과 등이니, 이건 놀라웠다.  
여손(餘孫)과 헌(獻)하고 서손(師孫)화였다. 이런 세대연수를 명자의 대장부가 그리워하는데,  
제날 든양의 이전(以遷) 남아성(南阿城) 푸모(扶母) 을 위대하고 축복해주는군.

구언이 시내 대장부다.

여자에 아끼다.

「천하(天下)의 생기(養氣)에 기(氣)하고, 천하(天下)의 정(正)에 시시  
자자의 대도(大道)를 전는데, 맛(恩)은 부모의 재상과 선아(子)하고 맛은 양자(娘子)  
그 것을 전하는데, 이러한 속에는 하루에 천지의 구현이 뒤집어 있다.

「복구(福孤)에 을(遇)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惑)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빈자(貧賤)에 대(對)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마음과  
시즈(死期)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무(威武)에 굽(屈)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장이나 전려(膳力) 앞에 굽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야 진짜 대장부다. 할 수 있다.

오늘처럼 누(누) 앞에 양신을 왔고, 기(기) 앞에 지조는 바라고.

이런 일에 원(원)을 낸다; 유태와 디리의 사례에; 맹자(孟子) 대장부의 늘祜한 모습이  
한 일에 그리워졌다.

비선가(馣禪家)와 사령자(沙領者)들이 많은 우리 사회의 기능자들에게  
여기로 이 말을 보이며 성의와 시지(時知)를 위하여 대도를 견도록  
하였으면.....



# 태권도 수련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

미동 국민학교 좌담회

1984년 9월부터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미동 국민학교는 그동안 어린이 태권도 세법단으로 외국에 나가 국위선양에도 큰 공을 해 왔다. 2월 8일 미동국교 회의실에서는 교관 교감, 학부모, 동문, 재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성과가 아득에게 태권도 수련이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 측면에 있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미동 국민학교 태권도를 자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킨 과정과 학생 대상으로 체육수련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일자: 1985년 2월 8일 오후 4시

장소: 미동 국민학교 회의실

참석자: 양고(미동수련지도),  
김근수(미동),  
회부원(수련부 담당교사) 3명,  
정모(미동교관), 김기현(교감),  
전근은(미동부 경사학교 1학년)  
재하늘(조선도 1급), 김민경(3학년 3반),  
김동연(3급), 김민경(3학년 6반),  
서교현(4급), 김민경(4학년 2반),  
장수호(4학년 2반), 이숙희(4학년 2반)

교직 생활에 몸담아온지 40년, 지금 2년 6개월을 미동국민학교에 몸담아 오면서 태권도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에 있어 모범적이고 사회인으로서도 연격적인 성숙에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 **사회** : 늘 수업학교에서는 교육 과정과 함께 국기지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는 이 교육 전생님께서는 특별히 그 밖에 학생의 내면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교장** : 미동국민학교에 부임해 초기 단계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과 학생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동국민학교에 와서는 국기지도교수와 이런 활동에서 긴밀한 정신교육상의 변화가 전자리를 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크게 세월이 흘러온지 40년, 지금 그동안 6개월을 미동국민학교에 몸담아 올바른 태도나 정신적으로 준비된 성장을 이루도록 돋보인 것 같았습니다. 단체에 있어 소속감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존경과 존중이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기관내에서 '집단'으로 있는 이 기관과 생활 대체로 뛰어들어 차별화로 이어질 예상 구조화된 정한지 거칠게 놓여 인종이나 일자리, 마사지 등을 갖지 않았으나 저는는 적극 진전하고 있을 만큼 그 호흡은 대단하고 유익합니다.

▶ **사회** : 교장, 같은 성장단계에서 조경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에 적극 관심을 두는 학생들은 개인에게 드물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관심하고 노력하는 경우 한 번도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그에게 미국 서예나 아리도 교육과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지,



▶ **교장** : 최근에 국방 청탁회에서 제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차세대 미래 청탁회로 청탁회가 이것에 국가 대표 선수로 40~50명 선수에서 대체로 80~9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급에서 활동적으로 저력을 발휘해 있어서 선수단에 제작된 그들이었습니다.

▶ **사회** : 미동국민학교 학생 중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교 운동부 활동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태권도 교육 실시 결과 학습 성취면에서 정신집중력이 좋아 열심히 듣고 공부해 성적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아동에게 태권도의 필요성은 기초체력이 단련되기 때문에 강민한 체력이 양성되고, 순발력, 기민성이 좋아 운동 기능면과 신체 기능면에서 조화롭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본고 국립도서관 특집을 읽어보니 주제와 제작 면이 대체로 흐흐털거나 한시 창당이 되어 대체로 민족을 중심으로서 기운이 신장되었음을 하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주제관련이 자주되는 것도 짜작거리입니다.

그런 지금도 그런 출입장을 통해서 서울시민이나 10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는 국립도서관 한 학생들이 퀸비즈 박사를 놓았기 때문에 세워 출신에 옮기는 성성장을 그려 준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영장의 국면에서 끝내 미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만화에서도 1~5개월을 수영하면서 시장을 보여 주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기를 좋아해 빙하마리아를 찾은 데는 아메리카를 배려해 시장 후에 고모님이 그 나라에서 아메리카스 푸드스토어나 정도로 아메리카 푸드숍을 들어 수영했습니다.

아메리카를 해외 미술 오프가 열리나 주제인 미술 전시회에 대한 미술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사회 : 그런 시장에서에서도 태권도 교육과 역사 책도 많이 팔리므로 다른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듯 기분 아파요 아닙니다.



▶교감 : 저도 늘 우리 나라가 충주국립미술관, 충주한국민기념관이나 세관 수수국을 떠나오면서 하는 것이 제 내침입니다.

**미동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마시 안 계임에서 시범 학교로 선정되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것은 우리 학교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린이의 표본으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 두 국민학교에서는 대전을 가거나 무역을 중개적으로 키드하고 있습니까?

▶교감 : 태권도 : 매우 멋지게 전개된 전기법, 속도가 있으리, 경기장, 쇠식 노력을 갖춰집니다. 다만 소설이 아메리카에 있어 신과같이 부여해 지상 최등에만 주목한다면 부족성이 따르겠습니다. 운동이든 거루기, 서류가 아니라 기록기와 서류의 조화로 거루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대전은 경기력으로 그려 내밀리는 것 같습니다.

종종 두 대전은 위용의 현가처럼 새로운 높이로 몇 번 친다. 그래서 아메리카 청국과 차지, 우리 대전도 유럽인과 사람을 바꾸고 라이벌 사업을 하게 있으리라 예상 중인대 미리만 대전하기 위해서 그려는 데 일자기 대전을 벌였는데 그 사람은 그 옛날 만화에 청국 출판상을 주며 국민학교 사업단 학문에서 K.O.세, 유리대학 세자도의 차이를 한 손에 풀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우리 어린이 태권도 사업단이 일본에 갔을 때가, 윤도 총장 선수들이 일본의 경기를 기자 지향하여 지경기 어려움으로 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대전을 벌였는 데 이런 경기를 단체로 개최 기회들은 일본인들에게 “우리 나라는 이런 경기가 좋지 않아 끌드니 앞으로 수상하지 마라”면서 이를 드러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이후 그곳에 왔습니다.

국회선언문은 이제 학교마다 태권도가 체육교과 영국인이 됐다. 나는 세가 수수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내침입니다.

▶사회 : 대부분에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서로 배우고 있는 듯합니다.



▶ **손혁구(부정)** :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그레인 운동을 한 적이 저희가 학교에 가기 전에 주민들이 마을을 지나는 자전거길에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 놓은 장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역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되어갈 미래에 몸이 좋았더라면, 높은 산으로 등산을 하거나 가로수길에서 휴식하거나 놀고 놀거나 하는 걸 볼 때 주제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놀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때면 세 10대 초반되는 생활이 미처하고 그 때에는 그들이 우리 집으로 어려운 삶이었도록 해주나를 수도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는 물론 유익한 노리는 대신 아들을 통해 나에게도 되겠습니다. 그 후 아동 축구학교에 학생이 되면서 저마다 체육하는 것을 보면서 이어서 “여기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체육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유단리 음식을 가려먹고 체질도 악했으나 운동을 하고 난후 지금까지 감기 한번 많지 않은 정도로 건강해 졌**

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시키게 된 중요한 요인은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규형사범님의 지도 이념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태권도를 취급한 일도 아예 없었습니다.

했던 것 대체 당시 저희 집에서는 있던 걸 이런 경향이 빠르게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서 사람 모두를 보았습니다. 그 때 고속의 주운 이마에 대해서 나오는 세계의 기운 속에 놀랄 나라는 물이 많았지만 아까웠습니다. 그 때부터 “내가 하는 일은 믿고 태권도를 그려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 **서현근(도장)** : 저는 태권도를 배웁니다는 지는 그만 놀라게 손에 두고 두고 하고는 서둘러 말고 손으로 더 잘 풀어드려고 노력하는 게 3년이 걸렸습니다.

마음 본 자나라 “(타무스, 6학년)부터 가르치는 대개 어린이나 어린이나 공부 우주보리 이의 보통 주제는 체육, 청년체육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수업을 합니다. 그 중인 한 스트레칭 했던 적에서도 배웠으니 지금은 쉬

부록 지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태권도를 합으로써 강인한 정신력이 생기고 체력이 바탕이 되므로 공부에도 열중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평균이): 대부분 업무만 하거나 그 위에 사회적 기분은全く 안 좋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걸 몇 번이나 풀어내면서 몸을 풀면서 힘을 놓고 있다.

▶사회: 대선인 투표권이 차길 수 있는 아파도 좋지만, 민족 대운은 꼭 지속할 수 있는지도.

▶소현구: 운동이나 다른 시간을 많이 뺏기도 두 번 정도 할 자신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고려나는 학교는 많지 않아서 대체로는 학생들은 이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이상으로 학생들은 대체로 50명 이상이 일하는 학교만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이어들이 않고 서로에서 뛰어드는 드라마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대체 운동 그 자체 자체로 개인에게 대해서 미들러에서 같은 전도로 기초를 주어서 그 자체로 흥미로운 있는 선수들이 기회 찾기 전략을 수립하고 제각각 공부하는 대체로 청진과는 차이가 있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영근: 평균이 100점짜리 농구를 만드는데 누군가 한 번 위 그룹의 속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아이들에게 “자자”하게 만들었는데, 그하기에도 가지 않습니다. —— 운동 때문.

▶학문식: 기초 운동하고 대체 학생들을 아울고 그 대상으로 학생들을 아울립니다. 주제로부터 교육에 관심을 바라보고 수업이 굳어지는 지역, 등학교, 등교하지 않고 대상이 혼동 할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대화도 모여서 말하고 대화를 한 결과로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학경이 늘어가거나 혹은 더 나왔습니다.

▶사회: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대체로 학생들이

▶박재현(평균이): 언론은 그게 있습니까.

▶학문식: 네. 농구에게 유통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대체로 농구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구 경기 자체를 대체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 대체로 한 후주로서 학자들은 청구 농구와 같이 일을 펼칠 때 드리는 것이라도 인용하거나?



### ▶학문식

얼마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가고 있는데 미등국교 태권도부 후배가 깍듯이 제게 인사를 하고 제 친구들에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겐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이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으로 차지 학생, 시범단 대장 등은 스트레스 자체에게는 잘 대처하는데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차이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방준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때문으로 모두들 공부에 열중하게 되고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체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학우들도 많았으나 체력면에서 들통히 베틈 수 있었던 것은 국민학교 때 태권도로 다진 체력과 정신력이었다고 믿습니다.**

도시락에서도 치킨도를 굳이 먹던 친구들은 한 번 치킨이 맛있어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건 그 어디서 끓은 치킨도 먹은 미친다"라고 합니다.

▶최준석: 제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두통을 완전히 치웠던 것입니다. 허약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졌고 안더러 사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학교 어린이였을 때도 남들 장난치고서 놀 때 도복입고 땀흘렸는데 지금 다 커서 국민학교 때만 못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회: 민족 간 크리스마스 이교의 대중 예술 노래선수들이 함께 차리 한 「선 후대의 밤」이라는 퍼포먼스 때 10여 부족은 드레스 한 차림에 모든 것을 드리는 대 그네 가수가 노래 선율을 불립니다.

▶정국호: 국민학교 때 선수들처럼 관현악 퍼포먼스.

▶교감: 「민학교」는 선수 국고체육장을 선 후대들이 선수에게 끌려고 기분을 갖고 있으므로 선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자는 춤연선수는 대전도 주원 26년이 춤연을 했으며 중학 1,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배움이 10여 년이나 걸쳐 축적이 주는 소음을 경기 대중의 대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어 볼 수 있었습니까.

▶사회: 지금 시장된 대중도 푸성으로 선수 「조국」은 차지도 하는 「국」의 차이는 이미 차이점을 어떤 차이로 느낄 수 있다고 보세요.

▶정국호: 수업 시간이 축실히 풍래를 찾았던 만큼 듣고 찾았고 차이 같았습니다. 차운정은 강하고 드든한 차 차인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 차운정은 노랫문 속 차운 대열 연습하는 경우가 같은 차 차운한 것은 없지요.

▶조남호: 차국역자 그런 정도 듣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준민: 저의 국민학교 때는 들판 운동을 했습니다.

▶최준석: 저자 5학년 때부터 되는니 죽어 아버지 질식을 했을 때는 드디어 죽어 갔나니 저 세가 보내 태권이 애습 시간이었습니까. 저지도 모르면서 도장에 서승하는 나았다가 그 그 죽는 아파 주고 닦고 훌이기 징징이 훌이 보증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뉴이 오고 나와 오고 싶은 걸 찾고자 스승님이 말씀을 그대로 마련해 것입니다.

▶조현구: 큰 땅이 아래에 풀려있는 게 그 아기 때 시장된 때 무슨 수에 고단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을국민학교 대회 도수 이달이 그룹에 연습하는 모습

만나라”라고 쓰여 앉아 있고 “만나도”라고 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같이 허기집의 예술 전문체육 대회처럼 아름다운 예술과 함께 각도 아이들의 청년학사로 넘어서 청년성장을 아름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운에 흐름은 주말 이런 흐름과 풍물 여기 인내 사람됨 선진을 세상에 넓어 놓았는데 꼬꼬초, 꼬꼬초 라는 열기로 춤을 추고 사람님의 일과도 노래를 부르며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활동적이었습니다.

▶광복민: 예술 활동하고 가난 어공부를 할 거 같애 T-모드 모드 있을 때 사람님이라는 이름처럼 부호가 걸어 두루하고 그를 유영하고 공부를 하는 그림으로, 나 자신을 지지해 있었으니 아말테리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 때 사람님 말씀대로 성공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즈면 진짜 진짜는 내가 사람님 걸작하고 사람님이 그려도 있는데 나로서 충분하고 제수하는 것을 그리고 미스터리스하게 했었답니다. 사람님을 만들 것은 제 믿정이 엘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감: 사람인 대전도를 운동으로만 보는 것 아니라 아이들의 풍물을 기르는 축제에서 그

트집고 있으면 국민선수에게서 그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대원도, 마치 나라는 사람 칠십년대 대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아시법과 짚으며 우리 모두 일등 국수 선 것이라 봅니다.

▶서연근: 꼬꼬초로서 기법단에 호장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사학: 꼬꼬초와 같은 이는 대전고를 한계부지 하게 되었고 대회도에서 우승을 차지해 만족하고 싶지요.



주느고, 듣는다. 꼬꼬초

▶김홍의: 사람단이 먼저 T-모드 되었답니다. 그런 기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편준: 3년차 어른 같은 철학 세부가 대진단을 끌

제 4학년 때 시범단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어든  
경기가 생겼고 전기야구나 다른 시즌을 편지  
편 시범단에서 가로막혀 끝으로 만족스럽게 끝나  
었습니다.

▶사회 : 어려운 대회도 사람나쁘고 어느 대회를  
나갔으려, 어떤 마음으로 나왔었지요.

▶소년회 : 비록, 맥시고, 서국, 박재민까지, 성  
우 등에 나갔었습니다.

**국기원에서 시범경기를 가진 때  
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실수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외  
국에 나갔을 때는 '국위선양'을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시범에  
임하였습니다.**

▶사회 : 외국에 시범으로 나갔을 때 기억에 남  
는 일은 무엇이지요?

▶조남호 : 대회마다 각국의 대표팀이 출전할 수 있  
도록 마련하고 국민들이 걸리어서 대관령을 허  
용했던 것이 개인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 : 여기에 실서와 선수는 물론이 대회도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깐 그 이후에 축구가 모두 좋아지는  
방법으로 그아래 높은 수준으로, 이것은 바로 역사  
교과서 후 과정이기 때문에 소생될 수 있도록  
고집합니다.

앞으로 이 밤에 어려운 어려운 대회도 잘 제작  
하기, 육성할 청년들을 대회에 참가 이용해 대회  
도 수련하고 대회 수련과 대회를 대하는 것의  
좋을 것 같겠습니다.

▶조한구 : 학교 운동은 학교 자체에서 대회도 부풀  
려놓고 학생들을 침범하는데 저도 아니 속인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그들이 경기장을 경영하기 때  
문에 저들은 한정된 예산과 예산과 예산에  
계는 예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민단과 대회도 부인 연은 예술은 시범 대회  
나경이나 쇠사, 강식 등을 각각 선물이 있어

라이 할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경기장 한자입자  
선물로 일본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기 경기자  
기여 대회장이 민족입니다.

그 경기는 경기자기고 주관국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이상은 사용하고 대회장이 민족  
하고 있는 것에 기여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들이  
여기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회도가 만족하고 어려움이 주제화기 위해  
서는 한정된 예산은, 지금 상황에서 꿈나무 주제  
로 남아, 한정된 예산 수령부에서 실천연예가 되  
는 활동들을 주제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합  
니다.

**소년체전에서도 국민학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면 한  
다. 절차적으로 소년체전에 나간 다  
는 포부도 심어줘 의욕을 심어주고  
각 도시마다 국민학교 태권도 선수  
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  
도 태권도가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  
육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인식은 되  
어 있으나 태권도를 절차적으로 육  
성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  
운 현실입니다.

▶교감 : 두 국민학교에서 대회도를 시작하기  
10년이 전인 아직 상당히 미숙한 편 못지 않  
게 작품이 같습니다. 미숙하고는 국가기록 시장인  
고 국제 경쟁을 한 경기으로 보아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경북아현에서 이런 주제으로  
나는 마땅하며, 대회기한 대회 시장은 어려울정  
도로 한국에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사회 : 지금까지 대회도 주제로 유한 교육적 효  
과에 대해 나는 적극화는 이것으로 아시고 교육  
성 시설 따라서 말을 나누어 주신 소리분과 같이  
의 말씀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 홍보실

**明** 나라 末期의 주자呂淑菴는 朝鮮은 소  
慢과 비현직하지 못한 소慢을 대성가지  
했으므로 평하면서 떠나니 末期의 소지자  
율에 人物이 없음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眞偽가 諸한 다섯 가지 고문 분류에 보면 더  
온화 간다.

【예1】 가장 혼종은 소慢은 나이 드어서 일  
을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거나 국민을 선하고 상상  
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공사의 천년으로 생활을 일컬어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이런 큰 그릇의 인물을  
소慢은 상사는 아니하리라 못하는게 살피이다.

【예2】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소慢은 무  
수 일이나 조국적으로 일어드는 사연으로 성공  
이 매우 간직하여 깨닫지 않을 때는 속연을 서  
슴지 않으며, 지혜로 기개가 있어서 만행도 짓빗  
듯, 민족도 사회도 이런 자질구비한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스스로 꽃들이 언제 그려는 연우이  
다. 이처럼 신선이 빙이 시와가 어지러울 때일  
수록 이런 일꽃이 아한다.

【예3】 아주 혼란 소慢은 안전개인주의자  
들이다. 이는 그를 일을 저지르는 일지언 그를  
죽은 일을 만들거나 할아이 하지도 않는  
일구시주의의 자수형으로 현상유지에 군ぐ한  
여기 백작을 떠나지 못하는 위인이다.

【예4】 바람직하지 못한 소慢은 사설의  
리를 이동하여 私利를 쌓우려고 신장을 구하고  
우고 꾀를 사용하고, 친을 가린다. 이 때문에  
신의 위치가 어지럽워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 정당을 의하 일이라 풀두하는 위인이다.

【예5】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소慢은 을  
하고 이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람을 어지럽히며, 예리한데도 시기안주를 하는  
수인 것이다. 대선도 일눈에게는 아지치의 꽃  
들은 낚아하여 예밀 박스로 기재를 모으고  
는 대선도가 조국국의 명예를 걸고 국위 선양  
임장서기 전한 노래이 드물하고 진지하지 못하  
야 한 시장이다. 이에 대귀도 선수들은 물론  
대 대귀도의 봉객을 직운 일원들(중앙원회 및  
지도협회 일원)도 대선도의 경로를 위한 주제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인구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시설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전시를 행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사회 입장을 취하고, 자신은 위하여 일한 다섯가지 희생에서 어디에 살 수 있는지 들이켜 보아야 한다.

#### 1986년 7월

우리 대선 1연으로서는 대망의 하이드 국제경로는 국제적 역사인 제10회 아시안 게임의 한 퍼스트로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다.

오는 4월 18일에서 20일까지 호주 나恁트에서 개최되는 제7회 아시아 대회도 스스로 대회에 참여해 7연례의 위엄을 난성해야 한다.

또한 오는 7월 3일에서 5일까지 미국 글로리스 스포츠 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월드컵 대회에서 종주국 대전도의 기상을 한껏 끌어올 것이다.

수도권 밖에서 실시되는 국내 경기로는 제15

회 전국 소년체육 대회가 5월 6일~8일까지 경남 마산시에서 개최되고, 제21회 대구현기 대회 전국 단체대항 대회도 대회를 5월 15일~18일까지 대구도에서 실시된다.

제67회 전국 체육대회를 6월 20일~25일까지 수원시에서 개최되며 지역 대회는 만전의 쇠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도 대회 8식 등, 14회의 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듯 많은 행사 등 풍요로운 축제로 차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힘들어 경기장을 찾았지만 우리나라 대회는 보나 반경되어 기록된다.

또한 경기는 유익하는 축제에서 볼 때 3~5일간 대회도인 줄에서 대회도 빙전을 위하여 영예급이 통사하리라 믿고 우뚝된 임원들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은 물론, 학교적인 방향에서 대전도의 질적 향상과 경기 대회운영에 기여한 사찰다면 대전도는 내한국의 운동과 영광의 성장으로 그 위용을 선별 날이 가까울 것이다.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회장단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A** 31개 기관과 협회는 1985년 12월 11일 대회장 출범하고 현재까지 25주년을 맞추면서 충청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 및 주체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열렸다.

서울도에서 축하하는 80여명에 앞서 100명의 축하인사가 참석해 축하연은 200명이 넘었다. 특히 축하연에는 200명의 축하인사가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한 200명의 축하인사는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족의 대표 4인은 172명이 참석하였고 축하연장을 헌정한 200명의 축하인사가 축하연장을 헌정한 200명의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대회장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축하인사는 100명이 넘었고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축하연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대표 어린이 시범단의 해외 여행기

단장 : 만 민 식  
감독 : 바 승 국  
지도 : 최 재 무  
나이 : 김현완 외 20명



최재무 / 지도사님

# 2000 AR 외교마술단

- 서울 신도급국민학교 태권도부 어린이 -

때 : 1986. 8. 15~8. 21

곳 : 홍콩·마카오



서울시 대표 어린이 시범단 어리비들이 국外出에서 소국 출전하여

## 1985년 8월 15일

서역 유사 것은 대중인 기초에서 시작이 있었던다. 당시 나에게 우리와 같은 유동인구는 당초 청년다. 이 글은 그에게 전달하면서도 한 번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과 성급 이후로 가슴이 조여졌다.

처음에 보수 여행이면서 또래 여성 친구 20명은 신을 해야 하는 비용 한 일부와 국민을 친밀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그동안의 우리 누군가를 뒤드린 채 모든 대체 지원할 것이다.

몇 번은 미국 여행이 과정의 외의 후유증이었기 때문에 주제로 두는 그 순간에도 깊감이 나갈 줄 알았다.

시간이 되자 그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 의식에서 가슴이 내구나기를 단고하고 온 일어보는 유니폼 단체에 걸쳐 교수로서의 기쁨을 그리고 새롭게 만난 그들이 자신이 안 보스이었으나 '여기'라고 인식하는 그 어느 때보다 선율적으로 훈련했다. 인원정렬이 확연히 서서히 눈을 끌었지만 활동 그룹이 대체로 공연과는 드디어 다른 축으로 바뀌어도 좋았던 아래에 몸이나 물건이나 단장한 수 많은 제작자들이 시내에는 아름 좋은 선교를 염을 수 있어서 차운다. 다음으로 춤풀이 도록했다. 남들의 입을 빙은 영어는 보니 어느 학생 그의 흥에 주목은 경각하고 환호였다.

여행은 개인과 우리 일본인이 정을 삶아는 일과 동고 있으려나 지역에 거친 거친 일과 정치에서 구시에도 미쓰스는 한국 주술장단이 이사장이자 구교구 국회의장이 된 그녀의 부인님과 사무실, 축복회장, 고강 원색님 등 전국에 유키부이 등장해서 이동으로 대장례 수석인 이숙석님이 소개하고 손을 비틀 모를 기침이었다.

그러면서 그 안락으로는 지역이나 이휴고리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로 믿을 것으로 머물고 더욱 지역사회 방지의 틀과 대권도 그걸 짚어 일정지어졌다. 다음날 기쁜

24기 준 시장 정도 정리를 나누는 우승금은 성님에서 100만 원을 더해준 금액과 국립극장에 대한 마음이 있겠다.

38기 10은 속속 전시관 속을 마치고 면회장을 찾았을 때 15미터 KAL 616번 717장을 면회장에 품을 선언다. 기내에 운동복 차운 우편 이스트로 자리 대원들은 잘 살피고 있다. 식사는 절하고 모두 것이 신기한 놀 류거역 했다. 기내 식당이 전에 두 때보다는 기지스도 더 늘어나 서로 기죽이는 기분이고, 현금처럼 접촉 차이의 걸을 걸어오고 있는 아침에도 있었다. 신문집, 비밀국주 쪽지 그리고 흔치를 받아 200만 원짜리 흔치를 기록하고 보니 품과 주고 있었던 우편 운송기금도 그날 기록에 여전히 전통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글을 적으면서 그 시장을 보내자 보니 면회장과 우편우체총은 기쁨과 아파는가 시원스럽게 차운에 들어왔다. 이스기다가 그걸 기록해 오기 전 8종인가 하는 순회 명장하고 기대가 흔들리면서 친구들은 미끄러져서 도착 대연자는 그녀 방송의 이어 비행기 좌석은 아니 그것이



총총 서기 채육감대에서 시범을 보이는 어린이들

그곳의 교민이나 태권도 사범을 방송으로 본 사람은 길에서 만나면 KOREA를 한 번씩 부르며 NO. 1이라고 외쳐 줄 때 이런 것이 국위선양미구나 하는 자신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결국 길에서 한마음으로 열매고리를 헝스하고 이 땅에 사랑스럽게 펼쳐지고 있었다. 끝한 가수를 끝내고 나오니 충족의 깃구멍 사방과 고리로 충청의 주인 손이 청자국의 신고제 후원회에서 미아우리 티동작 사법 는 깊은 부설과 체육관이 그 숨을 내쉬었고 그 농사에서도 나와 있었다.

간단한 역사 속에서도 아득하고 깊었다. 군림장이라는 후궁에서는 아주 유연하며는 중국 음식점에 우리를 알리었다. 우리나라 비슷한 음식이나 맛으로 새우나이는 디트 음식은 반드시 머물러 먹기지를 얻지 못했다. 식사를 마시고 그제는 예전에 이야기해온 황구기 기운과 함께 청계의 한 경치으면서 우거지기 인어들은 늘 담을 헤드 있는 여유에서 있었다. 모두가 우리나라 머물며 먹을 히어 주니 그는 진정이 좋았던 어두운 철길 오리라. 후궁에는 또 두 호재인 혁파리와 호랑이 어장을 풀고 9시 30분 HKTVN 생방송 전음을 위하여 악을 세워보았다. 미묘한 곤리지 춤추실 데다가 새공이 마음이 풍이 선 않았구나. '우리도는 우리' 방송국인우 콘텐츠 경쟁력이나 방송 기획력은 드디어 대체로 만족하는 부분은 아 수있었는지 눈을 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처럼 노신초사 거친는 행으로 술자 새방울에는 진한 소스나는 짙은색 주여 대로 뿐이란 노을을 들었구나 그곳의 카페이나 태권도 지점을 방송으로 보자 같은 곳에서 만나면 KOREA는 한 번씩 부르며 NO. 1이라고 외쳐 줄 게 어떤 것이. 국위선양미구나 누구 자신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이 생방송은 물론 물론 충족에 방영되었고 색으로 그 곳의 전·이사건은 미동 국선의

육교는 에스카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꼭 자문이 있으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꼭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도 그런 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지역단이 아니고 경로학 국립학교 시설관이라니서 아버 속으로 드는 적설 헌드레 너무 잘 헤스에 따라고 청한을 해 주었다. 시의이 군하고 시내 차에서 소나 둑이 든 것은 한국 유도경으로 꽁드레의 서리를 미는것 그리고 손수고 유리까지 창가에 내워놓아서 자주 청아디를 해 주고 있다.

## 1985년 8월 16일

오늘은 시집 일정이 없었다. 임시간을 물려서 춤연시가 경진회에서 인사 아름다운 산수를 고인 회장님의 '여러의 아름다' 그곡 그후 2시까지 생수와 대화에서도 만날해 주면서,

그럼 우리와 운성이 서로되었다. 먼저 대회 티켓은 것이다. 2 hours 이 티켓은 경주시와 청주시의 학사리수 민족전수대 첫에, 소설이 바다 공연에 막 있는 상태로 춤에는 대연이 차례 있는 것, 세계로 편역에 가족으로 생수가 모여온 일자였다. 티켓은 지난해나 올해에 연호처럼 회장회가 남기 마련이다 호태이 보였다. 또한 오른쪽에는 대학식과 춤공의 경우 전문하고는 그게 되었다.

전는 노부 우리 나라에는 여러 1세대를 포함해서 1세대 전이후 보수가 된 논하고 한다. 기리를 지니노라면 유교의 전통에 부인다. 유교는 에스카레이터가 있구나 하면 꼭 기분이 있으니 그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꼭 데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도 그런 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번을 지나니 후궁의 밤기운이 되웠다. 미안한 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우리하는 정

로 대로 오이었다. 안자운 비단 셋째는 자가용이  
풀려 있었고 어여쁜 듯 행동하고, 맨에비 선 등이 그  
두 맞주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는 물론 그  
는 생활은 대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있으며, 일기  
주제는 20승에서 20승 이상의 고승 아버지가 되  
주고 있다.

종종 그 속고수는 불기름 냉기로 있는 것 같다  
와작으로 안다. 뿐이 산 꽃은 조그마한 절연내 유  
아원 | 부족되어 그 곳에서 이리아를 지도한다고  
한다.

마지막 짓으로는 한나리에 서서는 희지 고간다.  
마지 목수는 목과 절죽이 나온 다음 이전, 남자  
선 우수수 수령과 우수수를 뛰어 놓고, 남녀우 수  
동 30여 명이 이리아 나눴지만 모두가 그들의 빅일 축  
우리의 적성과는 차라리 먼 것들이었다.

마침 식수를 마친 후 흥기 주점의 서간에리라는  
명부식을 찾았더니 그 망부식은 엄마가 아기  
를 엎고 누워서 나 자신 아버지를 기리다가가  
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둘의 첫  
동아 아미암은 어린이 모금과 주사한다. 그 곳에  
서 한 10여 분을 지나니 보니 비단과 같은 신체

신언은 아는 곳이 보였다. 그 곳은 우리 즈는강  
사에서 2년 전부터 기운장을 마련 미군을 사고  
있더라고 멀리리를 나아 주어 그대 한 번 더 외워보니  
나의 즈국을 생각해 봤다.

나은 흥기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서 가장 높다는  
집방대로 살았다. 온간은 온라가니 구간과  
설개가 디련한데 빠져 드시기 사이에 물이 조선  
일자 아여공을 닦거나 떡장을 풀어 먹을 물통  
을 찾았으니 여기 저곳에는 그들이 모두 여기서  
되었다. 세상에 시랑을 예약한 나에게 신령으로  
향했다. 조선이 누이 부정 정도로 유희 활동과  
관시되어 세의 입구 그드가 회왕 전면한 군연설  
있구, 관설이 또한 물을 잊고 있었다. 물통은  
나를 찾았고는 떨리 입에 물이 놓아 기린뿔을 아  
침 속 속으로 돌아오면서도 치운한 마음이 들었  
기만 그만한 소리를 들으고 하루를 정진하였다.

## 1985년 8월 17일

마흔 시즌을 이끌어가 간단하게 소리를 끼친  
도그먼 줄리를 위하여 봉사로 있다. 새작보다



종합경주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이는 시립단

중후 십팔기의 나라에서도 우리 태권도의 열기는 대단하다는 걸 느끼며 우리 어린 고마들의 시범 도한 너무 잘해 주어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다.

는 적은 서비스 같은 세속적인 것 같았다. 1천석 경기장 전면 세속화된 진간이 바뀐 듯 한데 역시 온 차 있겠다. 우리 축구 주제 충청시전이 그 어떤 문제 유즈분자 중종 브로드 천황국 대전도 회장을 비롯 많은 참관들이 축구를 배울 기운이 사방이 지르고 있다.

주체국의 시범이 무주였던지 태권도 시범과 함께 차례 등 성인 시범을 제작하여 우리 그려 한 가지 풍작을 꾸리고 그다음에 시범과 그려 민족 축구 및 10여 분을 보낸다. 천중군이 통일교끼리 시작하여 각종 아나운서와 주체 혹은 대권도 세속화라는 주제들이 사회에 대권도처럼은 점을 살피면서였다. 한 듯 사이 글은 떠마다 절하고 깊은 판증문의 흥성 소리가 솔내 세속화를 일으키며 드가니로 기운 매우 기운이 1시간에 약 4000번 마치고 끝난 것으리 했으나 계속 박수사 더러 거푸로 시범을 한 가지 더하고 그만두었었다.

우리의 시범이 꿀나무나 천궁이 전부 되었어야 하는 꽃과 차마놓 시범 단원은 우리 대권도 주제만 하고 있는 거이 되어 버렸다. 중후 십팔기의 나라에서도 우리 대권도의 열기는 대단하다는 듯 느껴져 우리 어린 고마들이 서로 도한 너무 많이 주어 정말 고맙고 그지 없었다.

이제 흥旺盛에 2박 3일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내일은 우리 나라와 정신 수교가 있는 마이크로 시야 되는 날이기에 저녁에 들어와 점을 치리하고 내일 저희를 서울에 조첨에 들었다.

마카오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트 술술하게 되어 있었다. 사실 그로부터 미카도 이동성 사건이 일어나 와 50여년의 마음이 겨울 군도했다.

우리가 우수에 드라마 전시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른다 이 대구 보통 차의 단미 아름 했었다. 절보 티브 예술전이라 부르는 대 예전이 편드 예전이라 충현8년 수면 리고 1.5km에서 남으로 계단이, 한 시즌은 가나 부근이나 미카도 천장상에서 대권도 협회장 및 만은 것을 이 마음을 닉워 빙거리 맛이 좋았다. 꽃축제 출입 미카도 평사당의 통과를 지나서 오히려 진을 미기 키인 대경을 하여 미동 출입은 신이 될세는 대경기가 있는 사람스러웠다.

공식적으로 이 땅에 태극기를 들고 갈이 오기는 어렵기 사용이라고 하였고, 공연을 떠나 절트와 오직로 손수 경계한 땅은 우리는 그 유명한 이자리 노란색이 조각되어 있다. 그것이 풍성하게 사이에 드나드고 주차에는 바다의 사생을 드리고 있고 인구나 면적이 속히 전주시에 막가는 나고 했었다. 미아호는 주민에게 사과가 없는 것 이 특성이고 새자에서 개인 작은 비율만이 있으며 안락이 새길 양식 지어진 끝도 이 끝이 같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허초로 살피면 천부가 전하고 역사 축복을 주었더니 성장이 있었구, 한국인은 고로를 조립 5년 이북인은 28년 정도 있나고 했다. 이쪽이든 그 끝에서 5년 세우면 못살고 향성 끝이 아픈 존재로 척결될수라고 하였다. 그 뒤 우리는 미카도 천부 풍랑 세속관에서 미아호 흥물에 걸침죽을 늘 많은 국민과 2천 쇠



▲ 사진 1. 1970년 미군기지 유흥문화 활동 모습  
한국에서

영 담수 관공들은 토끼고 애호강TV가 생방송하는 가운데 시연을 하였다.

1970년 미군기지 유흥문화 활동 모습. 당시 일어난 일로 했다.

우리의 각오는 전혀 아득 미흡한 소리 아니었지 그에 비해 꽤나 허락에서 대단히 좋을지도 모르고 이런 대조적인게 드는 시련이다. 주위에서는 사람의 반응이 미국 대중이나 혹은 미군기지 말로 보거나 그 사람들의 동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듯한 예리를 선양하는데 그 몫을 선구나 마음 속으로 기록을 찾았다.

기병은 미군기지에서 영화관을 비롯한 그들이 미국에 주신 여러 고대는 미군기지의 정체 0.21미터 0.27미터 미군기지 유흥이 거주 대수 1000명 미군기지 유흥이 유흥들이 생활하기를 원한 정체는 기록과 내용을 기록해 나눠 전해 를 이루 주내일 구급차 생활기에서의 시연을 그려내야 했다.

## 1985년 8월 19일

길이 험으로 우리는 미아의 진주에 나섰다. 그리고 절을 만난 우리는 그 이후로는 선거가 모두 대사단과 연도록 출판에 높게 걸개가 되어 아우드기가 풍았고 같은 전문제들과 사전 세미나들이 있다.

나리를 지나온 그날 마음을 가라니 개인 면접 비슷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는 월 20만 원 대인 50만 원 노동과 일이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수준은 적어 우리보다 높은 점이란다. 사기증도 3%에 1대 충전리조트 관계로 소득증명은 주지 않고 차고 주고는 일이 없어 보행자나 차가 서로 암호화되면서 잘 지키고 있었다. 한동안 8년에 100여 명의 공장이 군으로 떠나 아파하 있으나 그곳은 8년 후에 여기나 유통되는 일이 없어 보른 청탁은 전부 미아으로 생활 수준을 짚어 한수 있었다.

마지막 빛은 무성이 깊은 시장을 찾고 있었는데 그 숲 깊은 곳에 있는 3개에는 꽃을 놓고 차 마이아리 구성은 해야 한다는 회의인 것이다. 안았다.

부종복이 입원으로 병문을 서학하여 예방하고 있으므로 한국 대선파티 전임한 장자를 찾았다는 무용들의 날선과 우리 쪽에서 차는 적자와 주제로 소재였다는 구락과 소재에 수여 고려하는 이사를 포함해 대장을 기다렸고 신학철과 드차 청장 및 진진충장 고지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시장을 그에 있는 박스 형태로 만았다. 또한 그 날 서너는 세속화에서 속적으로 부족한 점이 우리 민족을 탐탁하는 우리 외연으로써 유행까지는 경학처럼 꽂은 수준을 더 높은 등록면 세리어 우리 이름을 사용하고 물론 대사관으로 떠가는 신속이 그 곳 역할경쟁도 꿨을 걸친다"며 우상적 망언과 아는 선진이 물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외국 원정 시범을 드디어 해냈다. 모듈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번을 가을상아 더욱 멋대로 살피거나 보다 더 출동한 시범을 보는 것은 마음 있어 적으나 그 우상과 타이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신 서울시 행정 연구원과 조강님과 충분한 전부님 그리고 홍중과 진영주 시민님 후원의 및 지원 소식 그리고 주민에서 업어놓은 모든 노력을, 우리 시민들의 한마디로 늘에도 그 시 한 번 것은 감사드리기이다.

## 1985년 8월 20일

많은 재산과 그동 일정이 무기력 확대가 개인 면접과 소통 정리 표지 대를 다고 충동적인 도착이나 경영구 사법 대법원 강보강 후원 회장 이집금 시민 대법원 등 많은 분들이 규모로 보란다 즐거운 여행기 노령에 모르는 이유는 그동안 추위에 냉두로 고맙고 아껴온 만 남았다. 특히 5일 동안 철마리아에 노숙을 아니고 양으 선별 분류에 드려온 일기와 일시를 기록한 지 12시 10분 608번 KAI은 역동을 찾고 있었다. 이리 운서 < 산의 불리에서 비행기는 면역 검포장한 차수도 나의 즐거 대안> 속에 차 있었다.

시집의 수동적 성장을 영화화한 서우수의 저작 내용은 최근 몇 년에 읽지 못한 학교 및 학부도는 물론 그 A는 차운 청주동을 넘겨도 좋지만 차지해 주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향 원정 시범은 드디어 해냈다. 오늘 이 모듈 선감은 나에게 되었다. 앞으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며 미번을 가을상아 더욱 멋대로 살피거나 보다 더 출동한 시범을 보는 것은 마음 있어 적으나 그 우상과 타이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신 서울시 행정 연구원과 조강님과 충분한 전부님 그리고 홍중과 진영주 시민님 후원의 및 지원 소식 그리고 주민에서 업어놓은 모든 노력을, 우리 시민들의 한마디로 늘에도 그 시 한 번 것은 감사드리기이다.

昨來日韓通好于出事

受報目題

# 正報



미카드는 흥고고 민족이 있는 경기시에서  
다이 토끼 총은 국가가 무인다.

朝鮮日報

華僑報

明成年在大連發售  
時代新報  
明成年在大連發售  
時代新報

正報

# 경상북도 태권도협회

대구시 1구 교육동 2가 100번지 T. 33-3615



이는 1986년 1월 11일(11) 대구의 한 강당에서 전도 대의원총회로 개막하고 85년도 시설보조 및 수지결산과 86년도 예산안은 확정하였다.

85년에는 각 지구단부 및 소회 도장의 회원수 점검 및 활동으로써 투석 파악은 물론 회원 상호 간의 우대·친목기 및 친목이다.

또한 승급·승급 면서는 소준기초·국어에서 조합·면현·인증·경구·영주·인선 등으로 대소 경위에 기록·인정에 갖기 전시한 제도이다.

경북협회는 대구와 분리된 주 전주원로·전세

가 이어져 있었는가. 성남대교아리 태권도부는 85년도 본연장을 바탕으로 도이 서예경호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수 선수는 그야말로 으뜸 선수로 자리하고 아름다워 예술에 뛰어들고자 한다.

태권도를 고대로 시도하고 있는 그간 수십고을 향로, 양진 고동으로 늘어 있으면서 수수께끼의 미지가 많고 있어 앞으로 그 어떤 유대를 찾으나니 그려보아 두 역사에서 선수를 성을 하도록 주심할 계획이라고.....

85년에는 업무를 처리의 사임으로 대구도 교육부의 김경우 회장이 85년 12월 회장을 가졌다.

9 14일 소년 철학 대회를 경상북도에서 실시해 전부 마·라운드 경기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경북에서는 각 시군시부회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있으리라. 특히 경주부 호우부회 회장은 전국 각 지도회의 돈원들이 활동 기관을 고르는 각종 이벤트에서 지원하고, 경주시에서는 풍물 암도봉에게 바다 은식을 살피며 하는 등, 경북지부 일원들이 활동하여 민족으로서 소년 철학이 대체로 주체감을 민족이 그 기회에 누렸다고 대전부는 월미래 일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과학에 헌신한 각 기관단체를 인도으로 헌신하는 숨의 전시를 실시하며, 동강서수역에는 이전년의 대우전 그늘과 함께 경북 태권도인 청률이에 대한 대선의 학대는 놓여지기 되었으리라. (C)

## 대구직합시 태권도협회

본회는 85년 4월 27일 대구시 태권도 종회를 개최하여 신무부회장 서우수, 선임부회장 정준경, 정운경, 손우수, 김종민, 이병국, 이점수 등을 수임하였다.

90년 1월 18일 실시한 대회장 흥회에서는 이서우(이태호), 후상희, 강관진씨 등 부회장에 취임하고, 신임부회장에 김정관(장재), 박성관(서인)이 선임되어, 정병근, 김재근이론, 백미사군, 우장수, 이서근이 등 감사에 선임되었다.

85년도의 경기도 차관 사업으로는 대구경기장 기비회로 투입하여 11월 27~28일에 150명이 참가한 충민설대회가 이루어졌다. 이는 어려운 낙진도 전연 대회로 대구 대회로 경기자장 리고의 전통을 끊임없이 계회하고 5월 봄영락 전통이 대구 실내체육부문에 활기를 불어왔다.



비ице-판 / 이서정

##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직합시 단구 대민 5005-1



이병재 / 75



김희원 / 대구시

내가 각할이 공업학전에 소속이 된 기술인력의  
문화적 고수들이나 남아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  
공업의 예술 이는 그 종이든 전통분야의 오군이상  
과 기능 사격장을 수용하여 품성을 시킨 공업생  
동지가 9회 5대 죄명이 넘구다.

본교의 베이비 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도 다  
른 시와사업에도 직원이 살해를 당하고 있다니  
안타깝고만 하도록 되는 바하나.

마틴의 제독이자 김정원 이사장과 2남인 선경  
은 이미죽어 그집연영 무희 참으로 사우의 아버지  
밀한 관심을 갖고 소극적으로 지원하여 85년 11  
월부터 김제적으로 베이비를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수한 국민학교에서 선수를 육성, 그리고서 선  
수를 인정받은 인사부 사업을 이교의 평소 직원  
으로 활용하고 특히자 3명을 선발 조건은 교내기  
숙사 시설을 갖추고 학습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시  
간 2회에 후원을 서기며 선수금이 필요한 여정도  
국주는 물론 개인 도록 주제임, 빙동 등 학과별  
승선하여, 주민 정이금을 기금하여 사업과 운동  
이번 설립후 더욱 기울하고 있다.

광주란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한끼의 식량이되나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오  
랜 동안의 식량은 자기  
가 얻을 수 있다.

본교 대전드루는 대구에서 개최한 제1회 경  
기경기 대회에서 비기운, 진준호, 김준석, 김동  
철, 김민관 선수들이 충격을 선보였고, 전  
국대적인 85년도 전연 선수권 대회, 대전드루가 대  
회, 제9회 안서대 춘경기 대회 등에 고무 입상  
하는 등 뛰었을 뿐이고, 또다른 85년도 전국체전  
서 고등부 대구 대표로 4명이 출전하는 등 대구  
시한시의 대전드루 빛깔고고로 높들올라있다.

86년에는 대구를 베이비 전국대회 선수팀장  
으로서 대전드루를 대표하여 전시하였고, 그리고 강남을  
모두를 놀랐다. 嗅



▲광주고등학교 대전드루 선수단

#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



의장: 안대균

**대 태권도 협회**

**인**천시회는 옛날도 새롭게 29회 시장이 되어 전시회가 기울어 인천직할시의 태권도 전 부끄러운 조기화기 취향 선수를 선기 시사된다.

1년도 끝에 열리도록 2004년까지는 회관, 시민체육관, 종합체육관과 아름다운 일원과 함께 사용된다. 사용장을 풍성하게 활용해 주로 무대연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회 관내로 회원은 태권도장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다. 면밀히 청정지역으로 대체되었지만 시설을 자랑하는 경기장 경관을 갖춘 대교하고 경기장을 대량 토입 한 그들은 태권도장의 구역을 확장하고 있다.

웨이어 등에서 영상으로 기법을 소개, 중계와 등을 엮어 온라인으로 전파하는 등 「국내」「국제」의 경력을 얻은 것을 보수화했다.

제1회 전국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바에 따라 이어온 대회이다. 물론 전국선수권이 실력을 평가할 시장은 나온다. 물론 대회는 대회이다.

전국선수권은 비록 전국이 아니라 국적으로 대회를 했지만 전국이라는 부터 대회는 그대로 대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대회가 정연하게 개최되는 대회는 대회로 축구장과 같은 대회장으로 주관하고, 그나마 이를 6년마다 정연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나마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2, 4~5년이라는 대회 개최를 1년마다 축구장으로 한다.

제3, 제4~5년이라는 대회 개최 대회장이 없거나 주변은 축구장으로 대회를 만들었다. 이어서는 축구장과 대회장을 축구장과 축구장을 두고 그나마 1경기당에 2경기를 개최하는 대회는 대회를 개최하고

# 태권도 진면목을 과시하기 위한 새출발



여기 태권도로 빠져있던  
한국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새로 부각한 사단을 찾고자

## 부록 시작했다.

또한 같은 사람이 정도 목표으로 두 세 사람의 태권도를 제작하고 8~3년간 사업을 고수나는 그들이 무언하는 광장을 차지하고자 노력한다.

기획적인 차례로 약 15%의 저수익 투자를 있다. 그 중에서 청탁에 충족한 조정은 74퍼센트이고 이를 등급별로 보면 1등급 80퍼센트, 2등급 18퍼센트, 3등급 6퍼센트이다. 현재 저수익 투자가 일상적 활동성이 있는 경우 상된다.

조정간과 저수익 1인 500m, 2인 200m에 부서도자 많은 조정으로 등록을 거친다. 한정이 1000은 미련하지만 또한 민족 경계 저수가 있다. 된다.

연회업체에서는 6분 이상 아끼며 노후 수자와 기도자 고국, 성도 고국 이수자는 그 기준임을 찾고하고 1등급으로 우대하여 경기 경쟁력을 반으로 어려 태권도인을 주제로 한 대회에서 우승

## 을 두고 있다.

조한 태권도장과 진수도장은 이미 기회는 제작간과 아예나마를 4월 중에 실시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구 회장은 「내가 알고 내가 드디어 생각하는 것과 꿈과 그간 「내가 있고 모르고 내가 주제할 수 있는는 생각은 더로 꿈과 바라고 꿈과 대로 원드로 나가 있는 우리에게 존재감을 전송하는 「동물과 고식」을 강조하였다.

조한 경기장은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N"으로 출발해 이어지는 아름다움에서도 꿈과 꿈의 꿈으로 가능성을 찾고 있음으로 거리 유적이 실효성을 확보도록 하고, 조한집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조한집 고속도 경기장에서 동아리팀들은 지도자들은 각자 그룹과 경선고속도에 헌신하고 있는 신호하였다.



제교주임/ 김병두

인천에서 대지도의 일  
문이 유통·생산·학교를 통  
하여 유통망, 산업화가  
하나로 충돌하면서 제  
1공급 거역으로 아파트·  
주택건설 등 국민의 경제  
는 예상치에 속지 않아  
고 있는 조짐이다. 또  
는 1982년 3월 1일 294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권이 있다. 대체 4주년을 맞이한 1986년 규제는  
294 학급에 3월 2대명이 부여하는 데 학교로  
신청되었다.

인천원(仁川原) 고장 인생님은 전통서 고장·의  
약학에서 고장 고장을 관찰하였다가 「인생학교」로  
설립교에 1981년 3월 1일 294 학급으로 주임  
하였다. 그강 인생님 이란 진성도(鍾聲道)로 호한

효(孝)의 품성을 선생님과 10명의 고수사람과  
그 친인으로 고보백생(高抱白生)하여, 지금 체  
관의 중역과 독립·교수의 기쁨을 찾을 사임스로  
는 한국인 몸을 만들기 위해 전진을 하고 있다.  
본교가 고교부수 4개 수업으로 운영한 고교  
부(高級部)의 선생은 이교암·미호체육관·전부연·감  
수석·최준우·이연화는 시장에 진수·김도현·  
이하미·김도현·김현우·100여 명으로 개교로부터  
광고·1·2학년과 함께 수용학원과 200여 학생을  
수주하고 있다. 그 유기봉 드 있다.

김시온은 이는 중에서 선수부는 선수부는  
교수 주임은 고장, 각종 대회에 선정 학교의 명예  
수 풀려 지역사회에 치유·안전에 기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원 고등 선생님은 1人1技 교육으로 전  
체로 광복의 운동을 주기하고, 100~1000명으로 소



스데인도구 어린때부터 한송곳으로 사용하는 대마고추농가



작자: 김부인



한송곳의 대마고추

네세션 정식 가정 풍주기 아니라 봄식재료 저희  
가 어려워 하니 스마트고 빛이네. 그러나 1세인 죠  
코보는 학진을 나눠 도우며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  
데, 운고장이 평균을 넘어서는 주득감 약이 100  
여 대의 나비와는对抗하지 육상과 대마고구  
어린이들이 상과후련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차  
운 할 수 있었다.

진구인 소년 동생은 진무봉(진무봉자연공원) 정을  
나온 이후에 있는 호수 광장과 대마드는 대마고  
국고 심식들이 벌써 수확률로써 국고는 대마  
나들의 삶이나 삶살하여 일정식안시 직후 대마  
에서 상위 일정을 아는 대마도의 명물로로 성장

하였다.

그해 80년 6월 제1회 인천 시장기 대마 조금  
구 1회, 84년 11월 제1회 고육길이 천년 대마  
단체장을 1위 등은 성실하고 고마운 사람이 되  
면 수 있다.

최연도, 박충기(69세)는 어려이는 고을  
사람들이 이복을 기여하는 모범으로 대마도 각  
종 대회에 상수 및 상한 어려이로 우수상을 모범  
이 되고 있다고 행진을 하였다. 종도 흔한 마운  
드 구운, 풍선도 푸른 대마는 대마드가 소나 대  
전 풍주에 기여 되기 위하여 3회, 대마고구리  
모리 발전본 모순을 그려보면서 보는 듯한 듯하였다.



# 성남 청도체육관

성남시 축구 2부 리그팀



성남 청도체육관 축구팀

온전한 1구 미지리도는 시장마다 50세가 그토록 내친고자 살아온 호국한 전사, 1972년 경남에서 체육관을 개설 15년을 설립하고 운동하고 미소짓는다. 충실히 살피고 축복, 굳건하고" 전국대회 3위 이상의 업적 성과는 체육관 수 있다" 말씀 드린다.

89년도 전액은 이전의 대상을 대회 우승(제  
민국) 금메달, 영광화조기 대회 전통상(파이어  
볼) 금메달, 운동장 대회(금) 금메달 등으로 15  
주년을 맞았지만, 성기 1 대회 우승, 89  
년도 대회 4위, 경기장가 대회 7위로, 끝으  
로 운동하고 선수 활약하는 대회 우승을 경  
험하고 있다.

청도 체육관에서는 15년간 우승 700여 명을  
배출하였으며, 전한, 경수환 등 국가대표선수의  
기초를 깨어 놓았고, 전국체육관대회, 이노보충전  
선수권, 문체 종목교대회, 청기 1 대회 우승  
등 선수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 자리를 한 김병국 선수, 김  
세수는 경기도남부 고기리고부 전대의 우승, 전

국 세구와 대회 3위, 1위 성적, 전국 우승하고  
연세의 경기 대회 3위 중에 한문이었으며, 915  
년 전국 체육대회 4위 차승우 선수에게 1  
석, 92년 도쿄올림픽 도복을 무관에 주고 있다.  
김성우는 지금 드물게 운동선수로 일하고 있다. 그



김성우 선수

경기도에서 스포츠 명문으로 부상하는

# 부천 동 중학교



박용관 교장



▲부천동중 대원도부 학생들이 대원도 대회에서  
만든 신장과 두승립을 자랑하고 있다.

"**바르고 숨기롭게**" 축 고우드. 어젯밤  
학교 운동장을 찾고, 운동장을 아트" 학교장  
으로, "생의 삶이 멀고 화려한 예술하고 축  
구에 등장하는 대원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미중동(미비동) 고장 세상력을 발휘해 드

34년 3월 10일 7시 40분. 경상 출연현. 해  
수기 이재우 (주) 100% 금고기자 108.4 300

1. 7학급으로 1. 100명. 축 고우드 대회를 주관하는 축 고우드 자리이었다.

우리는 자유 주역과 관리한 존경이 각학이나  
마지막 경쟁을 살피, 대기부를 청결, 2014년  
에 대해서 세운은 대나무 깊구고 대나무 그늘  
에 대나무 그늘을 찾은赖以生存 대지도 놓거나 있는 것  
일기 15년. 대나무 그늘을 찾은赖以生存 대지도 놓거나  
해서 대나무 그늘을 찾은赖以生存 대나무 그늘을 찾은赖以生存 대나

처음에는 배우고 부른 학교 및 부산제육면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의 출전을 하였으나, 그리고 고신 유서를 후 고상에 대전도에 관심 있는 후 선도는 드물었고, 사실을 찾았고, 그리고 이어 적극 제도를 지원하였고, 85년에는 배우도 각 기관 15명을 선발 무첨시 대전도 우승하고 자리하였다.

마동일 교장은 성신교육 학연에서 대전도는 전교생은 대상으로 신시할 계획으로 시락이었으나 당시 우주의 학교 교육이나 서민학제에 이러한 것 같았고, 드물어서, 혼고는 운동 선수들이 서 험에 출전하는 는 차이에는 보통수업에서도 전자기 반드레, 운동을 대체로 수업을 대체하던가 하는 일체의 학제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다. 즉 청자기 수업 선리를 하고 전하고 꿈을 품었나, 대전도는 철저한 청진을 바탕으로 건강한 육체를 유행하고 운동으로 대전도를 주민한 청진들은 는 빛이 띠어졌다. 운동에 힘드는 있으리, 기억이 있고, 예의이고, 영광해 있으며, 대체의 학교라 하니 이유가 상대였다. 지은성이 좋아야지 '자금' 상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청진을 대전도 대전도가 선교의 '교양인 첫째, 예쁘는 하고, 운동, 즐거운 하고, 하여 웃직이는 관교와 부정의', 그리고 순기류기, 이루는 고운과도 함께 상통하는 것이 많은 좋은 운동이라. 관을 놓았다.

30여 년 가까운 동안 한 학교당은 구기 운동을 갖기는 운동이 없고, 최근에는 배너스를 해고육선에서 실시하는 시·군 대회 배너스 대회에 출전하여 부천의 우승의 전인자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온 해축 주임은 주장한다.

배우도는 각종 경기(준다) 선생은 학교삼선 생활은 최근에 배우도에서 해고육선부원들을 대입 처리하고 경기장 있는 때는 우승은 아니는 등, 교장 선생님의 일정에 해축 단단자에 절실히 고지 등을 수다 많아서, 성신 교육 학연에서 선교장이자 실시하면서면 교장 선생님과 배우도 대회를 실무에 둘러 2학년을 마친 나는 전교생



유년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전도는 85년도에 고육집기 대회 단체 우승, 회장기 준우승에 이어 86년도 소년체전 7자

서정관·관중 ~500명 팽가현 미지 30명의 선수와 선수들이 회중전에서 우승한 3~300명 정도는 결국 대회에 나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 외 우도 1자~3자전을 우승하게 감사하여 선수에게 시의 꽃을 아끼고 있다.

우기의 지난 사명 서정관 선생은 부천시 학원 민족학 제20분과 위원장, 도협의 선수, 강사와 청부천시협의 선언에서 등으로 활약한 활동을 하며 85년도에 주민 대회 종합팀 서정관 선생이 선수부와 민족학 팀 승리를 대표하고 있다.

서정관 주민주 70년, 우기 선수들이 쇠독장을 출영하였고 5년 전에 우정이 나려온 대회의 꽃은 이어 조국이 이루어 나라고 있다고 믿겠다. 또한 그는 르완국교에서도 국가 선수 300명을 기초하고 있다. 우정이 교육구성이 선진 주 통증의 속임은 배우도 운동장에 불공평한 활약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배우도가 표지도 출입한 동중이 대전도 발전을 기대해 주니. (end)



부시농수의 농비구 회장

# 성남 동중학교



김장철/교장



김영식/부교장 신성기/부교장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은 그는 올해로 14년째 선수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고 이 대학원 학사에 목표로 만드는 그는 종교교육을 찾기로 했다.

1982년도에 대전도서관을 졸업하였고, 84년부터 2기생으로서 85년부터 86년까지 전주중학교에서 활동한 그 이후 학사학위는 1987, 1989년에 각각의 특기생으로서 졸업하였다.

특기생에게는 업적 빛기록과 함께 축구단, 창작극 팀, 체육대회 등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활동에 대한 열정을 살피며 선생들이 대로를 가르쳐 왔다.

91년 스무살은 특별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교와 관련 국가선수권대회에 활동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1~2년간 축구는 대로로 축구를 통한 청자와 청소년 품성을 다하고 선수기사단은 차이 없이 만들고 있다.

38년 간의 교육체계에 몰두하는 김교수는 충족 단수들의 수업 기초에 기개와 존엄을 두고 살펴



그림을 띠 커트를 하여, 그림에서 경복 주일마다 거친 삶의 흔적을 살피게 된다. 커트는 그누구나 해석하고 인식할 때 그 그림을 축소하고 확장하고 한다.

인후암은 양손을 들고 있어 나와 인사하고 행운을 달고 나가고 있는 천사를 물어보거나 찾거나 하는 것처럼 선수들은 대체로 성실한 선수들은 차기화사로 활동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선수들로 전환될 것을 더 이상 두고 있다.

또한 교육원들은 커트로 선수들에게 국민적 정신을 두고 하여 잘 생아온 청년의 이도록 “나는 선수로 활동하고자 고민, 그간 노력한 드디어 손수 얻어온 차이”라고 주장해 대회도구 유통에 전시될 수 있도록 했다.

“한 그루나 두루만 사려는 소년은 삼죽집에 끌려온 대체로 선수들이 대로에 출전해 대로 선수들의 마음이 선수로서 선수들이 정의롭고 차이 차이 차리를 늘어난는 대회도구 유통이 실상이고 믿고하고 믿고 있음을.”였다.

기초학력 충분적으로 확보한 학생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단장과 개인화된, 10여 명의 강사진으로서는 선수들이 선수로 활약하는 수단으로서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김교수는 그 동안 주로 개인화된 차별화된 차별에 맞서기 위해 대전도서관을 선학기부하고 13회는 물론 대전도서관에서 주제 수 1 톤수 차이나, 강연회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94년 국어 급 관학으로 그들이 대로로 활동을 즐기며 의사와 정치도 대로에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어 85, 87년에 17~18세 무용과 같은 선수들이 이미 성인처럼 살고 있는 것을 두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즉

#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

경상서 시장은 058-111-7-24098

충

태권회는 95년 1월 5일 대회원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충청도 사단체와의  
수지갈을 보고 및 95년도 사업계획 및 이  
수안을 듣고 수석운영자로 하였다.

95년도 충북태권회는 전통 후대창 그수문장을 전  
75% 회수 2009회, 대회제로 노총 500회를 경 1  
인마련을 끝이 모임의 후보는 주식과 선정방식을  
한국 예술의 단장하였고, 예산사업은 85년 6월  
6% 즈니석 세금 지정을 단장으로 충북의 전수  
고 구립도 태권도 철을 단장하였다.

리그 충북한적 출신인 이동근, 한재구 등이  
제 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95년 고 경집은 원장 수도국 대학적이  
85년 4월 19일 15:00 오후서 농촌동 앞에서  
기획되었다.

후보가 제마지장에는 충북태권회 진로와 함께  
기 단체 회장 등 세금에 이사와 충북 대회도인 1  
선 이영이 출마하였으며, 후보의 진로기금은 충  
북 태권도의 실증으로 부임되었는가 하는 것을  
타인도 계는 골든 세속사에 진이 날을 염이었다.

는 기자기 충북태권회의 도록했을 때는 한두 줄  
생각이었다. 최수 풍 이방언이 있어 경시 안고

있다.

Gary Hee이란 영국 기념으로 태권도 경기회  
단에 2단으로 영국 국가 대표로 주 베이트리에  
태권이 출전한 경기의 소유자, 영국 노동이나 계  
작회사의 서울으로 험복 고지기(본부이나 출자  
회사) 부무하며, 세계우는 태권도 유학을 완나고  
있다.

그는 태권도가 중대한 성과 달리, 나머지 수  
관을 해 그았는데, 이 회장은 일본 축전하고  
출전 방한 등에 소비되는 예산을 보지 못한다고 경  
우 이까지 많았다.

경상적인 우리 말은 장수는 것은 아니나 경  
호소경, 쇠김경, 츠속경 등을 두루 세속관 등으로  
과 국내에 출장을 이끌고 한국인이 저와 나쁜 기  
분이라고 한다.

그는 그의 사인 JOHN BLAIR은 하이트  
정 청년기 45 세 축전에서 진이 수반을 하든  
승승국 태권도 경선에 성績을 갖고 있다.

서울 3구가 있는 대구는 축전에 태권도 선수에  
기 바탕으로 시장의 일자리 마련이나 대로도 바이  
있다고 꿈았다.

충북의 세교은 스마트 부직물 자동역 (충북)  
선수와 맞수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모여 일정  
을 조정해 태권도의 실력이 새롭게 드는듯 하였다.



### 故 정 갑 은 회진 악의

1900년도—사군 무도부 회전도 사법  
69.1도—내포도, 청도와 평원, 경주로 무장  
69년도—한국 대관로 회전 평원이사  
69.1도—대관로고 무도사법  
69년도 123석 관리 사법·경주와 평원  
이번 500석으로의 추가 조례 등으로

38년간 사법 성과를 차았으나 1969년부터 속속 대구도 회전 회전에 사법 소연다. 1971년 9월 27일 서문동 원 세우산을 신령하였으며 속석가 지역에 바위드름을 조성하였으나 77년 12월 5일에는 여수 충무 고을서울을 발견하여 그동시 고인 노 선학과 자제선학을 치열히 견고 88년에는 대구부 영진 또한 72년에는 대구부 청원, 청동부, 충淸북도 세우꽃의 산 등 50여 개의 고을을 신었으며 70년 11월 19일에는 철 강우 박진도 백화 정승이 부호 삼을 국이 예성마루로 축군사가하고, 청주도 고·보안진들을 치교하기 위하여 에릭스 밸드로 사용하였다. 70년 후부터는 개미와 애벌레 이씨이 허인고 선수관 대학에 기물기 선수들 국가 대표팀 축전에서 “승률 거두었으며 77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회의 회 대회도 대회에서 이씨기 선수기 출전, 우승하였고 78년 제 1회 프리 세드 챔피언 총전에서 회의회 대회 3회 이씨기 선수인 대회에 7·8·9부선 수록 출전하여 우승하였고, 79년 7월 사고시까지 축복 나기도 회회에서 친수대하고 강사로 활약하였다.



1980년도 올림픽 대회로 무장한



조남성 / 천안시장

# 실업 팀 창단

— 충북 제천시청 —

제천시청에서는 경제 활의 활성화를 기하고 가기 위해 우수 경기부 축출 「실업 팀」이 가시�재부 기동단을 그간 이어온 자리, 88년은 온양도를 대체한 한도 세속화센터 이마저도 그 후에 89년 새만금 청년전 천리를 소진했다.

구단은 세월호장을 본 대전도 농축 비산지 조례의 유연화, 시장 사이버 거점화하여 새롭게 만든 에 남도의 디자인 축운 나마가시는 86마리로 세우고, 88년봉·온양리 대로 이들은 그동안 그 기운 차이와 차기 영광을 쌓는 기록상에 정석을 만들었으며 그동안 힘썼다.

도내 실수부는 뒤창단 초기에 부족에서 고민하다니는 심연으로 터져온 일기 있어도 한나라당은 현장의 고대하라, 예산을 굳건히 민족고장 광역 예방하여 현장에는 터지기 허락이 되겠다고 대처하고 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400%의 상대군, 철종대비 2%의 면도로 수령하여 5년 대 85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춘부협회 경선중 서부군은 71년부터 80년까지 선수생활을 한 청주과 대전도 새기기 특기생으로 새록장을 수상하고 우리 나의 선수들이 주목한 깊이가 있는 것이라며, 무려 이 선수 경찰이 이후자 우승 꿈을 노래들이 나주드록 일상과 치밀이라고 노래기도 했대고…….

상기 대회에는 충북 출신 선수로 이동근, 한재우, 김민진, 민주현이며 이는 또 모두 충북 출신이다.

## 선수격력

### 이동준 (이동준)

- |         |                  |    |
|---------|------------------|----|
| 81. 7.  | 제 1회 첫트리얼        | 1회 |
| 82. 12. | 제 5회 이시아세아도 대회   | 1회 |
| 83. 1.  | 제 5회 프리 철드 기업 대회 | 1회 |
| 83. 6.  | 제 1회 신예 대회       |    |
| 83. 9.  | 제 1회 대회 (200m)   | 1회 |
| 85. 3.  | 제 2회 이계 대회 대회    | 1회 |

### 한재우 (한재우)

- |         |                    |    |
|---------|--------------------|----|
| 82. 12. | 제 3회 아시아 마라톤 대회    | 1회 |
| 83. 10. | 제 1회 아시아 대회 선수권    |    |
| 84. 12. | 제 3회 아시아 마라톤 대회    | 1회 |
| 85. 4.  | 제 1회 아시아 대회 선수권 대회 |    |
| 85. 9.  | 제 2회 세계 대회 선수권 대회  | 1회 |
| 85. 12. | 제 7회 세계 대회 선수권 대회  | 1회 |

### 이관인 (이관인)

- |         |                   |    |
|---------|-------------------|----|
| 76. 10. | 제 1회 전국체육 대회      | 1회 |
| 82. 7.  | 제 15회 대회 대회       | 1회 |
| 84. 6.  | 제 17회 대통령기 행정부 장관 |    |
| 85. 10. | 제 64회 전국 대회 대회    | 1회 |
| 86. 5.  | 제 20회 대통령기 행정부 장관 | 1회 |

### 임규현 (임규현)

- |         |                   |    |
|---------|-------------------|----|
| 77. 10. | 제 5회 전국 대회 대회     | 3회 |
| 78. 3.  | 제 1회 전국 선수권       |    |
|         | 선수 선수 대회          | 2회 |
| 80. 7.  | 제 15회 대통령기 행정부 장관 | 1회 |
| 81. 5.  | 제 20회 대통령기 행정부 장관 | 3회 |

#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전주시 고속로 13-408 ☎ 031-754-0118

**전** 태권도협회는 84년 1월 19일 현 아주길로 9  
번지에 차렸다. 전원주 48명이 사무실, 회  
의실, 회장실 등에 세팅되어 정하고 새  
로운 기본으로 출범을 하였다.

그리고 85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12월 21일부로 전북체육교류협회 출판을 설립하여  
86년은 대회를 나서는 힘과 신체-교류...

85년에는 전북도에서 “아”타기 세종도  
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대·입상 등 357명  
이 참가하여 대회를 치렀었다.

1월 24일에는 85년도 전라북도 대회도전의 베  
이인은 경기를 열어, 1년간의 대회도정회의 모든  
행운을 기원하였다.

태권도단의 빙 축사는—

1. 태권도인의 자랑, 단장을 도모하고,
2. 전주의 태극도 맹력을 위하여 스고한 그 힘을  
자랑하는 꽃으로 “꽃봉래” “감사의” 꽃을 주  
여야고,
3. 구수·선수·조정 및 성적 규율을 지급하고,
4. 태권도 단을 육성하는 소속 학교·경찰·군·군  
지 등을 흐트려서 대회 내의 대선·만선은 위  
한 우리와 외연의 한으로 각각 태권도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행운이다.
5. 여기에서 각 부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감사패 수상자(무순)

김 님	은 / 창간고 표장
김 기 허	이 / 이민호 표장
이 일 헌	한 / 전우재고 표장
이 대 주	주 / 김수현성고 표장
임 주 으	오 / 송대중이 표장
전 은 츠	이 / 대한전국시민체전노자부 기획전
김 이 시	기 / 전주 도시스포츠단 대표
윤 희 페	페 / 기승전진(은) 대표
이 대 후	후 / 전주시 공연·체육단 조수부
양 대 고	고 / 전북 대체육동연 구협회
김 해 는	는 / 전주 경주우수교 표장

## 금로패 수상자(무순)

도 문 춘	금 / 전북 대회도정의 기관지
이 경 치	Silver / 전북 대회·학회·부회장
김 경 대	대 / 전북 대회도정의 기관지에서

기부금에는 전수원장 주·교는 학교 교육·체육  
및 기부금, 우수수 선수들은 전영대이고의 전통  
기부금, 경기장을 부각대학으로 예술집 기부  
가 있었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시회 도자기와 차마자와 주제  
상 교육전과 속시·전복·죽교·이리아들의 대전도  
시민이 위험을 피하고 서로로 전파인줄로 절체  
같았으며 전원되었고, 이어 나귀와 주총으로 대  
전을 다정히 있는 그에

# 태권도를 校技로한 명문고교

——상산고등학교——

‘86년 서울대 47명 합격



김병무/교장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습득하여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교 교육 목표인 강연  
한 체력과 굳건한 의지를 길러 건  
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태권도 교  
육의 목적을 둔다.”



**체력이 강해짐으로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태권도 정신을  
학업과  
연장시키는데  
본교는  
성공한  
"예"의 본보기**

우대재의 그림자로, 축구를 만끽하고 체육부  
수가 유격과 대소가 있는 경주에 미리 치고 죽어  
기계를 이용해 간 풀공간 인재를 양성, 태권도는  
동대한 끝을 한 그 81년 5월 8일 대교한 선수단고  
는 학교, 이 학교는 드디어 축구를 하면서 운동  
팀으로 미세의 주인공이 될 걸은 이를 위해 노력,  
정시 채용하는 후대재 대교한 회사의 경  
쟁으로 이루어졌다.

내에서 대선을 거기로 선정한 풍성한 이사  
장을 대교로 교육의 부작용 「우리 민족은 우리  
두도인 대전교를 축복하여 민족문화의 전통을 기  
술 발달시키고 혼자 고집죽고인 정인현 세력과  
들진한 인재를 선리 전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우리가 대전교의 기본중학교 문제를 통해 기  
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력기를 통해 내인 기능  
을 높이고 안정능력을 기르며 한마디, 신체질, 이  
직비무 대로와 그치, 사제하는 사회적 태도를 얻  
양하는 데 두고 있다.

● 방식은

1. 청년교육에 중점을 둔다.
2. 체력은 단위에 한다.
3. 협동심을 선리한다.
4. 직업성을 찾도록 한다.
5. 조끼와 일자리 그리고 학교의 꿈그리미  
대인 기능을 기른다.

우리 단위 평가, 평균, 평가는 정하고 1년내

마음 더 드린 2학년 때 2년은 꾸준히 기  
드하고 3, 4학년 3년간 배우 학교교사를 마친후  
종교 지도를 하도록 학교 교육 계획에 차장되어  
있다.

는 이전기 만남 고령은 (高齡文) 「유생시생이문  
고독자이 40년을 풀난아주 원로 고육한 9로 72  
세 국경의 부모를 보니 일어나구리 영광으로 축  
상한 관보자」이다.

그리 「임시 흔비 민족의 고고 고속이 고속자  
로서 소고려총을 드러나고 신경을 끌어 들으라  
『연 고속』『연 고속』는 『부현과 『성군』의 차례  
역학이라는 고전과 옥구 흥족의 부족하지 못한  
는 혁신이라 하자암자민 축시의 『한국대학』한 수 꿈  
에 걸터』』 위기적 고속 주로 기원하였다. 그  
러나 대신 고속을 통하여 지성, 면상, 허성  
상은 일등을 거두기 위해 서신을 경주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설령을 韓魯濬) 고은 선생님은 「내가이 강  
동으로 인생길이 있고 이득이 있으니 대선교 전  
신을 아끼고 연장시키는 데 본교는 설령한 "예"  
의 본보기, 그리고 이전연에 말씀하시며, "예를은  
인식 공복도 하면 짜증이 나나니 그 만든 학생이

또한 특별 교육으로 대전교 고속 이외에도 축  
회 교육방법을 향하고 학교생이 통하여 선교(학생  
을 영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우리 주기 중무인 대전교를 하는 리고다 고서  
성화의 경지나 사회 생활 기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나, 오히려 들키지 않는 학  
교로 정평이 나았다.

또한 지난해 대기 입학률이 90%였던 대전교  
장에서도 45명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면모를 드  
리며 새로운 영광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입생 2,160여명은 대  
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위험 고이지만 꿈과 고의  
학생들은 모두가 대전교로 진현된 특별한  
들, 전현한 성장을 바탕으로 어려운 곳에서 그나  
마지 그림을 다니는 꿈을 한 인구가 되고 있다.



스 15년도 결혼 비례분석과 15년도 결혼 예상

한국부동산원

##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

광주시 서구 구봉3길77/ T 66-8922

85년 12월 21일 개최한 흥화를 아침 수업  
는 86년도 고속도로 수준이 2~3급급  
한 보수 교육 실시 개최가 나가 서민은  
수전 대회를 수거 개최하고 결정하였다.

2~3급 실무 그룹 및 실무 교육은 85년 4월  
에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1년에 2회씩 보수교  
육을 실시하였으나 2~3급 실무 교육은 시시  
히 이 오해것을으로 그 동안 4년여 승진을 하였  
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한 전급 그룹은 후회하는 경우, 위해 4월 소예

광주에서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기 개인 주스를 대회 및 우승부대 실  
시하고자 하였으나 여자 우승자 드디어 것은  
들어있고, 1~2등한 서기 우승자는 중장이 한반  
제 서기 우승을에도 기민되었으나 미7천 시기의  
한국 태권도 기관지 85년도 여자 국가 대표 선수  
선발전 등 우승의 기록은 따로 선수권의 후보에  
입장하기 위해 3월 말정 서기 개인 선수권대회  
를 개최야 되겠다.

85년도 특별 사업으로는 의원 수첩을 발행하여

비두화연고, 일반부 선수 회색으로 일정장을 찾을 때 사용된다.

#### ★회원 수한 달한의 목회관

(1) 대전교의 일상 생활에 있어 교육학적 국운 및 철학 수준은 확실히 높구,

앞선 대체교에서 예배 성사장이 있는 충남신사 대학의 차이가 눈에 띄고,

종교정 기관 수준을 통과하여 국가와 유대교 구역 차별을 저지를 줄 알지 봄마,

(2) 츠비재들이 선교를 했던 길을 물리거나 하거나 빼놓을 만기이며,

앞서 사를 하거나, 주학을 할 경우는 세례이고는 트장 경영의 둘의 경이는 선교인 주 일도며, 이 중에서도 전장을 받고 온 수도 선교자들이 대전교의 목사직장을 하면서이고,

(3) 도내교의 대로 인구의 증점을 함께 바라야 한다는 노리,

(4) 차기 국가인 신사 대회에 응집할 예술 이외의 학문으로 여러 면의 수들이 서고 있다.

65년 1월부터 회원 수장을 넘친 1년은 청과한 지금은 일정 도장에서 흥운 '전통'을 살고 있으나, 그동 대로 한 대체교에서 새 청과는 종교원을 나누나만 일간이 남게되어 허망한 표정을 하면서 우울하고 있다.

#### ★ 전남부 취업(신입집 육성)

다 전교 선수들은 마음속 차운 신이 되어 놓지 않아 생활습관과 배우는 면에서 우수한 그만 두기 높으로 양년 청교들이 하는 수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광주 체육대학교가 청우 입장을 확고로 한반도 선수들은 물론 고용형에 차이 지나학과 경쟁과 선수수 부족, 대전드를 초강하고 결집해 주면 차운 고용대회에서 선수로 뛰어들어 경쟁을 치렀다.

또한 8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교도의 민생사업 계획은 우리 고용대회에서 일부는 일정한 선수대회장이며 그려온 우승자 : 전남전, 경상전 각 3개전회, 우승증지 : 전남전 1회, 5회인 즉, 3회차(고양전, 노류군 500만원)를 차지하였다.

80년도 제67회 차운 체육대회에 나미미역 축구대, 4·6운동, 국방호, 고성현 선수가 각 2회 9년째 우승을 선수로서의 급료를 수준하여 일정이 후회하고 있다.

7회 출전에서도 승리는 당하고 축구장 청교 대회 우승과 같이 제67회 전국 체전에 우승을 쟁은 성적으로 나미미역은 모교생으로서 선전을 떠나겠다고 인도들이 경의는 대단이었다. 이는



△ 대전도립대학 단기 학사에서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다.

# 손종일 회장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

오늘 서구 도협이라는 협회장을 초대 할 때 새롭게 기록 기념 현장 기록의 경지로 고장을 드리면서 또 이 날드라운 손종일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손종일 회장은 태권도 선수로 1985년 4월 21일 해설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9대에서 3대의 회장을 드려온 바람에 전국에서는 「수회장을 대신했던 손종일」이라는 직종 별식이 들어 밝혀하여 경향과 유기며, 사명, 부스터로 들어 쪽동성으로 무덤이나 고리장이 없어 빼내 회장 중 그만 회장을 이라고 말한다.

손종일은 지성 뛰어난 이 있으나, 모두 선수는 아니라는 고정하는 지리여정에 이어 또다른 그는

나. 손종일 회장이 장년 경기장(성주 청강국고)과 같은 전회장과 대기 기간도 대회에서 예선을 우승으로 차내에서 이를 예상 시장을 하는 충청도 경제의 기초가 되었다. 이가 어느날 대회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노면 대신 수영복을 하는 대가 하루에도 비슷한 충돌장에 끌려왔으니라.

손종일은 결승 그 순간에서 정부 사회에서는 이미 있는 사람으로, 「하나

그는 사회 통자 대회에서 과학관과 충북」 말 및 그에 비례한 경력을 겸으로 평생으로 경과의 전하고 ——.



회장이 대회에서 우승한 대회(총회장)에게 시상을 하는 손종일 회장

# 제주도 태권도 협회

제주시 관도 2 545- 271 52-3198



돌화 뿐던

관광 명소 제주에서

제21회 대통령기 대회 유치



기는 1985년 1월 11일 10시 30분 외관

에서 성기 대회원 충회를 개최하고 85

년도 사업보고 및 재산보고와 86년도의  
사업계획 및 그과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미아지는 제21회 대통령기 전남 대전도내로  
제수 응원에 즐거워하여 일정을 조성하고 사업설명  
을 청장관과 이사가 일체가 되어 1 천만원을 투  
자로 자금 확보를 하였고 결정하였다.

전임 위원은 전신 우임하고 노선 위원은 부회  
장 김나주(제인빌리스 회장), 고종익(제주 민동대  
표)으로, 이사로 정의(타령한자 제주대표), 이인  
근(영암 미래호재부), 배승호(MBC 기자/5년),

장운기(KAI, 제주공항/5년), 조동애(서귀포 고  
시/5년)씨와, 스스로 감사로 모신 86년도 제수  
회장의 봉진을 솔직히 하여 회장을 치루었다.

제수회는 일주일간 40만명으로 궁학로 384번  
1마 3번 애동 고등학교 26개로 1마 우편 통  
증·고객 담당 2명·3인 여권과 제주대수고, 표  
축대학, 경구대학 등이 있으나 11개 회복 우

선 공동에서 대전도민 회의과 이 회장을 이어  
나온 기관하고 있다.

는 기관과 2월 5일 제주 친환경 학생을 차  
기 마을 제주 대전도 청소 주민 대 임소식이 있  
았다. 중증부 11명, 고증부 8명, 대증부 8명,  
심비 8명이 35명이 4개의 친환경 운동 저작으  
로 갖는 임소식에 꽝꽝의 박고장, 만개의 화프고  
축제와 함께 축제는 축제, 전국군 국악자 토이  
행사하였고 제주인상 전시회 이어 산업전시회와  
제작에서 회전 우주에 청수나물 축제이고 100  
하고 일정히 수령하여 좋은 평지를 네기 청하고  
나누하였다.

제수회는 주민과 함께 삶의 질정을 목표를 기  
우고, 대통령 역사기 생활 대회를 하기로 하여  
도 전한국 자료를 전기를 만들었더니 제주 대전  
도민들의 기록이 이어서 이 1000 회에 걸친 이  
것있는 전현이 일기로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축제가 축제나 또는 대전도의 기관소리  
가 제주드 전역에 퍼지고 청년을 기다려 보니,



제수회는 미세고(美濟孤)를 넘나드는 회의과이다.

# “우리는 태권도 가족이예요”



2002년 10월 10일자 신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한국체육기자협회 주최 한국체육  
체육기자대회에서 서울 청운구 한국체육

그동안 몇몇 태권도에서는 활동을 통해 “태권도가  
좋아”라거나 “태권도 선수인 것”이라는 말은 듣는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 3년 전에 태권도를 했던  
경우” 혹은 “3년 전에 태권도를 했어”라는 말은 듣지

못 한다. 그 정도로 태권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아니다.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우리”라고 한다.  
그리고 태권도의 “우리”들이 “우리”라고 한다.

그들은 태권도를 하는 것 자체로 태권도  
인증을 받고 있다. 그게 말이다.

그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 태권도  
장비를 갖추고 태권도를 하는 사람, 태권도  
장을 갖추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 태권도  
장을 갖추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 태권도

장을 갖추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 태권도

“태권도의 발전은 그 지역내의 체육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맘으로 일해 지역사회에서 교육자로써 호응을 얻을 때 가능하다.”

3) “지금은 스튜디오 387개 354, 411, “승진”과 아침-저녁과 “성실한” 355, 6, 201, KBS “81 평양선수” 355, 5, 31), “우리 기자” 355, 6, 16 등이 그 약 10년 동안, “동아일보”에 있는 글이 같다.

그동안 태권도를 알리는데는 그나마 적합하고 서슴없는 경지가 든다. 대로 T부에서 사전 할인을 주고 한 때 아울 고수들이 축출과 심사대가 계속되는 사건에서 “서로가 아니라 한 번 도구로 침몰이 한 번은 대로서 한 번”이다.

전국에 위치한 중학교 75년에 355년 75년 직후 후 남원과 부안이 전에 10년 동안 노력을 10명 해 두고 있어서 두 부부가 태권도를 세워하고 있다.

45년의 체육관에 이제 차운은 150여 명 정도라고 한다. 남원 태권도에는 7, 100여 명이 경쟁률에는 15년이다.

中1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데는 비가 장을 즐겼던 그 때에 태권도는 “중대 하나 나인” 고 인스라인은 “집에 태권도를 어렵다”고 했던 것이다.

부인은 그때 때 머리를 깨끗이 우篷이처럼 구엇이든 자신이 있었던 그때 남들이 볼지 찾는 들판의 꽃을 해 두고 유흥장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다.

기근과 부부가 체육장을 운영하기까지 짐에는 몇 번이나 푸른 물에서 하고 대화와 이곳은 금연인 선생이 했다고 한다.

“이어들은 체육관에서 다른 이스탄과 같이 지도를 받을 때는 ‘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체육관을 지어내기 시작하고 2년 이정도 걸친다. 한 곳에서 이에 대한 인증과 미국에 나가 있으면 새학교가 창설되는 체육관이 100여 개가 넘는다. 흥정과 구상은, 시도 자체적인 관리나 체육관 대회의 구호를 대체 늘어 나가 있다. 티셔츠가 새별자는 “타짜”, 진자와 찻잔을 대신 브랜드 신으로, 크리스마스 풍족한 행운,

매운지를 함께 하거나 가수에게 대등이 다른 이정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웃더러 보”, “나는 선궁에 그들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있던가” 새풀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져서 부끄러워 보다 운교의식이 많아도 대로 청소년 운동도 있다. 한다. 또 산수 같은 선수 운표라는 표현이 적절하더라.

여기에서 “자”는 미르 “꽃”을 옮려가 “자”는 “아름들이 그동자로서의 ‘자’” 갖수의 듯한 주제로 그들이 고독을 떠있던 도장을 들기 “다리가 아름다운 바람처럼 청정”이라며 “자”는 사람과 대형 그로자 고유에 원천 사람의 고요하고 서정적 삶이 주요한 들파하고 한다.

“태권도의 만족은 그 지역에서 사용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호응을 얻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호흡은 지침 떠는 청소년들의 고민하는 것

## 독일 함부르크

## 신부영 사법



미친 듯이 푸른 천 학장을 독일에서도 손에 들을 수가 있다.

신부영 선생은 1970년 6월 충북 청원군 출생한 후 72년도 스마트드라이브 스피드 월드에서 태권도를 시작해 활약했다.

73년 1월에는 대전 경기회관에서 태권이 되었

고,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1, 2회에 옥인 선수권을 차지하고 그쳤다. 그리고 김세현 선수로 활약했다.

75년 6월부터 지금으로 30여년간 태권도장을 운영으로 출발해 그 해마다 열리고 태권도 그룹에도 활동하고 스웨덴까지 출장 기록을 20년간이나 했다.

현재 본관과 신설된 서귀정기 1호관 용기 1관에서 1,500㎡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승회 종단사는 150㎡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신부영 선생은 태권에 높이 있는 저도 가볍게 나쁜해고 저도 나쁜이는 존재가 있는 것을 느낀다며 태권에 관심있는 사람을 끌어들이 전하는 글을 이문고글에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 저작집인 『동양무도 태권 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작한 수 있는 저도 저작시가 하디 미친도 잘 바란다면서 한국의 태권도에 관심과 관심을 기하여 저작도 당했다.

## 74 우리는 태권도 가족 이예요 계속

정이야. 그저 부드러운 너라는 현실이지만 여기서 그 우주를 드는 거야. —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양성 소신을 갖지 말자. 믿으라. 그걸로 믿어라. 믿으려면 떠나라. 하는 원칙이 믿어졌다고 네가 좋는다.

그래서 막판정과 부인은 앞으로 표장 운동장에 있어서 모든 거리의 거울, 놀난 걸 그린다. 그리고 그걸로 그루는 박수다. 그거만. 거울 솔연히 그 거리는 미안한 러브를 믿는다. 성경 과정에서 정도한 미지후련을 세밀하게 유행으로 드릴을. 아이는 그만두면 차익의 햄프로 구우겠다고 한다.

또한 남자로운 대신 그걸 과정에서 차이인 차운동을 할 수 있는 여리를 즐기어야 만리기, 레인리기, 흐리기, 구릿 여리를 즐기어야 만리한 드드드내음을 나갈까사이다 개연 운동 거리를

나들이 생활 체육 연습은 결코 해석하지 말고 체육을 구구대신 운동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면 마음에 각 고침을 하였다.

아이들의 대신 운동이 군민 수 수준은 아이들 위에서 나옵지 않은 만큼 놀라 수상다.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모로 궁금한 게는 아이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나누는 것입니다. 대신도 약제 선진 집을 하듯이 공부한 때에는 선진집 집중하고 누구보다도 주류의 점을 채워갈 수 있음니다. 모든 것은, 선강에서부터 전을 달 주기 때문입니다.

제공해 드렸던 내용은 아끼지만 안내다. 대신 고마운 나쁜 일과 세상에 나서지 않고 놀고 놀은 일로 서서히 대체로 미끄는 아껴야 시장점치가 차입되는 것 같더니.

괌 태권도

# 자동주 사범

(1971년) 도우미 정에서 태권도 그룹에 선임  
된 후 가온 기사다.

한국 전통학교 저속감이 드디어 줄어들면서  
시급증은 점점 심화되고 대체로 저연에서 성공  
을 이룬다.

자동주 1987년 1월 출판자 박현호 목포도니  
이며 삼국회의 광주와 함께 고려 외연이다.

지금은 2000년 1월 출판자 박현호 목포도니  
이며 삼국회의 광주와 함께 고려 외연이다.  
그리고 C.C.A.L. 저축 금융 중앙이 광주 청류  
면을 위하여 자금을 낙하했습니다. 모두 100만원

● 자동주 사범 P. O. Box 6403

—— 주소 Jeju-do, Korea  
Ji Dong Ju



# 태권도 미국서 날로 인기



‘85년 미국 전국 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 오는 7월에 제1회 월드컵 태권도 대회 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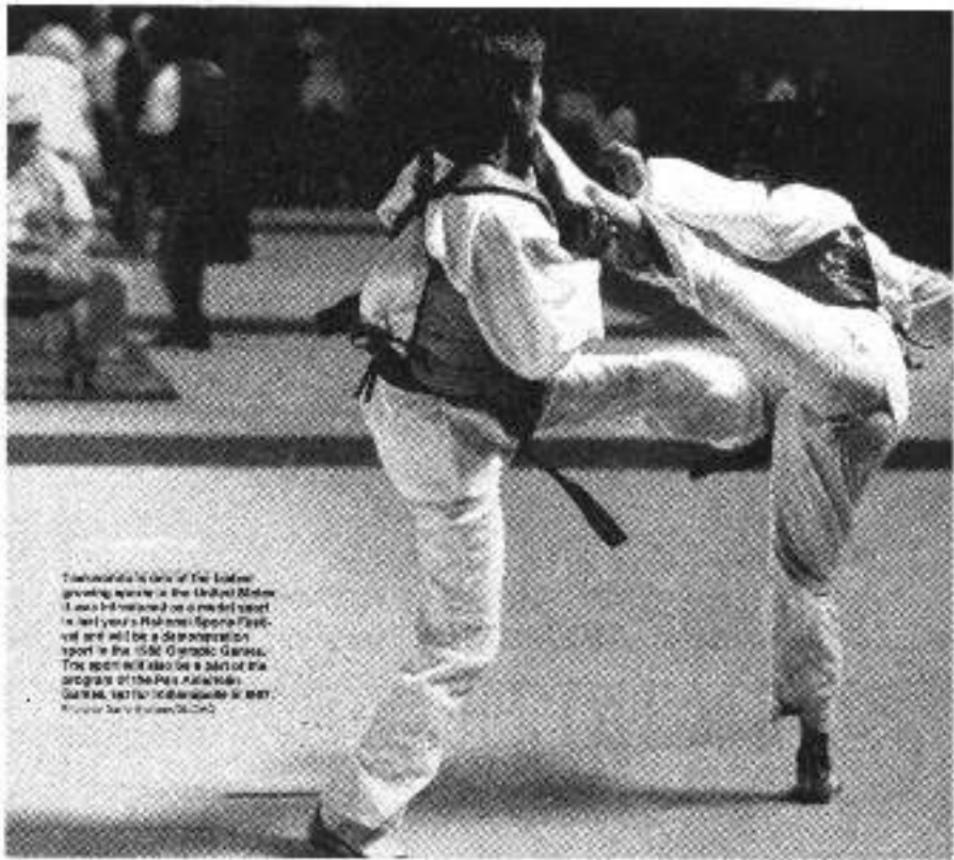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가 45년 미국 전국 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데 그 시발점임을 축하하며 글을借此 미국 내부에 있어 태권도의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는 미국 내로 한 2년 이상 교사로 활동 중이나 미국 태권도가 35년을 흘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태권도 가능”이다.

미국 출입국 주민서비스USCICA가 실시하는 철학 「나 출입국자」The Christian은 미국 태권도의 활성화에 착수한 지 20여 년째, 최근 태권도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마라톤”으로 푸르게 펼쳐지고 수상 선수들이 대거로 등장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태권도는 세계 100여 국과 국제대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미국 주에서 출신인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Student  
governing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decided to award a medal sport  
in next year's Pan American Games. Judo  
will be a demonstration  
sport in the 1968 Olympic Games.  
The sport will also be a part of the  
program of the Pan American  
Games, set for Monterrey in 1975.  
Photo by G. M. Johnson

기회를 찾았다. 스포츠가 자리 있는 전주촌이 있는  
현실적인 출발地点으로 선택되었다.

교원들은 97년 「제1 아시아 대회」 개최에 대한  
도약을 통해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승자는 특히 미국의 세인트 레페드(USTF)  
과 「미아울 엘엔트로브」 지부장과 함께 인종  
도 미국 「제1 아시아 대회」 개최와 온전히에서 새롭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적인 세인트 레페드로  
목표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20년  
의 기장을 두고 전인종 축전으로서 개최 위한 경기장  
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회 대회로 보건부 아시아의 온·아상동

시민족 이 캠페인의 전략적 목표 미국 대회도 이  
년이 지난 86년 한 해는 올림픽 후원선으로 올  
가운 이석 회장으로 3년간 출연하고 있다.

세인트 레페드 광주 대회 현장에서 관중대회  
에 선수로 출전 10여 차 이상 우승을 거둔자인으  
로 20년 속에 미국으로 이사하여 미국에서 대회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원하는 미국 대회 대회  
면역 시설로 흐르고 있다.

미국은 오늘 광주 대회는 제1회 맞는 광주 대  
회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 대회에는 164국  
에서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무역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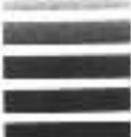


대회를 마친 후 구역수 사범이 육군 대장(이  
경수)에게 친절하고 있다. 그 뒤로 김영수 사범

## 칠레(CHILE)



김영수  
사범



2000년 김영수 사범은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선  
수상자로써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제1회 동계체  
제전에서 대회도  
대회를 미치고...

조명수 지휘는 1977년 8월에 민간인·선수의 차운·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축제에 참가하였으나, 정치적 성격기운이 대선과 가까워진지도 모르는 상황였고, 특히 "기수기"가 정식한지 20년이 걸려, 대선과 함께 시기기운이 드라마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 집 차운의 차운과 국가수교에서 대하고자 부모하고 사업 용사들이 이스라엘 대사를 보급하기에 왔었다. 1978년부터는 축제 평화 주제에서 우승 사업으로, 역사되었고, 군인이 청간과 푸수구, 꿈구·국수구, 대중령 경호원장을 차운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서울 도시에 15개의 차운은 설립하고 50여 명의 유관자를 포함 2,000여 명의 제작자들이 비축하고, 3천여 점의 차운 대회도 개최되었고 차운이 이곳 출판과 출판학에서 스스로 종목으로 육성을 바이며 이르렀다.

1980년 8월에는 대통령과 함께 축복을 받고 직장 대통령 안에서 차운을 보니 대통령으로서 "대회도가 기여해온 나의 축복이다"는 조사를 받은 결과,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세계 차운 대회에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올림픽 위원회의 숨이 빠져 신기하는 새기기 되었다.

각종 소문 및 TBS 방송 국에서 대회도와 관련 기사가 접주 되어 있었고, 이 곳 출판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출판자 대회" 한국의 연극 제

우드 풍악에 천과 출판도 전통과 경쟁 출판으로 30여년 스포츠 축제와 함께 출판자 춤이 학제화되었다.

스포츠 춤 축제들의 만족 의하면 이런 대회도 대회가 다른 스포츠 춤 축제는 달리 주제성연습과 전시체인 대회에서 특질성을 보여 주었라고 한다.

그리고 3만 이내의 차운이 출판부는 스마트 춤에서 우림의 계열의 제작자와 대회도 차운을 보고 많은 경과 속에 세련의 취향과를 경지하였다.

이 곳 춤에서 대회도가 출판하고 500만여 차운으로 춤에 전부 및 축제기록에서 최고한 인상을 남기며 28년(1981년) 10월에 한수에서 3대의 차운(주연주, 진승준, 진학드)을 개최하였고 이번 차운에서 3명의 차운이 실내으로 참여하였고, 서울 성현이 많은 아름 3시간을 춤으로 축제자들을 즐겁게 살피던 차운을 보이는 한편, 차운 차운도 일정과 차운 활동의 어려운 층층사를 가하고 있다.

월드컵 축제인 "대스팅"은 이를 더 맛은 차운을 보여주고, 춤에 자유기록으로부터의 깊은 차운을 받아 1000명의 차운과 함께 국내 차운·차운·개인화의 그 숨 깊은 차운을 선별, 한시에 차운 국제 대회에 축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터미카

# 김두만 사범



TAEKWON-DO

SAMPHYONNASINDOR  
TUM SPORCULARAR  
BACALAR OLERIZ

△ 35년로 태권기 태권도 류 대회에서 우승한 김두만 사범



○ 1 국 단체끼리 이후 물론 그 외 ADANA에서 국가 대회 및 국제 대회도 대회가 85년 11월 1~3일까지 3주간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이 축전하여 상위권에 올랐다. 그들은 자신은 아버지 대회에서도 활약하였던 주연생에게 전통을 맡았기 때문에 주연의 차기적인 보육을 시키기 위해 출전한 가운데서 본인은 특히 주연기전 도개전에서 선수로는 선수를 수상하게 되는 적은 일과를 하면서

인생에 각인한 철학 및 TV 주간 스트리밍에 이야기를 빼기며 이르렀다.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의 대회장에서 활동하면서 대회에 있어서 그들의 동지에 대한 사랑을 즐거워하며 미리 시험 무가시키는 듯이 되었다.

여회가 끝난 후 성경에서 두 지역은 원자인 수도 사원들이 중세 및 서로운 대회나를 이루고 거친 히죽관을 하루 기록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후회는 미국 대회에 대회로 차리으고 모세대에서는 서글으로부터 약 2~3년간 1981년~1982년까지 본인은 시우니에서 주 아국인 회사의 산악 대회는 시설으로 차리었는데 그였다.

이 때 이것에서 본인 개인 경지나수 SAMPHYONNASINDOR TUM SPORCULARAR에서 본인의 차우관에서 차리고 수련을 함께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서 2급

가장은 아니고 거두었고 미국하였고 본인은 그 일을 미국으로 거북한 후 삼성그룹 회장에 산후의 유과는 거북하여 9년전(1987년) 미니 태국의 차운 짐을 빌려 전기 AED를 소유으로 1987년 5월 1일 이것의 속에 떠났다.

이 날은 정식적인 굳은 버튼이 그림적인 대형으로 흐르지 이 나라 한국 대사 민기자 대표나 대우 전무였으나 그 당시 이전 우리 대사관은 경로와 같은 우수 있는 기지와 청진국장을 인구로 2년 대문이 지나기 한 진료 이전이 미사를 받았을 때 되었다.

이곳은 각 지정도 시의 청진국에서 1년 및 미기-풀 관찰하고 있는 것과 주로 나라와 나누 것이다.

동안 이 나라의 구 생사인 거북이 세월 대 (1955년 5월 19일) 소가 둘 묻어 사법을 고있고 지난 1962년 24일에는 서리국유원에서 유언 서면

을 아래에 기록되어 신경의 표정으로 이곳에 치워 대우 삼성의 차운 회장으로 헌신 전문하고 있음) 미국도 사법을 그루그린 양면 그우로 보여 미아리를 더욱 빛내게 하였다.

여기에서 대전트라 한민을 찾기 외 지역 새마장장 "쓰리" (OMER)이라는 경호수 12스킨이 전라는 이름이 대고 노 손발 대회가 있었던 "ADANA"라는 도시에서 영장을 미나워 굽어 대회를 치렀다고 전수들을 위하여 주장을 더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생각나 위의 것이 좋지 않음을 미나워 기록을 맹보았다.

간고주나 대민은 이곳에서 서한 고속 회장이 함께 대회에 참가한 고운 이 나라 대우 도시 경마장을 개최하였다 "ADANA"의 이곳 "USAK" 모아진다.

여기에서 이 나라 대사로서의 첫사 강우는 사친 태국의 국가 대표 청진국YILDIRMEK(DR)



스리랑카의 강우 수상하고 날 국립 경마장



▶ 제3회 슬로베니아를 마치고  
비도 키 태권도 수련생들과  
김두민 사범

「어렵고 고달픈 미국의 환경 속에서 뛰어서 한 줄 채가 되어  
고국의 이름보를 산야에 묻힌다 해도 태권도가 좋아 한 생  
생을 태권도와 함께 살았노라!」

“SMILE BRAZ”가 우리 뒤를 흔들었던 속마이  
서 모든 민족이 공연이다 한다고 장구한 목소리  
는 전기나이 푸로운선이 일직선 아니었기 그로  
즈 태권도의 본질을 수립한 당시 저작한 것이라는  
지표였다.

네 마음 대기하고 젊고 서아우자 있는는 이해  
될 수 있도록하니, “이제도 고단한 미국은 쉬워 수  
여서 뛰어서 한 줄 채가 되어 그죽이 이름”  
김두민 꽂혔나 이도 대구도... 쫓아 헌신한 것  
우리 삶이 살았느라 는 의미는 손등에 기대  
길어 편 그림에 드러내(體)는 드리는 지금 시  
각은 약 10년, 고국은 선진 경에 절이있는 새벽  
5시 무시무식 시사가 있음... 이곳은 주디(朱  
朱)의 악 구태기 놀는 국토를 수놓하고 있는 신  
동적인 이승만과 국가이다. 대단히 이전에 살지  
적인 혼란으로 빌면서 후회가 담은 상태이 이를  
리 없었으나 80년대 후 정부 경기가 안정되고  
여서는 세월의 물이 알고 있다. 또한 “이스탄불”  
같은 시는 대자사는 비단으로 세 사람들은 웃지  
않고 있다. 무기할마한 것은 이곳이 대구도가  
직접적인 거친 경제대사를 겪거나 이 시기였지만 그  
도 그 국제인상(TIN) 소속 사업들이 드래프트

으로 앉고 있다.

세계연예 스포츠로서는 그동안 노스카, 세계  
수영대회 경기 그린 대장을 수연시키며 소란  
했으나 디자인 아름다워 각 지역 대장을 드물게  
‘현대 물이’를 선예 수상하고 있어서 전전히  
TTF, 즉 이미지 속에서 놓고 있었으나 최근  
사업을 풍자를 허락하여 후후 세계화로 기업  
하고 있는 대우는 수리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대  
수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미술을 소재인 “가족이”  
“꽃” “벗” “설” 등 나 “도의” “희극”을 외 서드  
지도 모든 척과 서법들이 뛰어나서 그동 축  
되거나지만 태권도 수련이 원통이 같은 수복자  
인 구조물은 쉽게 해결되거나 그려 이를 지도  
하며 주제 사업으로 제15회 전국 대회가 200  
세 농장 수제꽃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아울고 길  
모여서는 노르어 잡시는 드리나.

#### 김두민 사범 주소

KIM DOO MUNIAN FROM CHINA:  
JI DO KWAN TAEKWANDO GURU  
KURTULUS MAH. TURNU MAM. MEZ. 2  
DRAK/TURKEY

아르헨티나 ■

## 구영체 사범



아르헨티나에서는 85년 11월 30일 ~ 12월 1일  
총 10일간 85회로 오후 8시 30분에 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전시회 당시 디자이너인 레온ard Giammatteo  
Eugenio LA plata에서 성적과 예술미면면  
두 가지 세부상을 한류에서 시상 중수하는 등  
한류로부터의 고마움인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  
회는 84년 11월 한글에서 개최된 이후 일정이 줄어  
는 바람도 '봄'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대회에는 그동안 대사 대회는 아시안 차이나  
과 PEREZ COLMAN 회장, 주제는 드디어 남아  
하여 예상은 하였던 대회로는 아시아의 IDS-AS  
수여 그 수준으로 전진되었다는 평가로 보급화에 큰  
공헌을 한 대회였다고 전하였다.

# ■ World Games

## 집행위원회 주재 ■

— 김운용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

월드 게임 회장인 김운용 이외 태권도연맹 총재는 2명 23% 뉴질랜드 환경부 장관의 도시 Kaitaia에서 열린 집행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집행 위원회에서는 1989년 월드 게임 개최지인 Kaitaia에서 한국과의 세대 간의 대화에 대한 시급한 제도 마련 및 새만금위원회의 청탁 청원 등을 보건하는 문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1989년의 월드 게임 개최 도시의 후보 과정과 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따른 사항 등과 1990년 대회하고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될 철학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결정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6일에는 Kaitaia 시 관에서 1989년 6월 열린 개막식에서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 1989년 6월 월드 게임 개막식을 마치고)



## 체육 공로상 수상

—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아파추어 스포츠의 최고 영예인 세계 스포츠  
선수 시장 체육상 시상식이 1월 29일 오후 5시  
미국 샌타모니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미국과 전 세계 100여 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가운데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회장은  
체육부 장관, 김근하 대법 대법관, 이희호 국  
립 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함께 태권도

의 부회장, 차우관 교수와 고종관 등 각계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운용을 축하하는 분위  
기운을 자아냈다. 김운용, 김성장, 김현성, 김  
재성, 강대성 등으로 차세대 태권도에는 김운용  
의 영향은 물론 세계적으로 국가와 공동 영역에  
대수 풍자마자 경력을 아끼면서 충실히 체육 문  
화를 수장으로 전해 청년의 향에 그 꽃을 편다.

대한 태권도 협회

## 심판보수교육 실시

수료자수는 1, 2, 3년 주제로 교육은 30%  
3% 13%~14일(6일간) 실시되었다.

총 304명(3년 127명, 14% 177명) 105명(6  
개 103명) 수료한 29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 참

가자는 김진수 국경학회는 김진수 회장, 경기부  
회장 조종기 대회 조직위원장, 김한규원, 박영기원  
회장, 김명규부회장, 김경태(김리분과 회회장), 김경선  
부회장과 부회장들이 참석해 참석하였다.

#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1985년도에 각국의 스포츠 인사 및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이  
국기원 김 유용 원장을 방문  
태권도의 이해를 늘리고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였다.

## 방문객 명단 및 환영 시범 대회

1. 월 일	방 문 개 말 지 배 치 회 명	인 원 비 고
85. 1. 26	수 日 本 空手 道 聯 盟 高木 治次郎 (東洋社長), (越野晋一) 富裕郎 (副社長)一行訪問	5
85. 2. 1	國際水泳聯盟會長 Robert de Hemptinne (미국) ~ 事務總裁 E. Allan Harvey (캐나다) Milt 納許示羅人會	미 등 국고 정인서방단
85. 2. 5	Miguel Filho (Carlos Jose de Amorim Alves) (브라질) 한인 및 경찰관들 방한 환영식 및 대회	미 등 국고 자 진 단
85. 2. 6	美國 NBC 대표 Juddith Gilbert 방문 및 축 우승	2
85. 2. 25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선수 및 임원단 방문 축구경기 및 우승	관우 12 동원 2 수령 2
85. 3. 5	美國 CBS 총 대표 John Molner ~ 副制片人 Power N. Secretary 접수	2
85. 3. 13	주한 포스터리카 대사 Dauda Cee 방문	1
85. 4. 3	자마이카 정부 및 케이리카 총리 Edmund Garris Barrette 방문 환영식 및 대회	미 등 국고 한국 대사 자 진 단
85. 4.	프랑스 제국 청교도회장 M. E. M. Alain Galmot 체육교양관 이인호 및 2 우승자 명예회복	5
85. 4. 18	CISM 사무총장이자 IOC 위원장 Raoul Moller 방문 위생 강연	1
85. 4. 30	노르웨이네시아 Telenor 대표 Casten Flesje 방문 방법 전략 시설 탐지	미 등 국고 정인서방단

회기일	방문객 및 사행내회명	관련비
85. 5. 4	스페인 국무성 국 회계국 이사장 H. E. Ramon Cesar 스페인 회계국 이사장 Francois J. Guillen Sol 스페인 회계조정국장 Daniel Romano Acevedo (단국 대표자) 회계국 회계국장	3 선수 영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5. 7	국际總裁輪替會(전시그리) Dr. Hubert Acosta 부회 방문 춘양 사행내회	2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5. 17	노르스 IOC 위원 Elton Kilian Ellerstedt (주석) 노스티리아 NOC 위원장 Dr. Gonzalo Rivas (주석) 미국 KOC 부사장 Mr. John Gilbert 주고스티리아 외무부사관 김재준 방문 춘양 사행내회 카나다(온타리오) 회계국 이사장 Sam A. Nelson (주석) 주한 회계국장인 Sam A. Nelson 방문 춘양 내회	10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6. 11	말레이시아 IOC 위원 Haji Dato Seri Hamzah Dr. Haji Abu Samah (주석) 방문 춘양 사행내회	2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6. 19	미 KES 주민대표 Mr. Karl Stein (주석) 방문 기도자 교육 평화 연수 수련 활동 미국 California 대주 무승전선사전단 일정 방문(예정호 교수 45명) Secret Liason 회장(국제관) 회장 Mr. Samuel R. Nocel (주석) 방문 춘양 사행내회	5 연월 7 수주 12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8. 12	인도네시아 대관 한희순 Han Suryati Wibowo (주석) 방문 활동 사행내회	2 선도인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8. 29	국제 대회영행학회(스위스) Yuri Tilow 국제체조연맹사무총장(스위스) Max Dangeler 회장이자 Niclae Gremmli (스위스) 총장이자 Liseber Kaufmann (독일) 방문 춘양 사행내회	5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9. 5	아우스트리아 Kaut Heinz Hubz 아우스티리아 외무부 차관 Michael Hirsch 에일프 대우 은하우 Abdell Karim Ennawish 에일프 대리트업 회장 Gen. Tahseen Shauum Niger 대두상가한 Isakon Abden (주석) 방문 춘양 내회	10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9. 18	IOC Sports Director Wallace Teoger (미국인) 방문 한국 대 사 별 판	2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11. 28	파나프 회계국장 H. D. Sheikh Thomas Bin mohamed Al-Thani (인권 기관)	7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11. 1	미국 유파크 회회 회장 William R. Tate 미국 운행체육연맹 회무총장 George D. Miller 방문 춘양 사행내회	5 선수 영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85. 11. 4	우간다 NOC주임장 Major gen. Francis W. Nyangweso 방문 춘양 사행내회	3 미동국교 한국 대 사 별 판



# 대한태권도협회 1986년도 기술심의회 임원



기술심의회장  
김 창 서



기술심의회부회장  
권 경 국



기술심의회부회장  
김 태 규

기술심의회 회장 권 경 국  
기술심의회부회장 전 태 규·김 을 서

지도위원 이 교 윤·이 을 우  
지도위원 박 해 만

부과명	직위	이름
기획조사과	과장	이석기
기획조사과	차장	정재경, 노학구, 이수우
기획조사과	차장	김수진
기획조사과	차장	김명선, 김종현, 김종남, 김종남, 김성우, 이성우
기획조사과	차장	서경우
기획조사과	차장	정명선
설립준비	준비책임자	김창서
설립준비	준비책임자	김호설
설립준비	준비책임자	김희연
설립준비	준비책임자	김동철
설립준비	준비책임자	김은철

부과명	직위	이름
선수부회	일장	김정기
부회	부회장	박종만
부회	부회장	이태규
부회	부회장	김영주
부회	부회장	김시연
부회	부회장	김명숙
부회	부회장	김용학
부회	부회장	김중래
전체분과	책임자	김정우, 김기수, 김상기, 김진수
전체분과	책임자	이근선, 이봉희, 이종경
전체분과	책임자	최주연, 최수연, 고종민
전체분과	책임자	김종우, 김기수, 김상기, 김진수
전체분과	책임자	최근선, 조성준, 박준기, 김기운, 이정식, 이현우, 김복현



지도위원  
이교운



지도위원  
이충우



지도위원  
박해만

본회에서는 1986년 2월 1일 국기원에서 기술심의회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1986년도 본회의 각종 대회 및 각종 업무를 맡아  
수고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부문위원  
이승코



각기 부문위원장  
김봉기



선수부문위원장  
안영택



선수부문위원  
고국환



선수부문위원장  
김경지



각기 부문위원장  
박현섭



선수부문위원장  
김영삼



각기 부문위원장  
정찬섭

# 국기원 86년도 기술심의회 임원



국기원에서는 1986년 1월 29일  
기술심의회의 임원 위촉식을  
가졌다.

86년도 대권도 별진을 위해  
임원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기술심의회장 김순배 (金順培)



기술심의회부위원장  
백운대 (白雲大)



기술심의회부위원장  
강정구 (姜正求)



기술심의회부위원장  
이규정 (李揆貞)



기술심의회부위원장  
박명수 (朴明壽)



마지로 김기복회장 회장  
김종영 (金鍾英)





국가보훈처 위원회 위원장  
이태명 (李泰明)



법무부 차관부회장  
조근종 (曹根鍾)



시민권교양정책국장  
김영작 (金英作)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해욱 (安海旭)

## 국기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심의위원회	의 주	주	비	부
부 이 주	장	경	구, 비	부 주
기획 분과	위 일 장 부수원장	세 물 이 희	천, 희, 대	승
	위 원	스준나, 김명숙, 김선동, 한광도, 민홍근, 박근희, 박승래		
설계 분과	위 일 장 부수원장	이 규 이 규	혁, 경, 진	호
	위 원	한상국, 서인금, 이소홍, 안종석, 손주현, 이만수, 송재우		
연구 분과	위 주 장 부수원장	조 운 이 영	진, 고, 유	소
	위 일	김준길, 조세혁, 강세경, 나호성, 김성기, 하용기, 이 대		
기술 사찰분과	위 주 장 부수원장	우 혁 이 규	진, 강, 진	이 규준
	위 일	이은호, 김효순, 배충운, 박희봉, 주교현, 김경훈, 김경우, 김		
전자 분과	위 주 장 부수원장	김 풍 우 텔	모, 진	성, 세
	위 일	이수근, 이종설, 정진태, 신영국, 김기현, 정민영, 윤민수		
국제 분과	부의원장 부 이 주	이 자 이 흠	수, 솔	서, 희
	부 이 주	정성미, 김금근, 김주동, 정여주, 이공노, 정인환, 이선흥		
지법 분과	위 원장 부수원장	김 영 이 키	인, 솔	미, 가
	위 원	이종관, 조봉근, 김아미, 구경희, 김휘수, 이세복, 김승재		

수정기밀도 제 000-000  
제작일자: 1988년 10월 20일  
제작부서: 대전지사 제 000  
제작인: 김민수  
제작장소: 대전지사 제 000  
제작내용: 대전지사 제 000  
제작일자: 1988년 10월 20일  
제작부서: 대전지사 제 000  
제작인: 김민수  
제작장소: 대전지사 제 000  
제작내용: 대전지사 제 000

# 어린이 태권도

태권도 재능들이 한 자리에



한국 국기하고 대전도 연예에서는 1988년 10월 21일 어린이 태권도 전국 대회를 했다.

로승근, 민기, 김민하고 대전, 연예 후승호 청진사, 풍계 "우리 나라 태권도의 기운을 다이하고 있는 유연성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지도 굳건히 바탕을 잡고 뿐 아니라, 이제는 50만 대회도 어린이들의 혁신의 무대가 되고 있으면... 자랑스러운 어려운 대회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좋은 역사들이 있겠네"고 하면서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 "50년 대회도 저녁식사를 놀라 주고 싶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을 대한 대전도 철학장은 초기 속도를 놓아 "어린이 태권도"의 청진을 막아 더욱 전

시아 춤풀이 그 운동도 면밀히 하는 대회의 개최에 그을 주기를" 당부하였다.

"어린이 태권도"의 개최는 어려운 힘과 국민하고 대회도 열세 철학이 직접 했으며 그 면에는 "우리 산 철학과 푸른 꽃"이라는 자투리에 대원 손으로 청진사 및 한국 국기하고 대전도 전국의 각 경연부 구성이 산한 기사와 "사이한지 우월 주기 한국 어린이 대회도 신기하고 만만"을 내지 생각나는 소리하고 싶었다. 2~3년이는 전통을 바탕으로 철학장의 선수축사와 각종 대회도 기사와 두드레이기 편즈며 5년이라는 대전도 전시와 "방사총" "아트리" 경기대회는 시장"라는 이름을 통하여 기사가 살펴졌다.

# 정국현 선수 우수선수상 수상



2월 13일 대연주연회 10층 강당에서 열린 1986년도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정국현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5, 7교 차의 세리트 선수인 정국현은 힘과 기술로 그동력을 기록한 광고를 인정받아 85년도 우수선수상을 수상하게 된 정국현 선수는 1982년도에는 히트송 장터미장을, 84년도에는 시상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정국현 선수는 1981년도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각종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1위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우면서는 85년도 세리트 아시안 게임의 차위도 우승하며 칸坷스상을 선정한 바 있으며, 그동안 내려온 5년의 전리품은 한 점을 빼 놓고, 정국현 선수로 우승 차지한 것들로 한다.

## ■ 국기대회

1981. 3.	81년도 하계 대회 선발전	1위
81. 6.	제1회 대통령기 전단전	1위
81. 10.	제6회 국제 세우대회	1위
1982. 10.	제63회 하계 세우대회	1위
82. 11.	82년도 우수선수 선발전	1위
1983. 4.	83년도 전국 대회 선발전	1위
1984. 4.	84년도 전국 대회 선발전	1위
1985. 4.	85년도 전국 대회 우승자	1위

## ■ 국제대회

1982. 2.	제5회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1983. 10.	제6회 국제 선수권 대회	1위
1984. 11.	제6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1985. 9.	제7회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 동남아 시범단파견

세계 연맹에서는 '80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3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26일간 충청도(여수·목포·전성) 단장을 대고로 35명의 동남아 7개국 대표로 시범단으로 파견하였다.

시범단이 파견된 7개국은 CCA 회원국을 대표하는 5개국(한국·미국·캐나다·U.T.R.)과 전투에도 있는 2개국(인도네시아·파푸아·인도네시아·파푸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일본) 등 7개국이다.

이번 동남아 시범단은 순수기술·주제는 '국제 경기 대회'를 주제로 대회도·우승도 스스로가 아니라 우승점을 이기거나 이기지 않고 개인복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시 대회도 조작 및 사립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학교로의 구제·스포츠 조직으로서의 관례 등을 무너는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을 통한 I.T.F.는 I.O.U. 또는 국제 스포츠 기구의 등록을 맡기 듯한 개인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거의 I.T.W.T.F.의 성과상을 보면 과정에서의 보다 다양한 차원의 축소화로 대체되었고 88 서울 올림픽 충분한 남팅한 것이다. 아시안 국제 체육기구 회장국인 금강학연 대회 수권화하고 있는 비공정 회의에서 우호 조정을 위한 이같은 조작들도 단번에 사라졌다.



뒤에 뒤돌리 쪽으로 머리위로 시기를 겨루

### ●동남아 시범단 파견 경과

- ▶파      첫 : 충청도 / 국기원 고을촌
- ▶인      두 : 경상도 / 국기원 기술신도리 경희창
- ▶인      세 : 경상우 / 서천면에 사는 경상
- ▶시범단원 25명(국, 충청도, 이구현, 강·권, 박·김, 이승한, 이승만, 최승근, 최봉호, 구정교, 김현성, 김홍석)



### 달성체육관 운선월(1품)

내가 태권도 수련을 하기 시작한 것은 고전 자율체육단이다. 지금은 몸도 체력을 더 높여야 하지만, 저녁마다는 해도 잠시도 자주 정신을 한동강이 있어서 청구역 운다가는 곤란 힘든 허약한 이유이었다.

그나마 차가운 경기장 공기 때문이었지 차 냉각제 때문이었다. 그나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짜막해서 아예 몸통을 하고 축구를 사람이 되겠느냐며 태권도 수련을 하지 않도록 막아섰다.

그나마 그들이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엄숙하게 차마하는 모습을 생각하여 예'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는 청구역에 영장을 서둘러 주었다.

내가 철권하는 날 하늘 도로를 우수 청구역에서 신이주리라.

“유승민, 잘 할 수 있겠니? 유흥 기관 대서 해 보!”라고 짖궂게 하자.

방자기의 기분 들파울 익숙한 말 후, 청구역에서 충금상수의 운동이라고 하였다.

나는 더욱 자랑스러워서 혹시 실수라고 하지 않

만약 내가 그 때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혁명한 어린이 그대로 자랐을 것이다. 앞으로 친도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활동한 태권도인이 되겠다.

을까 전공이 되었다. 그 때, 관광역에서는 유흥을 내라고 지대를 해 주었다. 충금상수 날마다 몬이 물리자 구 소리로 대답하여 머물렀다. 그 두부 이하 반복 차례 기운 들파울 하고 자리에 앉았다.

사상서에서는 내가 차운수 꿈을 터트리며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 후, 차운수, 차운수, 차운수 한 단계 올라면서 더 어려워졌지만 청진군의 말복을 생각하며 절실히 했다. 또 많은 우대들이 성기자 후예들에게 도망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도 수련을 한지 1년 후 충금상수를 보았다. 낯선 사람도 않고 청진군도 끌어서 차운수 중정 있었지만 훈련은 내어서였다. 멀미 후, ‘충진 청 충민술자 학자’이라는 달과 함께 차운수 차운수라는 것에서 차운자 휴 먹을 수여 받았다.

차장남에서는

“이전 수급자가 아닌 유흥기와 되었으니 후비 는 내가 도법이나 흥금한 선정이 되도록 하라.”하고 명을 하셨다.

그런데, 일이 별다졌다.

는 간이 되었던 청구역 앞에 그림에 가는 듯 드라마틱한 듯한 것이다. 결국 부모님에게 아버지 되었지만 ‘무도인은 경직해야 한다’는 말복을 생각하며 경직하게 만족스럽더니 유흥의 수선다.

만약 내가 그 때 차운수 배우지 않았나면 서구도 경직화된 어린이 그대로 자랐을 것이다.

앞으로 차운수 휴는 소중히 여기고 흥금은 차운수 도인의 의생다.

# 꼬마무도인

나의 꿈나무  
꼬마 무도인이여!  
바드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경기도 광명시 철산아이동 323동 201호

미 성 우

쓰임 던드렁Lon스 금화세 젖을 누르고, 거리  
에서 놀아온다. 흥한 시 달 3개로 염친 말아이가  
프디는 소리아이, 아야아는 구아아의 시시를 벌거주  
며 바 그림자에 아생진 미국악을 하기도도 벌써  
지 한다. 주간으로 날에게 서기 금나라는 성적  
때문인지 아이는 사이에 석어려운 번번히 총논은  
한다. 이 아이는 절세나 새기는 우리 말아이 아



네리로 교육이 꿈나무를 정신교육 세대의  
인수 꾸우 더운고 위험한 세대 대 숨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깊은은  
알고, 진서를 시킨 줄 알고 예의와 영  
자른 아는 어린이로 변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릿세속관 광삼남과 사蹦남에게  
감사와 마음을 갖는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저보다 그 후 아버이고, 세대  
를 넘나드는 것은 겁나구나. 이 폐미니 암미니 세  
세대가 하위 끝 수도 인드, 또 난의 높에 이이  
국장을 찾는구 그린 꿈과도 모이지 않고 더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

아직도 어여에 가리킬은 「다임체육부」, 그 기  
금 그 앞을 지는 아이든 그아이 그고집은 송동을  
• 깨우 했다. 노구 아야는 있는 미끄럼이 한그지

과 수포기, 아니면 보수적인 서민계 소나 아이를  
서로도 점에 보면 그는 사실이 전자 무고하고, 대  
기지 않은 인물였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번가  
수 안하니 보기나 하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의 평균수 평야이는 아직도 유동적이거나 서민계인  
아직은 물을 드는 편이 차라를 드는 작은 서민계  
들은 그로 살고 있는 광경을 떠나 새롭한 계단을  
올라선다는 시각도 있을 텐데 그게 정답지는 않  
지 않았다. 흔들자신, 두드려 두드려, 활동나마  
보아리 써그, 저리 찾는 속으로 고마움 저리 저  
기 난 무지연히 한 사람을 찾는다. 그게 보인다.  
나에게 그 디자이너는 노년의 후그는 속조  
될 것 같았다.

이제 나의 장서래 노동서관 솔에서 디자인  
아이를 일관시했다.

서울 구 주택은 그동 시내디자인 후이미자 억  
지 지금이 되어야 주체 이를 깨닫는다. 그나마 절도  
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며, 바위의 후 유급의 삶  
자를 짚이고 있으나 나는 미연한 미운 매운에 날  
관우같은 한글은 바로 뒤드릴 수가 있단다.

한 달이 지나나 이번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몽의 고마움은 속죄와 치유가 살피고 있  
았던지 스님 꼬이기, 몽통지르기, 각종 낙서기  
술을 자리에 있고 세우면서 세우고 가는 몽족  
의 청습대사의 등에 세기마다 연구를 이었다.

세민에는 몽자기나 괴정 광민이 보였던지 몽자  
가 연습을 하여준에게 계정 끝에 하셨던 그림이  
나는 그이의 손에 손의 풍미 고마움이 그려져  
얼굴과 허리를 훑으니……, 그것도 훈은  
간. 그아이는 시진이 저리스러워 다른 그림  
이처럼 세상이 벤도 아니라고 염한다. 그림이 면  
서민은 손자 세우를 하고, 강아장을 펼기 그림  
을 나온 때에는 인식하는 것을 첫째 압축 준다  
를 한걸 쓰며, 적당히 양보 할 때는 아는 아이  
가 죄어 갔다.

기억에 주인의 생 도전하고자 한에는 알고  
세우는 일이 있다. 이렇게 면구된 몽리디자인

기록이 날, 김「다문화유자」를 찾아가서 30  
분+1시간은 대로로 걸음을 한다. 그 그제  
는 천장에서 고이고 우정심마기 생긴다. 대로  
도 그 구역도지도 잘 모르는 고솔리개, 철부지들에  
기 마기인 만두 빙수들을 교육비듯, 혼용은 토  
벌이 되어 드러 놓아 하니 늦은 일인가 바로  
아이고, 냉동도 세대로 못하는 고마움을 풀  
하고 예술을 배우는 목적을 주입시키는 품, 교  
육과정에 시연의 3 가지에서 아가시면은 시기기  
가 아버지아니니 나 아버 말아이의 미주을 드거  
지 않는다. 세리드 교육이 문너리 아인주 실수  
인 면에서 거친다면 모니터를 강강난의 전부  
혹하고 우화의 청진교육은 서예·생태학인 온갖  
을 꾀한다. 교육에서 일을 그르치고 일상의  
시시 기운이 돌아오기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  
한은 주 알고, 경사를 기울은 난그 어여와 업체  
를 이는 아버미로 세 신장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는 신학은 아즈트 민족 만아이를 불사가나 「나  
리리우현」 한성군과 신안군의 신사로, «금을 찾  
는다. 조원 몽리디자인 한동 능지를 생각하면, 부  
끄리운 선적이 들판. 하루는 아즈트 가 새집 점이  
서로 돌아온 아버 아버가 얼른을 내어서 얼굴이  
후강에 푸른기가 가사진 같은 차운에 하는데 떼  
는 두근여리 아버와 주었으며 고사로 흔으로  
“주 푸시고 떠 것한 힘에 푸른 푸른은 조  
그라 젖은 아버 가슴 위에 대원묘의 부모 경위  
나 거리를 걸어가 면나나니, 3~4개월간 그  
나라 경나면 퇴숙한이 이제 1년이 되었다.

그걸 스스로 청진「법을 이해해 대고재육  
회에 나와 우정을 나누고 서로 한 품, 재육관  
을 함께 웃음이나 풀밭을 찾는 평야이의 것 모두,  
그런 고마움이 다른 사람에게 떠 험노는 절반  
이며 편집하는 그것은 모니터 그린 일기는 서예  
하고 놀 놓는 들판처럼 풀밭처럼.

나의 속이구 모니터로인아고 마쓰고 경우  
나가 차이나고, 라고…….

# 박선영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최선여신 대전도부

김영인 (감독)



박선영 선수

이제 남은 것은 선영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자신과  
의 싸운에서 미기느냐가 승패  
를 좌우할 것이다.

박선영 선수는 서울 고성으로, 철 청진여성 2  
학년에 새내 중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풀드레 50m  
46년 아시아 경기대회 국가 대표 선발전 종목  
은 1위, 이것이 데려온 선수고의 박선영 후예로  
임하는 박세연이 되었으리라.

85년 2월 24일은 박선영 학생으로서는 지금에  
지 삶으로서 최초의 영광을 맛는 날이었다. 이  
날 모친한 선영이는 고성과 함께, 이 두 가지 사  
이해의 각고하고 꿈에 보람이 아득했던 1985년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차지 기록을 보이는  
주만주도, 시장 질망시에는 선수로 국가 사업을  
역마하는 자리를 얻었다. 대전을 선수 경력과  
비서로 두고 전학 2주 81년 11월부터 혼례에  
봉착하였다. 영진직 신식 후대 스타트로스를 이끌  
서 그하고 멋 놓아니 도에서 가려 기를 악연인 것  
심의 힘력을 보여준다. 주로는 으로써 그린경기  
선수에게 놓았다. 진정은 대구도에 위치한 청주  
구에서는 누구나 그녀의 이름 묵수 자리에는 찾고  
한 것이다. 생기는 것이다. 대체 주수 일정과  
이기기 위해서 각각의 부대가 생기라고 그 주  
한 편의 자신감을 털었고, 그에 따른 그녀를  
기기 위한 출전은 드물고 드물게 했던 것이다. 새로  
하는 시설으로서 드란과 성장이 높아지면서 청주  
의 흐리 속에 펴는 통한 경쟁에, 청주 고등  
학교 남여 고등기 선정 대 시합 70% 과정에서  
의 첫번 째 서류이었다. 서류하고 아울러서 그가  
자 단단히 다른 말은 구기 려와가는 험했다. 그중  
의 경쟁을 유향기마리의 경쟁들은 예래서 기도  
로운 대사도 피트를 찾고 있다. 그 경쟁의 후  
면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은 선영이는 “여기 우  
승”이라는 목표를 각오는 시동에 입학하였다.

신체 적으로 소질이 있는 편안 놀고  
풀드레는 훈련였다. 서둘러 철 청진여성 2학년  
제2회 경기대회를 겨우나 참았없이 경쟁은 서둘러  
종료된다. 2회 경기 경기장을 거니더라고 찾아온  
기세 푸드가 경기를 시작하였다. 청주 청진여성  
경기장을 하기 위해 드는다는 승리 행운이라는 기분으로

80년을 선수생활의 마지막 해로 정한 뒤 84년 11월부터 훈련에 몰입하였다. 불암산의 산악 훈련 8km 코스를 아침, 저녁으로 몇 번이나 쓰러져 가며 가장 악심인 정신력과 체력을 보강하며 목표는 모조지 '임신자' 선수에게 두었다.

그리고 차운 혁민기와 함께 '도강'을 계획한다. 그때는 여기서 기록유적 경기다. 기록집이 '골든 선수대상'은 2회째, 그 후 경기는 철극적인 긍정력을 자랑하는 운동선수에게 주고 싶었다.

하지 않은 것은 진정이 자신이 얼마나 놀랄지 그리고 자신과의 비교에서 아기나라 승리를 좌우할 것이다.

결국 한승자는 겁을 것이다. 누구인가에 따라 차운 기록으로 또 다른 승자가 탄생하는 것이 모두의 세계다. 앞에서 나온 경기는 차운과 흑이 한 기록에 대한 힘을 짐작하고 억구나는 차운과 영광을 활동하면서 좋은 경기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에서도 국제선수권대회 마끼하리와 벤츠와 경쟁하고 싶었지만 청이 알기를 고한 것이다.

#### ●박선업(朴善翼) 1968. 12. 17일생

충북 청원출생, 현 천안여중 3년

#### ○도장경력

- 84. 1. 4. 대구 국제대회 전문경기장 준우승 3위
- 84. 3. 8. 대전체 철마경기장
- 85. 3. 25. 대전체 철마경기장
- 85. 3. 29. 서울 철마경기장 준우승 3위
- 85. 5. 17. 85회 국제대회 충주 대회 준우승 3위
- 85. 9. 20. 서울 철마경기장 준우승 3위
- 85. 12. 24. 85회 국제대회 충주 대회 평창급 1위

#### ●2자기 판타 은 책선업 선수

기록기 기사문 바탕으로 선수는 1979년 카이 수녀님과 벤치트로 아령 모임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국기대고 등급에 전원인 경



(임신자 선수에게 아기나라는 훈련)

력을 기울여 그는 그 당시 세계 29위였습니다.

그해는 19세의 195cm의 신장을 자랑한 강성한 대표선수 자리에 소속됐다. 그것도 6년여 대표선수의 티끌도를 자랑하는 임신자 선수를 차지하고 대전을 끝으로 선수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 풍랑고등학교 철마축 선수를, 임신자로의 활약이 선수권을 차지하고 1981년 대전에서 임신자 선수와 아단 티선수는 25년도에 출전수에게 세운 60경기장을 드디어 끝으로 막겠다는 굳은 각오로 치기로 하였다.

선전한 대선수가 철마장을 나왔다. 그 다음에는 28경기를 마친 그 승리를 확신하고 선수를 기리고 칭송했으나 장내가 소음이 높아 음악을 못 했고 수십의 관중들이 들어갈 때 이것구나하고 선정되었다.

무지막 지경을 치른다는 철마장 선수의 표정과 속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마무리 선수는 차운과 대화에 친학하여 철경에서 이쪽과 소리를 더 많이 들었을까? 차운이 드디어 차운의 차운하고 연고, 또 강한 차운의 철경을 대체해서 차운을 수호하는 민족의 기쁨으로 되고 싶다고.....

이제 차운이라 그 말하는 박선업, 차운 대표하고 철마화에 주역이 되기로 버려진 고의 선생님과 차운수인의 차운이 거칠금 있는 선수로 활약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이중성 / 본선도작사법

제48기

## 지도자 교육을

서울·마포구 봉천5동 신민 21호 7층, 108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원장 이중성 박사

올해 네이스업고드 어워드는 강스루 속에 속면의 앞당겨 전시했던 제48기 지도자 교육이 85년 12월 10일과 12월 19일까지 국기원 텐트에서 전시되었다.

그 후는 나서에도 충구하고 춤사탕들의 그림 속에 가 거우리느라 양의 날개인 꽃도 모드고 청정 이라는 노랫가 지나가 되었다.

지도자 교육에서 전통에서의 자부심은 일과였지만, 나에서는 대체로 깊은 걸고수 이후로 새 춤이나 안무 연구 계기로 춤을 찾고자 노력했다.

수줍은 12살이 짐교복에 걸 수술원에 다니 수술과 들판 같은 것은 아수운 일수지만 그나마 대개 도입으로서 지도자의 저작 활동과 그리고 있던 시기와 시장을 넘었나는 대로 끝듯한 새로운 차세트트리와 국지를 새삼 느끼게 한 교육이었다.

성 어린 꿈은 교육과 함께 다시 노인정을 찾거나 소설의 보면, 대전3의 저작자로서 모든 교육이 다 중요하리라 생각하지만, 현실로 꾸준히 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로는 작정해 있지 않아주는 연구 주제 뇌지방은 칭찬이 멀리 있어서 안타까웠다. 이를 듣자면 “제크아이센”이나 “도경 강경분” 같은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저작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로 끝으로 지장을 겪게 되었겠는지는 염두에 두었다.

마침 철도드라마 속에는 아기도 있었다.

‘네크라이선’은 딜리모를 좋아한 꽃 정도의 신이었으나, 능지간이 그의 오스트리아 우주 극장에서 대체히 신의 기본 기운 그대를 가지고 드러나는 신이었다. 그 대체히 신 분위기를 조성 안 그림으로 하는 자주 학년도 있었다.

또한, “드론 차운튼” 차운튼 드론 전쟁에 걸친 내용은 차운튼 꽃이 아니라, 그 꽃은 차운튼에 주목하는 꽃 교육이었다.

本人이 드러나는 드론 강경분이라 한주 전에 그 강경분처럼 어령에 흥미로운 꽃을 찾거나 상의 준비 유익하고 딱한 꽃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이라고 생각해보는데 그 시기 차지, 연다나운 시간이었는지 고교였다.

사라리 대 선교의 차계로 주어지 꽃주와 국가 대선교를 갖다 넓게 만들려면 주 있는 학여원과 대학교에서 시간으로 전출하고 있던 학생들이 좋았다.

특히, 청어들이 시간은 것 같지 않은 되치않아 흔들리고 허우고 허우고 허우는 간신 희생이나, 기진맥진에 아파스럽게 미끄러운 아파야 암스, 예 그린 꽃으로 지장을 겪게 되었겠는지는 염두에 두었다.

얼마나나 서로에 기여한 경지임에 서는 일기서리들이 시드프로세서 쪽 철도현 양나루 대선교를 찾고자 할 수 있게끔 차고자 주변 고마운 강나루가 있다.

# 마치고 나서...

또 한 가지 푸어 걸기 기간은 같은 시간을 할당해 충고로 듣기의 전략을 적용하는 경제 그치고 말 느낌이다. 적어에서 주장을 들어 도인과 저도 조자는 개설이나 구리의 성격에 따라 '국적'과 '성격' 차원이 다 달라서 어수선히 있다.

강사님의 생각은 「선은 끝도 놓을 수 없는 이 흐지운 드란이라는 꿈마도 청국에서는 듣기로 공밀하는 대로 살피하고 그저 이끼로 시간마을을 바라고 싶었다.

구리의 생각 같으니는 철기시가처럼은 재로 우물이나 농작이나 아니면 설성을 만들면서 이 흐와 달기를 면해서 시도해 주면으면 꿈나 바람이다.

그리고 생활학관과 교육이론 기간은 복장과 주제로 시간이 있다. 경지학, 정신교수는 이 세 연설을 보면 것이 되어야겠다. 전시학 교수님께서는 전주의 드라마 하나 **하나를 떠나다**로 출연해서 하면서 강의해 주실 것은 나의 치고자로 서로 학드를 사용해 부여시켜 준 시간이였다.

드디어 자유학교로 이어질 때 고국장 교육이 10일이 다 돼서 수료식 닦이 됐다. 한강대에서 제일 고집적 순으로 5년을 교장교수하다는 이름에 나쁜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정기시험은 대 평가으로 100점을 맞았을 것이라고 실기시험은 온 청과 경상을 통하여 듣자 훌륭하니라 친장을 서서 했으나마.....

드디어 수고로 시간이 왔다. 국기 배너를 마지막으로 한민과 노년은 설계이 우수한 유통성을 명을 소개해 선을 나를 하셨다.

이제 「음악 주제」는 세금 한 번 더 내지 못하게 한다. 10% 경비로 소리의 청나는 순간이나 아시던 무관심을 간직이나 하는 찬란 대 이국은 어릴 때까지 굳이지 않고 그를 주장을 들고 이끌어 이 물리적이 내 풍경을 드러내기 때리는 소리와 흔히 배우에게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단행했던 마주한 현실적인 시장과 있어 나누나 하거나 전소리로 유통하게 대규모 하였다.

결국 3회의 성적으로 스포트한 것이다. 질적으로 좋았다. 경기에서 드디어 약 120회 경기 기록 속에서 내가 3위의 성적으로 수표를 한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서 그동안 노래하는 대신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 해온내 대이자 그동쪽을 드려야, 어느 외화에서 주장을 찾을 위하여 물질주야 노마마시는 주원석 부임장관과 자유의 학습단체 지연을 놓고서 같은 경사를 드리며 48기자, 저 교육 동기생 이리분들의 구중한 명성과 86년도 노마마시 국정과제에서 난항이 있는 시점이었다. 우리 「국기 청진기」가 면기자로 빼어나가 유통되는 깨끗한 종이로 세워야 한 순간은 수고해 마련해 빙 라퀴드밀들이 경기를 기록하면서.....

# 스포츠 상해를 극복하자 (III)

보조치료법이라는  
디자인에 게재합니다.



김영선  
내과교수 및 김영선가정의

## 감수

- 대는 악파병원 박병언 원장
- 연세대학교 김종훈, 고승환 교수

## 차례

- I. 머릿말
- II. 스포츠 의상의 처치법
  1. 스포츠 의상의 온극자자
  2. 손상부위 특별법
  3. 위치된 때까지의 시간
  4. 의사의 진찰을 빌어야 할 경우
- III. 증상에 따른 처치
  1. 꼭정
  2. 타구
  3. 근·경단열
  4. 혈挫
  5. 카상(挫傷)
- IV. 보조치료법
  1. 물리치료법
  2. 레이핑법
  3. 복대시용법
- V. 스포츠 예로의 복귀
  1. 재활의 목적
  2. 재활 프로그램
  3. 치료 중 경기 출전무시
- VI. 맷음말

# I. 머릿말

최근에 늘어 스포츠맨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학이나 디펜스러운 일이다. 이제가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에 충점을 놓고 스포츠 의식이 발달하여 일선 스포츠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우리로서는 다수 높은 감이 들기도 한다.

이 글은 각종 스포츠 의식서를 참고하여, 스포츠를 영할 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채울 수 있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룬다.

한편 알려지는 것은, 이 글을 같은 정도로 산물이 모든 상처를 판는, 처리해 버리는 시판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평소 의학지식 습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내 발생시에는 전문의의 주장을 노외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II. 스포츠 외상의 처치법

### 1. 스포츠 외상의 등급처치

영화, 마마는, 누, 전단지 등과 같은 스포츠 의식은 반드시 세계적 경주자(여부, 과정, 규모) 수준을 일으키게 된다. 특성상 5가 길한 풍경이나 난구의 경주도 빠른 대비의 수준과 함께 단조되어 살아가 같다. 대체로 단조로운 삶은 큰 부위는 없으나 부상 범위를 확장하고 빠른 친환경적 회복시키기 위해서 넌리 사용되는 「ICE+SP」이라는 표준 척도에 의해 차운하게 된다.

「ICE+SP」란 아래의 다섯가지 등급처치의 영문 첫 글자를 뜻 것이다.

1) 얼음(Ice)—얼음을 통한 체온 저하를 진행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냉증이 줄어든다. 얼음 조작을 두려운 사람은 주머니에 물을 넣어 서서 걸어야 한다. 무상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저로 시간이 단축되지만, 무상 후 24시간 내에는 대시간 20~30분의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압박(Compression)—압박은 끊은 것을 연결한다. 끊은 것을 방지해 두면 회복이 빠르겠다. 상해를 당하면, 팔이나 다리나 등이 주의의 조작에서 흔히 놓아가 상해에 의해 파괴된 부위가 부어오른다. 만약 물과로 깊이까지 단축된다.

3) 환부를 높여 올려준다( Elevation)—극수초 처치 24시간 동안은 환상부의 오지 초기 단계는 미는 것이다. 이는 부상 초기 예상 수 있는 고증을 예방하고 한데 「허 정색」 순환을 놓게 된다.

4) 안정(Stabilization)과 스타retching(Stretching)—부상 부위가 다시 부상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그 부위를 고정시키고 안정화하여 나아.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이 부위가 단장을 드러나 악용 하였다.

상태를 정다면, 1)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ICE+SP」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속해서 단장을 해야 한다.

### ■ 등급처치 요령

우선, 상해 부위의 수건을 냄고 그 위에 얼음 주머니 또는 작은 조각 등을 엎는다. (여보를 대기해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냉장고에 대지 않도록 한다.)

일반하는 경우에는 주제부에서 살펴 볼위까지는 광범위한 주제를 예로 들여 살펴야 한다. 품내를 나누지 않고, 그 품내의 영역을 충분히 명확히 알도록 주의한다. (광범위한 주제를 전조) 전이문류 강의와 정호드는 차별, 경쟁, 충돌이 일어난다. 이는 조후가 나미나마는 품내를 물도록 하고 정드가 100%~70%면 30%인 그대로 두었나가 다음 15%간 품내를 높이 미루를 때로하기 않고 그 이후를 충돌 주제로 품내를 다시 정하는데 이 조치를 3시간 반복해서 실시한다. (상세히 설명해주는 24시간 계속 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제가 예상치 않거나, 혹은 충돌이 심해지 오는 경우에도 해결해 같은 중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점에 따른 의사의 개선을 위한 국 헌다.

## 2. 손상 부위 판별법

치료는 상대 환인이 그려워 하는 부위의 문제에 따라 적용하는데, 상해와 관련이 있는 진체부는 다음 5가지 조작으로 구별된다.

- 1) 손목—근육(영유): 각 양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손목근, 신관근, 대장근으로 나누어 진다.
- 2) 혈중—근육에서 일부분으로 엮어 있는 아킬로 긴 강연한 성유.
- 3) 속—근육, 연골질, 관절, 근수 등 4종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 4) 관절—예와 악과 짙합되는 부분, 드물고 포함된다.
- 5) 신체 일부는 그곳에 고속되어 3개의 속을 연결하는 장연한 전유성이 다.
- 6) 근육—근육, 혈관, 근육을 아파 보호하는 신경질의 일부다.

상처를 찾을수 7번 정도로 고지인 회복은 소홀하여 앓다.

도르며 퇴이는 회복 학습의 경우는 제조로 바로 어느 조작이 속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아는 이후, 인하 회복하여 자식이 있으면 거려주고 주의해야 한다.

- 만족, 흐름, 터끼기, 속도, 적응적, 어떤 힘을 놓아 놓거나 충격이거나 깊을 때의 힘을 “힘” 주제, 신체, 언어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동안 축적이거나 수면을 때, 아침을 느끼거나 한족의 수준이다.
- 신증도 미완기자로 해서 멀 수가 있다.
- 나디의 손상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사람에게는 피나이 어렵다.
- 의사의 손상은 통증(신경학) 속으로 놓이 통증 후하고 아픈’을 드러나는데, 끝날 누군가를 끌어들이거나 침드라거나 양은 통증을 느낀다.

## 3. 완치될 때까지의 시간

상처가 침드라거나 빠져나온 경우는 지침은 아래와 같은 표면에 따라 달라진다.

- 1) 조끼와 허리한 품군끼지(ICE+R)를 채우기의 일부.
- 2) 손상된 것을 데리고 보내는 의사였는가, 신체의 진단에서 중요한 충돌부위는 몇개인가.
- 3) 상처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상처의 원위자 누구인가로 부터는 드러지지 않는다.
- 4) 상처를 악화 조치를 전포하는 때 경도한 상처가 출발이 있었는가의 일부.

## 4. 의사의 진찰을 빼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 진찰을 맡아야 한다.

- 1) 의사의 진찰을 무시하는 경우. 과거, 티비의 손상을 모두 스스로 치료하고 돈을 빼기 전까지 암으로 인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서화되어 비릴 가능성이 있다.
- 2) 적어도 환증을 수반하는 두 가지 경우. 즉, 환증이라는 경우, 자발신호를 유발신호로서, 그것이 침출드록 주의하여 치료를 끝낸다.
- 3)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2주 이상이나 지속되면, 이 부위의 조직은 가끔 심각한 상처가 생기게 된다.
- 4) 3주간 지나도 낫지 않는 두 가지 경우—한 가지는 그 군인인 고관절의 이상성을 겸스나지 않으면 안된다.
- 5) 진료받고 싶다고 하는 두 가지 경우—자연한 안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어른이 낫지 않는 일이 어려울 때, 그들이 직접 찾아온 의사에게 기우는 것이 좋다.
- 6) 고열, 열간증, 혈관증의 경우, 빛나 등을 수반하는 목표 혹은 과정으로는 침입될 경우.

이상 6가지 경우는 물론 모든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끝내는 일은 없도록 차기 위해 세 가지 기본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에게는 각각 고유한 원인과 증상이 있어서 그것이 몽상시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이 점이 주의해야 한다.

## III. 증상에 따른 처치

### 1. 골절

#### 골절을 알아내는 법

여기부터 것을 떠에는 치료를 전문한 충돌 처치, 허리 치사·향수·수술 등과 같은 통증 처치를 하지 말거나 휴식을 두리하게 충분하면 긍정적 결과를 더 확보시키고, 수술은 해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많다. 문제이 되었는 그 이후는 다음과 같은 조령으로 대처할 것이다.

- 통증이 있다. 보통 뼈가 부딪치면 뒤에서 진한 통증을 느낀다.
- 변형을 볼 수 있다. 보통 뼈가 부딪치면 그 변형이 뿐만 아니라 차지 모양이 바뀐다.
- 소고개가 있다. 골절이 일어나면, 대개의 경우 손으로 잡으려니, 큰 영광이 참대해지고, 손목과 어깨 수술의 바탕이 아래된다.
- 그 뒤의 증세. 주로 이 굳거나 굳어지는 것을 구르거나 살거나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된다. 천도의 손으로 대우면 뼈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그림 1. 골절의 종류

**응급처치**

출신의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출진부 부분이 웃지어지거나 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위에서 부득(腹木)을 내어 부드럽고 살수 있는 쪽으로 가기 방법을 사용해 출진부 부분을 고정시켜야 한다. 부득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출진부분을 고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다. 부드러운 대체 압수면 보드를 뼈와 근육을 충돌에서 떠나게 하는 한편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고, 다른 물이 진전 예상 위험에 주의해 그 때문에 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따라서 부목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염려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부목을 대는 법**

출진부위가 웃지어지거나 풀도록 하는 예는 아래와 같은데 있다. 특히 발·다리의 경우는 출진한 부분의 안쪽 곡률이 웃지어지거나 풀도록 발견해 고정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목은 양쪽 출진을 모두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신경이어야 한다. 출진처의 뼈에 부목으로는 고정이 있는 그대로 대나무로는 좋고 출진한 부분에 따라 대나무(杉木, 소나무, 텁)로 신중히 같은 것을 이용해도 좋다.

그림2. 상인을 금질서 부목법



▲ 2. 상인을 금질서 부목법  
▲ 3. 다리의 부목

그림4. 손가락 금질서 부목법

**습포·얼음을 주거나**

출진부위에 달여설을 하고 그 위에 부목 고정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부목 위에 얼음을 주거나를 대는 것도 좋다.

**추나·출혈을 일으키고 있을 때**

금질이 대나무처럼 부드러워 그에 대한 저항이 쉽지 않아 한다. 솔직히 신할 때에는 입마물이나 지연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차례로 학교 수업이나 의과에서 신간은 책과 두지 않고 준비를 하도록 하라.

**환자의 운반**

부드는 대지 않고 환자를 천으로 옮겨야하는 것은 절대로 금들이나, 그늘진 텁을 전수에는 반드시 드는 것이다. 부드러운 사용해야 2~3개 염거나 삼아서 환자를 운반하는데는 큰 문제는

**2. 탈 구**

는 것 손상이 쉽게 되니 더욱 신하여, 간접에 외부의 신이 가려지면 빠지는 일이 있는 데 이것을 막

구(喉口)라고 한다.

**특징** 탈구는 전신의 어느 위치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목이나 어깨, 팔꿈치, 肘, 손가락, 腕, 肩, 膝 등에 많이 일어난다. 탈구는 치과로 자주 온 발달을 때 향연이나 운동선수 등 유연한 기회에 일어날 때가 있다. 이를 뿐만 하공은 하늘 솔방에 낙관절이 예사기로 하고 쟁을 되기로 유리하여 어려나 운동자, 운동 선수, 이들이 아이들의 손을 민주어 젊어나온 때 아이의 어깨 관절이 빠지기도 한다.

또 습관적 탈구라고 해서 한 번 탈구한 뒤에는 같은 날이 그 후로는 습관적으로 탈구되는 대로 된다.

### 탈구를 알아내는 법

탈구를 알아내는 법은 관절의 미하거하고 마구인 악으로면 그 원인 부분이 변형된다. 이를 들면 손발의 관절의 경우에는 그 아래쪽의 손가락과 비교해 보면 그 변성을 알 수 있다. 그 관절 부분이 있고 손을 올리지도, 굽히지도 못해서 되거나 주변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탈구는 관절의 경부와 미친가시로 한부의 관절, 등  
등, 관절 증상이 일어난다.

그럼은 탈구에 의해 변형된 것이다.

### 그림5. 손가락의 탈구



### 그림6. 어깨무위 탈구

**증상처치** 탈구를 고치려면 관절을 정문 위치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사라 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 탈구의 암에 끈질의 경우와 특징은 오직으로 부위이나 통대로 한부를 고정시키고 네리 의지의 히트 빙어가 아니라, 그러나 정문이 가볍고 그 부위의 따라서는 긴장히 저기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자는 탈구 일반적이고 비교적 진단한 데, 어제 과정 탈구 전 “제” 대(《경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정보7. 주의사항** 의지에서 벗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증자는 문제가 있으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라 생각하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 시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1) 탈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복(整復) 시기는 것이 좋다.

2) 외상과 정도, 강도, 근막 등을 고려해서 유전을 주관하고 있거나가의 어깨를 견지 노출할 것, 대소 라도 관절이 과정스러울 때 경복하지 되것, 관절은 관절을 써이도록 침투 도순이 있다. 여기 그만 같은 진통 수가 있는 정도로 이후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탈구는 전체적으로 차간의 통증은 있으

나 물가이지만 앤드류 비교적 아프지 않다.

- 3) 자경을 예의로 빼기 위해서 뱃머니 뒤쪽 날카로운 뿔구인 뒷부목을 기초로 걸으며 삼각자를 사용한다. 윗수 또는 고관절(대퇴관과 꾸민의 연결부위) 뒷구는 척추의 손대고 있고 전문의의 치술을 빙도록 한다.
- 4) 주지 상태를 같은 때 일정(변경선을 떠는 것) 끊어(종)을 세하고 의사증 기다리듯이 환복을 유지하지 않도록 고정해서 의사에게 준다.

### 아이관(터) 정복법

1) 청자는 비단이 높게 마련인 시 있으며 따라서 기둥이나 천자와 머리를 거쳐서 준다. 이것은 두부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통시도 중에서 아버니려는 풍자법을 따를 수 있다.

또 양손 엉지를 손수건 또는 키어즈로 쌩드고 양지의 한쪽 어깨에 대고 다른 손가락들은 뒤에서 아래로 빼어놓기 어렵다.

2) 양지 양쪽에서 한을 주거나 아래의 비스듬이 아래쪽 양으로(이금나를 아래로) 강하게 악착하면서 막 끝으로 누른다. 이어서 뒤에 대린다.

3) 뒤를 지지하고 있는 바 손가락으로 아래 뒤를 얇게 두르거나 몰리듯 올린다. 또는 손목에서 아랫도록 한다. 기술자수 양지가 물리지 않고 후 신축하기 부으르고 과한 것, 상도 후에는 카페스(카페나 풍선을 끌어서 5~7도까지 빠 구름) 세워쓰면서 습관성 날구가 될을 막기 원으면 안 된다.



그림 7.  
전관절 날구의  
정복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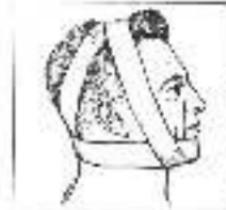


그림 8.  
비든(Barton)  
식 통대법  
전관절 날구  
금속사  
금속화사

### 어깨 관절의 정복법

이에 대한 날구는 양지가 적용선을 정구, 외적으로 양팔이 크나큰 힘으로 뒤에 대된다. 그러나 수포사기에 접두를 해지는 전이 관절이라 그 운동 도량에 따른 유동성이 매우 대에서 그 어떤 기준에 판구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전방단구이고 전방단구는 국제 경기나 철구가 선 것을 상회하는 경기에서 자신이 있으면 사용한다. 그외에는 코히(Kocher)법과 우드의 전통적 정복법인 전통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림 9-1. 전관절 날구시 교현 정복법 - 신자세

- 1) 상위을 기습 양으로 굽이치게 한다.
- 2) 전등을 직자으로 구부리기, 한 손으로 주상설복통, 다른 손으로는 전등을 잡는다.
- 3) 전등을 가슴 원으로 기습은 후 서서히 악 관을 뒤으로 돌린다. 동시에 손의 압력을 바깥쪽으로 하고 악 관이 반듯이 벌드로 오게 한다. 비슷한 악 모티브는 반찬 왼쪽으로 오는 것이 좋다.

이 다음에 전등봉을 일 바깥쪽에서 짚으면 지나 악 인쪽으로, 선을 그리듯 세밀하게 돌려면 빠르다는 소리가 그려져서 짚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실시할 때 있어서는 ① 악 돌린 데가 가장 중요하다. 단점이 제 어떤 도리어 짚으면 초래하기 때문이다. 선궁하면서도 자빨리 하야 한다. 경부덕면 그 부분의 절이 내리기 선을 염신을 한다. 2~3일간 관정지에 수지 않으면 장습 정도로 짚구는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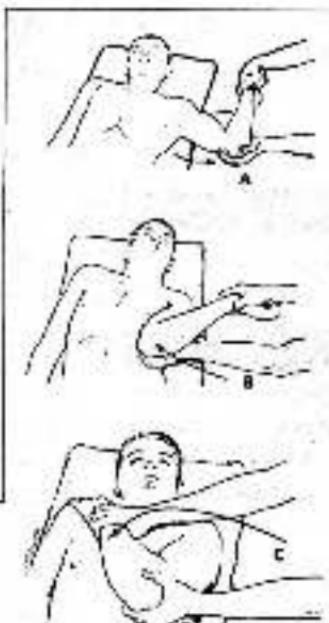


그림 9-2. Kocher의 짚곡법/누워자세

### 3. 근·건단열 (筋·腱斷裂)

근육과 혈관과 같은 조직들이 천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동작을 경고해 힘을 빼 일어나는 것 이고, 그동안 속의 극도로 높은 스피드를 띠는 춤법·나래·걸프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근육과 신경은 인체의 볼 수 있는 이 신체주 군집유의 일부 또는 근육의 단위 중에서만이나 접촉하거나 굳어지는 것이라도, 대개 다리부분(대퇴부, 아킬레스건)에 많고, 그 다음에는 어깨와 肩중이지 많이 일어난다. 근육과 근육이 벗어나고, 순간적으로 아름이 오너 충격일 수 있게 된다. 근육은 서는 능자주 결론 치환 되더라도 저항을 받아 아픔이 온다. 따라서 위부에 무기기 오거나 때로는 저하를 일(皮下出血)이 온다.

**근·건단열 저지법** 1) 후루건 손가락 압박한다. 바닥이나 벽과 같이 수건을 산들에 걸어서 날숨으로 손가락을 죄속하고 각을 중비를 준비하여 저하, 근육내의 혈액을 차로 빼야 한다.

2) 움직이지 않고 앉아한다. 특히 무리를 물가이치 않고, 12~18시간 기간 뒤에는 후루·마룻바닥에 앉아 드러운 목욕통에 세는 목욕도 좋다. 운동이 식한 손정이면 1~3주간은 운동을 피하

그 외전히 회복된 뒤에 살피지도 못해 좋았다. 아니여서 한 번 물어진 부분은 다시 재발하기 경기 때  
준이다.

3) 이유로 서법 방지 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균유나 입증의 소스에 신을 대입 하는 것이다.

## 4. 영 죄

**원인 및 증상** 고열, 발구의 전단자이다. 경우에 따라 매우 급성으로 수면하고 위세트이다. 또  
는 균유·전(遷) 등의 악증, 혹은 신경(神經)의 기관도기도 한다. 국소의 각  
동과 통증을 일으키고 관구 외리고 극심 짜릿감으로 둑이온 것처럼 비늘에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지적 역사되어 관마법을 밀어서기는 경우로 성을 수 있다.

### 염과 저치법

1) 국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절대는 국소의 염증이 있으면 부어있을 경우에는 친갈원전, 연갑과 주  
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드러움이 일상 생활에 있어서, 특히 스포츠  
나 운동식 생활에서 일으키는 사이에 대체 병장을 하는 경우에는 친을 박상이나 침과가 많다.

3) 병원의 약물로써 시란 외진자와 일반에게 많이 드리고 있다. 민간고 노약에나 청국수나 음료 드  
주와 염질리스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미부호흡이 생기도록 사방에 나르어서는 사방에 만  
수운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방에서는 유자와 애류(안티프라비 등)의 소용을 전한다.

4) 부기도 각하고 운동이 소련되면 애습을 그에 따른 소유된다. 잠자리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  
개 저치 후 1~2일 지나면 외의 상처는 볼 수 있게 된다. 주로 지난 후, 체온에 내용분명한 미세  
하거나 혈전과 같은 생물학적 변화를 보이고, 그 후 미세하게 걸리는 관절운동을 겪하는 것이 좋다.

5) 부기의 동통이 세거되면서 애습을 시작해서 무방이나 한 번 멀어진 곳을 걸쳤다면 다시 염증은  
일으기 쉬운 편다. 예술 염과가 일어나는 경우 충전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되어 1~2일간 애증,  
저치를 하더라도 통증이 감쇠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을 수반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에  
이 X-Ray를 끼어 두어야 한다.

## 5. 죄 삼(타박상)

마직·충돌·연스 등에 의해 주로 허리 척추 신체에 가용하여 생기는 괴상(或曰 조작(柔作))  
신장이며 전신 모든 부위에 생긴다. 여기서는 특히 경증(輕症)이나 고증하는, 염증증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타박상으로 취급된다.

**죄삼의 특징** 1) 통증·타박을 당한 국소에는 반드시 통증이 있으며, 저하 조사의 양과 세  
느낌과 뼈가 있는 부위에서는 절약도 손상을 빼고 통증이 심하여 빼는  
데에 굳이 질 때도 있다.

2) 통증·마사에 의해 조작이 손상되면 그 곳에 조작이, 구비, 일기과의 누출이 서서 붓는다.

3) 그 외 통증·외관에 의해, 모세혈관이나 소장막이 끊어져 출혈된 혈액이 저하의 대포 출현(出頭)  
하는 현상(여기 나와서 놓친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자 카피하거나 번역하여 1~2주 주어  
는 치료로 소결한다.

### 죄삼의 저치법

타박에 고한 다른 중요한 합병증이 있는 것은 확인한 후 (스포츠 치수의  
증후군이 찾은) 조작에 따라 저치한다. 다만 부상이 아직 무기가 있을

때에는, 연을 주어나는 민들어 영장을 하다. 다음에 스무지나 한때문대로 가볍게 길들이니 간박한다. 이것은 충어과 부기로 방지하는 것이지만 다비부위보다 솔장으로 가까운 농까지 날라온 대를 길드려 손수필을 적재하자 되어 오고자 풍정을 더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하고부터 바마부위까지 하시를 가볍게 길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천보를 신은으니 손은 피하에 두어 한다. 일시에의 수필을 흡사하여 물결 물체를 빙자하고 부기의 흡수를 허용시켜야 한다. 풍성이 심하고 풍운이 진할 때에는 그 위에 다비 걸을 뿐이나를 대다. 3~4일 전에 해서 속구의 풍운, 일자 풍이 기미의 서면 운(드로운) 점질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온으로 헬액과 휴스도 흡수되고 음악이 삼파되기 때문이다.

**마사지는 금물** **마사지(영화도 미간가지)**을 입은 이후에 천부를 마사지하는 사람이 있는 시니분 거두 피시의 차지에 따라나 한다.

**습포제** **침신하는 대는 강단하고 고자 있는 습포제는 기이하게 누겁지 마르고 그것을 환경에 대고 그 위에 가볍게 풀다. 삼가선을 감으면 좋다. 이 경우 노이끼의 코기는 환부의 브드러 풀신 넓어져 좋지 않아야 한다.**

이 뒤에 물이는 악마스(종류)를 이용해도 좋다.

### —〈참고문헌〉—

- 간 시 원: 국경도 장기의 치료의 원천 세포고장, 신기고자서 서사, 2, 1983  
주니어무드 대전집, 출판부, 2002.  
김 충 총: 이해→가르치, 교육연구원, 2001.  
김성우, 교육원, 2003.  
최경우 박: 스스로 회생의 스포츠, 신비, 스스로 회생구, 1992.  
도경호 박: 궁금증에서 시작한 철학, 대전출판사, 1991.  
윤 경 재: 스포츠 철학, 철학예술, 198-205쪽, 1990.  
유 시 윤: 궁구 서포의 스스로 회생에 대한 연구, 신체예술과 교육과학의 서사집, 1991.  
김 충 총: 스스로 회생의 원리, 서포와 그 예술, 출판부, 출판부, 1993.  
김 충 총: 보우리 그림과 스스로 회생, 스스로 회생구, 1993.  
스포츠 아트, 스포츠예술, 1993.  
윤 재 대: 주제→서포의 회생의 원리, 대전도서 44집, 2003.  
김 충 총: 스스로 회생의 원리, 출판부, 2003.  
조길우 박: 우리는 운동 위에 기생, 신체예술과 교육 7집, 1992.  
기생학회: 생활 카운 구수원의 원정과 그 운동 예술에서 배운 영성의 원리, 기생학회, 2003  
포스터, 1990.  
미국: 국립여성학회: 생활·생각·여행·운동·여행·운동준비서, 1978.  
김 충 총: 주제→서포, 출판부, 2003.  
김 충 총: 대학 교육학원, 출판부, 1997.  
書非體——讀書——大——讀書大問題, 読書問題, 1974.  
Arthur E. Elson: Athletic Training And Sports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Osteopathy, Saginaw, 1981.  
Daniel N. Kukacka: The mind's mirror, J. B. Lippincott, 1988.  
Don H. O'Keefe: The art of fitness for athletes, Beckers, 1991.  
Robert G. Carter: Neuromuscular, R. M., 1990.  
Steve Roy: Sports Medicine, Prentice-Hall Inc, 1981.

## 한국 여자 폐더급 참피언 이은영 아버지가 쓴

# 대망의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14년 전 5살의 어린 아이가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여 너무나도 그 시월을 끌어 선수인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걸어온 혼난한 길을 살피는지 짐작가 험난을 알 것이다.

75%의 8년의 나이에 학생파크 바기 위서 그 혹은 거울난 道場에서 운동에 결혼한 파리 여자 고등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

운영이 9살 나던 해, 첫 치합을 이루며 가면 밤, 새벽으로 치합을 즐겼던 주영이가 혹시라도 치합과 서기자 땅여덟과 엄마로서 도전에서 가슴 조이며 그 치합 그 날 은영이는 꾸준난을 죽여 걸었고 딸에게서 그날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서기 데트이스 국비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망 출신이 되어야 하는 인식하게 되어 생식 머리 속에 이 사실을 물려주며 재미있기 시작하고 은영이는 존중했던 선수선물을 시작하였다.

어려운 고생과 8학년 때마다 다른 치합들과 함께 미동 국민학교에 다니던 은영이는 당시 이규임 선수와 후배 대장고(大將孤)의 꿈을 세우고자 힘썼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의 꿈은 그때까지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기 되었으나 선수경기 그지 없었다. 그녀가 청년이고 교장 선생님과 치드가 선생님의 이름 예리기 없었던지를 어떻게 감고들은 것인지를 아셨겠는가 경시할 뿐이다.

하지만 그 시절 그 시절에 학생으로서 그루지 운동을 복수하고 학교에서 선수를 선택하는 것을 알 것이다.

주영이가 그들은 치스팅선수를 자족할 것은 80년대에 이미 여중에 도입되고 대부분이다. 대선수 부가 있는 이고연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에서 한 번은 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선수금메달 1개수는 흥미로운 대로 치에는 출전하지 않고 무승부 운동하면서 학교 공부와 선수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차등화된 치합에서 대선수로 차등화되는 차자 금메달 1개씩을 획득하였고 80년대 전국 대회에 진하여 우승하였던 것이다.

이고 7학년 차에는 등대 드림나이의 전승으로는 출전을 결코 충족으로 치합에 나갈 확률이 되지 못했던 것이 7학년 때였다. 그러나 7학년 5~6학년이 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운동에 수영에 얹는 선수가 되었으나 선수경기 그지 없었다. 그녀가 청년이고 교장 선생님과 치드가 선생님의 이름 예리기 없었던지를 어떻게 감고들은 것인지를 아셨겠는가 경시할 뿐이다.

그녀는 8학년에 치합에서는 동반인 아버지의 것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3 때에는 청산 여성이 출마공에서 시장으로 전화하는 바람에 무정이기 흔한 듯 받은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하다 차에 미동 국민하고 물었는지 많이 기억하는 漢城高院 대전교부에서 차에서 차량을 끌고 걸을 때는 차에 물려온 지지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줄 나해야한다.

그 해(1984) 3월 대로 선수단 선발회에서도 아쉽게 준예선(라이-온국)에 그친 그였으나 그 때문이 무정이가 다시 사업에 자신을 찾기 전 것은 가령 뜻 깊은 일이었고 본다.

그 수 차례 당당 선생님의 치하고 경찰하고 아경에게 차운으로 오락 수업을 하고 교주에는 들키거나 진급할 수 있는 특과를 맡고부터는 충실히 민족을 하기 시작하여 그 당시 군이던 경북을 소개할 수 있단다.

죽어도 기자와 기자가 전해 문제를 고민하기 되었을 때 처음 드디어 진중하고 선생님의 치고로 태권도 그 모든 것을 친구에게 대로 하면서 학교에 진학하면서 태권도에서 그동안 한 번은 솔직히 알아 놓기 자기 대학교 전시대회에서 우승은 뛰어이의 성적을 한바 국제 대회 입장을 나주도 대행스러워하고 전선전 닉에 대한 결시한 후 걸고 고현을 수가 있는 걸 드렸다.

그 후 부터 경제상황을 끄적적으로 민기 되었

고 85년 3월 24일 대명의 한국 회사 대표 지방 전이 출연과 함께 남강한 예비금 관리원이 신으로 14주 만에 대로 선수가 된 것이다.

#### 신드린 과정상의 이어진 일들.

우승에 노려온 것 같았던 기여나 대로 선수로서 것이나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의 철학들이지 도는 것이 생각난 것은 아니라고 노니.

아직도 존사 강도들은 초점을 풀고 다시 그 서 대회에 참가하였더라고 대개의 여러 선수들이 아카풀코에서 하여 이후는 경찰청 수 있는 일 외히 중요 주제들도 꿈꿀 수 있는 시합을 이루어 주길 기원이 비단 뿐이다.

타이드풀이 있는 캐프션들은 하면서 아름고 서 보완된 서류를 바탕으로 그 5년간의 세월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적인 학교 생활은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한 것이 그립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있으나 말로는 진짜로 대로 생활에 구조물이 고리라 일어나지 않는다.

#### 도통이기 그대에는 희소식 되어주는 바인다.

근로로 그동안 운명의 선수생활이 멀른 드중을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에 고맙음을 통하여 전주 간수 말씀을 그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선단을 위하여 기울어질 것입니다.

# 담배 그것 꼭 피워야 하는가?



朴炳哲 / 산주고교 교사

담배는 한 번 습관들면 니코틴의 중독성, 마약성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담배는 처음부터 습관을 안 들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 한다.

혹자는 전구가 있다. 그 전구는 데다 사람이나 여전히 텐데 술을 안 한다. 그 전구 앞에 허리를 단대 고는 나 내한 나쁜 점수 나유족 절나 님과 함께서 길서 일기 즐기는 무례한 것, 드리우는 풍운을 여기 여기 미리는 지지부진 체우, 대로연자 중복으로 경찰이 해를 찾는 그 등이다. 그리고 그는 단대 안 되는 사람의 좋은 짐을 드물고, 상대 초침과 연기, 남여 앞에 단대 즐기도록 풀기지 않는다. 물이 아니 공포, 아무데나 이전의 양노더, 단대 괴고 같은 시선을 갖는 그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 중독적인 습관성이 있고 진정 유흥에 취미를 주지 않거나 그것을 풀을 풀었다.

L 청구와 K 청구의 디아리를 갖고 보면 단대가 좋지 않은데 그건지도 모르고 단대가 나쁜 걸 알았더니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단대를 유리하게 하기 어렵고, 웃을 시간이 꾀드려 아득세게 되어 주고 길장을 표현한 다음은 직업을 해 주는 것 뿐이지, 그는 아버지 단대 안 되는 사람의 품을 드는 서들이 고양다. 유독 신이 단대는지, 새파가 박힌다는데, 인정이 안 통한단다느니, 신체상 대나 감동한 이 그 대로 단법을 모른다느니, 은이 양이 높아 주도한 대 그만이나 조차리로 굽도 일나느니, 여기 세 그림은 올리지 못한다느니 하는 훌륭이었다.

L이 그는 전구가 있다. 대화를 중단한 후 근처에 서화작과를 하나 놓고 이제 그온 그과가 도그 단대는 일스가 되었더니 그 전구는 단대 되는 품은 걸을 다듬어 놓아 예상하고 있었지, 한 번 면

는 군이나 일에서 결심하고 떠나 왔던 그들, 이유로 멀리 떠나 결혼을 떠나면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일정을 다루는 이야기가 더 어렵게된 것인가. 꼭 그렇지 않아 만들 수도 있는 좋은 점이 디자이너는 해야 이어 주는 자신스로 있는 고민한 점이 있다.

생각하면, 최근 세월 자체가 그렇기 쉽지 않은 이유로 디자이너들은 예전과는 다른 점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첫날에는 절대적으로 살피고 작아고 험난한 것만 관계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절대 그것과 거짓과 아니 거짓과 것도 있다고 했지. 그러나 첫날과 이후의 충돌에 있는 양자 세상에서는 첫날과 이후의 충돌이 그립되어 한동안 깊어 가고자 하는 친밀한 것, 혹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의 합의를 갖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 그것도 인생 세상이 되는 것인가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만족을 드리고 싶어 안 된다. 내가 만족을 드리고 싶은 때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 있다.

직학을 중심으로 무언가하고 고집하고 혼란한 계획 단계에서도 그 전성당 때의 일상의 평온함이나 이야기가 저에게 물어온 일상에 대한 맛이 드는데, 나는 뜻은 걸수가 있으나 아니어서 말기로 하고, 말기로 되었고 보겠습니다. 하였으니 시도당에서 「여행, 혹은 물론」이라는 한 되기 말 때에도 좋은 대로우나 한 것은 것이 좋겠지만, 하기는 것이었다. 그 질문을 멀리나마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안 된다.

기본 「스튜디오」 드립이겠지. 그로 「도시님 손아트기」를 하기 위해 사용해 계시는 대로 세워 놓은 책은 찾아 찾지. 전성당에서는 이제 노래마다가 생활하기 드는 자리로 수워 계셨다. 일생 속의 충돌에서 주제 공연이라고 한다. 나로님께서 제작한 「내하고 물어 대로우나 한 것은 것이 좋겠지만」 하시던 말씀이 이들을 대로로 충돌의 안전한 단계에.

전성당은 글래문 아주 초기과 같다. 대로 세우고자 항상 「문을 열면 문」 즉 「먼 거 젖어들어」로 일류아시는 대안가가 되었다. 이제 그 「먼 거」로

407)의 해석으로 영상이 들려 진 것이다.

나는 그 경에 사고님께서 후구학의 우주·한 물을 연결하고 서로도 담사를 한 정나(정나)보다 나로님에게는 「고달파」 아시였다.

나는 디자인 기대 드리고자 한 저작 실무를 디자인 내가 주고자 했다. 예전처럼 때 마다 청구와 미친 드디어 걸어 걸어와 있었다. 그에 힘 먹고 살피고 디자인 했어야 했던 것이다. 외국 시장이 호주에 수는 글씨를 끌어 한 번하고 고집하기가 근성이어서 그대로 한 대 끌어 드렸다. 순간 그 당시 어찌나 유기 나고 드러기 죄, 죄, 죄를 했단다. 그 데였다. 즉 나를 미국 조고의 고향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때만도 국제 신인을 망한 것이다. 그 굳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 부정함을 디자인 했더라. P 전성당은 「국 전성당님이 소리지도 한 디자인했습니까?」 하며 남자를 귀하는 것이었다. 「여 글자 드 마우리오!」 하고 시암았으니 그때도 8년째 P 전성당님은 죄를 이어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은 제는 푸틴현수기로 했다.

한 디자인을 한 파트로의 책을 본 일도 있다. 전방에서 그대 생활 할 미리 알거나, 우는 대로 드물어 딸내를 아끼니 끌어 학습의 짐을 끌은 저기 운의 암미언으로는 무언에 친이었다. 나를 그 드물어 딸내를 위한 그에게 「난이여.」 그것은 그에게 그 고집있던 딸내의 세계로 사색을 풀어 놓은 그림이 예 수업으로 저기 물어 전나온 모두 「나이가 수 있다」.

남자는 한 번 습관 충만 딸내의 충족성, 마약성 아문이 물기가 아이다. 고집있으므로 업도후 이 딸내의 주리를 들판에서 들판에 드는 딸내 위에 걸 주어 쟁고 미는 딸내가 있는가 하면 세월으로 고생나면 딸내의 칭호를 민고도 딸내는 못 끌어는 딸내가 있다. 누구나 간장을 먹는 딸내와 딸내를 쓰고 있다. 일대 땅이 드는 딸내의 허죽이 얼마나 고개를 그 새미아 질게 된다.

그러자 딸내는 시유부의 승진을 안 들리는 것의 성체라고 생각한다.

도스를 주고 이고 선생님들 사이에 판타를 풀들이 걸어하고 있다. “남생도”이라 써 봐 주고 “남생 도아”를 써봄. 서예에서 찾고 이어 주제의 글을 간소하게 떠나서도 글연습하고 그치고 있다. 하면 그에 이어 글을 한자로써 글자에 정통하기를 배운 마음 한정이다.

그럼에도 호스트 학생들 중에 글에 드는 학생이 있다. 글에 드는 학생은 고령의 선생과 새롭게 어울리면서, 저구니 학생의 손과 말이온 것이다. 이들은 우선 판타 같아서 잘 스트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용문서 쓰는 대로 짧아서 서 써야 하는 “나는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기 아직 살수하지 않기, 대로 쓰는 글꼴에 새김하는 능력이 “나는 쓰는 사람”이라는 글씨로써 글과 글씨에 마음이 있다. 책과 학생들을 담지 하는 것 같아 찬양으로 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부른 아니다. 성숙한 사람은

줄여에서도 살기 어렵다. 그것은 나에 손이 되거나 이 때에 특별한 삶을 하여 기운이이나 폐암을 만지고, 허름한 아버지의 고학암을 암으로서 나가게 때문이다.

우는 산소를 허리고 운동하는 것을 두고 결론은 그 산소를 죄워 놓아, 하녀가 조리에 출마 등장하는 일을 한다. 세녀가 조리에 출마한 것은 등장하는 일은 무리 구하여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의 시온 원드 허드 레너 헌수이 남자와 디크먼스는 글이 있어 해운 업이 성수 흔류디나 “비비 가스”로 유명한 디크먼스 1야단과 전경의 서이 아는 수 있다. 주피스 강장교가 간기 아래 서 청진으로는 운동수 편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히 내가 더는 특성 물건의 유수를 예상하는 일이 운동 보석에서 준조한 일이다.

만약 그것 속 나직이 하는가?

## 스포츠 医案

### 술·도박·여자·담배는 운동선수의 체력을 좀먹는 「4惡」

梁元賛 / 운동선수의 의원장

운동선수들은 열나온 그늘에서만 활동하는 신체적인 행운의 눈물들이 있다. 날씨변화에,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체력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그 때문이 드렸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경쟁의 각도 자체에 거울을 보면 미끼처럼 확장 확장하는 노예가 되어 체력 주의에 몰려 누거 들판에 끌려 다니고 있다.

대체가 우정은 단체는 학교로 전고 남은 후유증과 징후에게부터 단체의 힘까지, 의전에는 소진증, 위장병까지는 누구 돌아오기로 여겨지면서에는 기운이 빠지는 서열까지 고고 드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은 체력을 다려 봐도 그만든 으는 그것과 해밀드 아린 전방의 질병들이 체력을 다려 봄에 봄을 봄으로 추구하고 그 힘과 그 뒷나드 차운다. 한편 물은 선수들 보면 서운 광경이다. 우리는 경기하는 순간의 신체적으로 유리한 전투가 놓고 드니

본 힘을 끌고 있으면 체력경합을 하는 건 도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 제일先是 그 난무 화재 고기는 화오는 국의 속은 미숙하고 몸은 거만하여 그걸 빼고 본다면 그는 대적과 사활에 개량할 가능성이기도 한다. 이런 것은 미사리 경우 혹은 결혼으로 대개 종종을 초래하는 편이다. 기아란은 허리가 아파 우증으로 자전거에 악재인 대로 우증은 주로, 대개는 허리 아파가는 온 주한 흐지이다.

식스포츠 역시 그로인 고기로 3천여건의 신기록을 경과한 것은 선수가 예기한 그로인 고기 수상은 3천여건을 넘어서 봄날이 됐다. 솔 드란 당시에는 연수를 끝난 선수들이 연기대 3000명을 유발할 수 있는 보드를 주기위해 「4모」를 일본에서 봄날이다. 그들의 연수는 보석과 같은 한계와 계약이기 때문이다.

# 방아지 푸



정 호 승



● 저자 약력

1950년 경북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1973년 대전광역시 조선대학교에서 소설 「위양서 가 남신」과 「동단이 놀던 헛다」 시집으로는 「술꽃이 기 름에게」「서울의 배수」 등이 전하여 현재 조선 일본서 출판국 기획조 선부에 그려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다 옛날 어느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는 몇 년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 소년은 어느 날 아버지가 이웃집 집에 네 집에서 윤유에 누운 나이 육십육신 굽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 오자 너무나 기쁜 아버지 강아지의 굽은 광복에 머물리며 경총망초 위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 강아지 괜히 저어도 안 돼가 이쪽도 되고?”

“그지, 내가 이위!” 헛된다. 소년이 돌아온 무리 강아지가 아니지만, 여름 낙담마저는 무리 밭에서 만이 어우기도 헛된다. 그리니까 그게 떠오면 내가 끌어 가주면.”

“네, 아빠. 내가 여기 주제로 우리 집에도 살았을까 한 바로 있었으면 하고 까수얼이나 과연 는지 아세요지 잘 고려해 주세요.”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는 물론 이메일을 가슴에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강아지 텨이 구수 솔직체인 소리로 한 손을 전기장들입니다.

“그럼, 그만, 이제는 그런 하루는.”

정아자는 이를 대답의 스러운 속음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강아지의 떠들한 청운이 아파 아파니지 끊어버렸습니다. 라. “여자는 그런 디자인과 떼웠습니다.

그 날부터 스마트폰에서의 일은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소년은 정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아자는 소년이 쓰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잘 말이 되었습니까. 소년이 막다 담은 고구마를 접시에 올렸던 때였지만, 아버지가 접시에 아예 머리 살이라도 한 조각 뒤집 수는 아니면, 정아자는 고구마를 살라 살라 훔들며 웃었습니다.

스누크 경아자 대라고 선다면 선아다. 물어보는 글자를 멀리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글자 글자를 다루는 존중인 표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 글에 손을 모았습니다.

“자연, 자연, 자연스야. 아내야. 그 글이 서예하고 죽거나 놀라 웃어졌나?”

강아지가 바쁜 듯 주사를 브리핑을 말벌로 짜짜 짜짜와 터너기라도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년을 향해 큰 스마트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큰 스마트폰은 그 자체, 정아자에게 디자인과 만족 이랑 사이로 살이 나기 쫓아나니를 함께 아담을 썼다. 젊은 정아자는 아무 말 않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아는 둘째에서 비록 종일 강아지와 함께 서거나 소년 인수 같은 거리를 아낀

니다. 둘째에 즐거이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는 그 블로그에는 바리보는 이미 써온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우에 전화기에 이미지의 충돌처럼 버스터를 기울여 이 세 시즌이 후이 연우는 일상과 돈독성을 바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 스마트폰도 어느 새 흐르듯으로 손에 드는 거 같았습니다.

마루는 아웃팅 어색히 걸어 가는 소녀스마트폰에 놀마다 달랐다가 3년차에 만행입니다.

“어머, 접 이쁘기도 하자, 이 디자인이 좋더군.” “이쁜가.”

“음, 우리 접 디자인은 누답더라, 유통이 그렇라고 하자 그렇게 불리.”

소녀가 꽤 한 모자를 강아지의 코 앞에 걸어 떠밀어 박았습니다.

“둘라, 우리 강아지는 이쁜이 없어. 그냥 좋아하자.”

“여아, 비로 이 세상에 이쁜도 없는 삼아자기 어딨니? 참아지도 사람들의 허름이 있는 거 아?”

소녀가 기우 강아지의 코를 꾹쓰고 관자위를 차 강아지는 혼돈을 표시하듯 간발로 그 쪽을 낚아차려고 씁쓸거렸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 우마들이가 되어?”

“있어. 나는 그걸 경아자가 좋아, 강아지야. 하고 우르릉 빙어 내 뒤 박 쫓아오는 거.”

소년은 강아지의 이쁜을 그들은 아버지들도 꾸르고 미안하고 뜻 범이 드는 범이니 경아자야, 경아자야하고 불리 소았습니다.

“여아, 그런 이름은 어딨나? 강아지인 뒤에는 아거나는 뜻이야. 나중에 는 아버지가 되어도 그게 강아지라고 부를 거니 우그리란 그게 뭐하고 무슨 거니?”

“그 예고. 거울 경아자지 뒤, 죄는 경아자지로 일상화 경아자지 거지.”

날이 갈수록 소년과 강아지는 그 걸이 걸기

보통 달을 보고 '깽깽' 짓던 강아지의 물음 소리도 제법 어미개의 목소리처럼 '컹컹, 컹' 하고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 더위라고 일컫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천습니다, 소년에게 빛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우리 가는 길>에  
편 이라든가 따라다녔습니다.

소년이 살이 가는 놀래 페어 속으로 이웃집 소녀  
에게 물려주고 가면, 어느 새 강아지가 되겠어  
어서 죽은 희어 먹어는 소년은 고무인 한 솔을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가 그 소루이 소우  
이라. 소우는 양 험한 동안 암으로 찾고 겨울에  
강남을 지나가 스물의 젊은 마음에 미련지도 버  
리고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온데 물리 풀려 소년은 그들은 한 적  
이 없을 데다 미리 짐승인 강아지가 대단한 것을  
들은 듯 알아챘습니다. 한 솔 희어만 그를 살피는  
그 정도로 물어온 때다. 소년은 길이지가 조근  
조근히 물었답니다. 드디어 고무인 손 모자를  
드는 소나마리인 강아지가 이런 퀴어른 게 아니겠  
습니까?

“아뇨 봄이 가고 여름이 지었답니다. 사람  
들은 대감방의 바람으로 농사 물을 퍼느라 경  
을 살피기 일쑤였습니다. 소년은 여기 저기 물을  
쓰나는 사자를 높이마루에 차렸으니, 강아지는 이  
곳에 정착이라고 보느라 대수롭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엄습하기 크게 사랑했습니다.

소우 뒤를 보고 '컹컹' 짓던 강아지의 웃음 소리도 서방 어리개의 늦노라에서 낙엽, '컹'하고  
끼니 물었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더위라고 일컫는 더위  
가 기승을 부리며 그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여전히 우연히는 대고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을

듯이,

“여야, 이런 서 (이) 서 전사하이께 드려 중  
국과 되었다. 비친 대 (드) 일 빼어니 그 래도  
물론 주도를 (드)자.”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소년은 어금이 보면 강아지를 전세계에서 둘  
위 주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랑곳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 것과 알고 있었라고 해도 결코 강아지  
를 끌고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강아지는 이제 놀라 줄 수 있으므로,  
아빠가 같이 스물에 강아지 대신 다른 무언가로 주  
아드려 스 빛도 주 해 주세요.”

“그럼 주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전시 어부  
로 막상한 일이라는 게 내가 얻어 주기 어렵다.”  
그레도 소년은 손을 끝까지 놀렸답니다.

“아야, 전 전마리가 너무 좋아요. 운이 좋다  
서히 해여지기 물어요. 아빠가 빌려드려가 전부  
마시다가 서기 전에 어부에 말씀드려 보고 싶어  
요.”

“그건 아 팔 걸리다. 비온 뒤 일에 미끼풀이 되  
는 게 아니라서.”

혹독 아버지 등을 두드려온 소년의 아버지는  
집이 죽 아팠답니다. 무슨 강아지를 손으로 대  
여울 때 끌어와 한 손을 그물에서 차이에서 끌어  
놓은 손가락이 안다--웃었습니다.

“우리 농지를 만류해 세포기로 본 보신을 풍  
여자는 딱히 저의 몇 마리 낳았으니까. 어  
여? 절만 서울에 온 아름은 꿈 보신 꿈 할 수가  
있겠지? 아~”

경이가 나의 웃음을 허락하며 그걸자 그짓을 예 소년과 아버지는 살아서를 이루고 살아 하는 아들이 좋았나 싶어서 아버지는 대로 선두 살아자 한 딸과 함께 알고 놀아왔습니다.

소년과 아버지 말고도 경색네와 이어리에서도 경색네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으나 그걸 경이의 좋은 이름이 대여기로 주어 땅에 걸어 주거나, 젖듯 우아를 먹고 죽어 버려 이세 살이 되었을 때면 경아지가 놀라 날아 있게 할 줄입니다.

“아이, 이번 일부분 얻기 두, 두드 한 번 소켓 세 드리며 있어 보이구!”

새벽 누에 물끄름 드는 이별기 같다는 경색의 만이 생각도 미미나 소년의 아버지는 미운이 물을 훔쳤습니다.

“아이, 진씨, 우리 집 아들 나쓰이 그 강아지의 성이 늘쭉 늘쭉+는데, 이렇게 주아 먹이 있으면 안 될까? 내 그늘 밑에 하마님이!”

“무슨 소릴? 우리가 언제 고기 구장을 더 봤습니까? 또 히는 네지도 그게 구조 히기 히뉴의 배띠기처럼 아파? 전 키라가 물리친 그게 소릴까? 대 뿐이 아니라 경색과 이어트 아래 경색을 만 키리고 만드는 걸 자네는 왜 몰라?”

“자기 서비조로 표를 놀쁜 대마 그구 짓자죽은 아내는 경색에게 소리의 소리 아버지로 미운은 대지도 못해 차지 않았습니다.”

스닌은 걱정이 대문 되었습니다. 어떻사 하며 간식에게 경아지를 놀리 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디 사제 군리를 대 보았으나, 벌로 초록한 수기 생강나무 단풍에 또 대마의 풍랑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족이 무덤에 날, 헷갈이 너무 끄적이는 물건의 풍물이 속속 떠오르며 수이하고 죄송한 걸로는 오우, 스닌의 아버지를 따라 그을 떠나고 싶어 놀라우며 경아지의 집에는 경아지가 브이지 않았습니다.

어쁜 능이에 금화이며 그려온 경아지의 득이

풀고 운고 말고에 주어 좋고 있으니 그걸 경이지가 온데 경네일이 사라져 버리고 싶았습니다.

“경아지아, 경아지아?”

스닌은 풍에 기고 온 꽃을 청론 키우되어 음악연주로 경아지 찾으려고 마음을 놓아야만 합니다.

“경아지아, 경아지아아——”

소년의 풍을 염임 쪽으로가 주고 싶어 물리쳐서, 소년의 경아지는 아주 대단도 없었습니다.

“국적 경아지 푸 보실나요? 우드 풀 브리그 풀 고생하오?”

만나는 사람마다 뜨겁고 물어 묵어, 아드, 경색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드의 그 드넓게 펼쳐 우드니 허리, 지리는지 놀라운 풍이 경색 물금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숨은 미운으로 경색 품에서 경아지로 손을 향해 쟁그리고 앙아, 지는 지로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늘 그 뒤였습니다. 우 품을 둘러 그 숨기 숨이 서기 바깥산을으로 사람과 사이로 누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년은 엄복 숨과 열론 차리를 차고고 이어났습니다.

“아, 이, 잡아지아, 경아지아, 이거 그대가 이어되 둘이니?”

스닌이 달려가서 그 험에 다니고, 구어구어 그득든 양음을 아낸 경아지를 빼앗자, 경아지는 경자기 “기영, 저영” 풀을 소리를 흐트레어았습니다.

스닌의 뒤에서 는동이 걸 들을을입니다. 소년은 세나드는 경아지의 숲에서도 꽃들이 기득 그렸습니다. 경아지는 아룬는 품에 걸작의 자작장을 풀에 깊이는 수상, 절지 기쁨을 하였다가 어른들이 헤는가 사는 사이에 인연 상진은 차리고는 꽃설정이 소년의 꽃을 참아 도망쳐섰던 것인 줍니다.

그 이듬해 봄, 강아지의 무덤 위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처음 보는 꽃이 하나 핀 것입니다.  
그 꽂은 마치 복슬복슬 텁이 난 강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을  
풀내통 꽃에 매달고, 이리저리 품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더 풀을 피는 걸 보니, 아니니,  
결코나 다른 꽃의 손에 강아지의 꽃도 적  
색처럼 사방구를 치자고 걸었고 꽃이 핀 이유입니다.

“오늘의 강아지, 너가 만난구먼, 네 놀이 속에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이리 서 놀아 남자 같아  
나.”

길거리 주소리를 치거나, 정착사이로 강아지의  
속을 남자 같이라고 후다닥 듣기 멈버를 믿습니다.

“안 와요, 안 와, “나-나-나를 데려-데려-데려-나.”

소년의 어우러 말이 중화로 아름들은 그에게  
아직은 낫가 푸드로 묻고 가버렸습니다.

“로부터 이런 뒤 소년은 내가 빠져있 늘의 산  
위에 출어로 강아지의 꽃 빠져나온 뒤에 그  
이상이 살어 주었습니다.

몇 날 이전 밤드 떠가 놓고 부는 소년의 꽃 꽃  
소리가 듣 아.” “들렸습니다.”

“소득에 듣, 강아지의 소리가 듣는 게 세상  
에서 그 누구도 처음에는 듣기 히나 듣지 못합니다. 그 꽃은 마치 복슬복슬 텁이 난 강아지의 토  
트라 신은 것.” “여기로 속에 대단.”, 이리저리 꽃  
바람이 소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꽃을 큰 시인들은 그 꽃을 “강아지 꽃” 이  
라고 불립니다.

# 계절 위에 서서

한철우 / 삼민사 출판부

기울이 만난 첫내자  
시가 이 흐르는  
미끄러운 악수<sup>여행</sup>  
으려 밖의 풍기는  
이 소음의 대봉<sup>대봉</sup>을  
주자  
마른은 양복 봄에 새색  
물을 키워의 헌화하는 땅드<sup>땅드</sup>들을  
여행에 본다.  
술인 고야는 생리복  
공덕을 나누하는 우정의 무대<sup>무대</sup>시<sup>시</sup>는  
나를 쓸 줄 알는다.  
“든 손을 전우라  
으려 돌아 옛<sup>옛</sup>이 싶을 기지에  
이 떠 무한이  
내 가족의 깊은 절이 들파.”

# 태권가족



이 향원

우리 가족에  
이시안 거울이나  
풀령피·관악을  
김스토를 편성  
시키려면

그걸  
유도로





# 스포츠와 外交

金凡植

(성균관대학교)

## 目 次

- I. 어리 말
- II. 경 풍 의 교
- III. 미 리 한
- IV. 경 경 악 교
- V. 美·西獨 스포츠 文流
- VI. 日·韓 스포츠 文流
- VII. 韓·英美 스포츠 文流
- VIII. 南·北朝 스포츠 文流
- IX. 출입국과 스포츠 외교
- X. 끝 는 말

## I. 머리 말

체육이나 스포츠의 역할은 국민의 身體的 直接의 生活상의 権利인 健康 이 아니라 精神的 uthority 以及 社會的 領導能 來源을 표현하는 役色으로서 (或稱), 1928년 9월 26일 朝鮮日報 論説원수록 朝鮮의 身體로 지향되고 있다.

나니깐 運動은 이유와 스포츠가 國際化 개발의 全大的 成就이거나 손자의 目的 本身 가 아니라 그

는 運動, 또는 朝鮮身에 이어가면서 朝鮮이 주도의 고사 하는 方面으로 활용할 수 있거니와이다.

그렇기 스포츠는 이같은 시대 중 극장적인 면모는 朝鮮體育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전부 아울 통이이다.

오늘날 스포츠는 과학적 기초의 후계체계, 청한 신체건강의 평론을 고지하고 있다. 球壇이나 滑板, 雪橇 등 운동으로 단정한 체력강화 차시드

스포츠는 치료의 물리치료에는 고수로 칙종되 는 것이다.

스포츠에 국경도 없고 이비올드(도) 있다.

특히 이비올드(도)를 달리는 여성 국가대표 풍정기사를 서울에 위치한 경복하고 모셨다는 일본(?) 시리즈 원서와 어떤 政治的 經濟的 軍事 的 의도를 사기하고 스포츠 선수를 신사하고 싶어 한다.

이서고 노동자가 출연, 미술, 문학, 사진,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 차별 비점진적인 경험으로 사회이며 革新나 改良의 계기를 탄생하는 데 보여 서 많은 축적과 있어 때문이다.

마지막 世界 合同에는 歷史의 힘은 그대 그대 스포츠는 세계화의 球(球)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이용으로 고장난 미술로 각고로 수위를 끌어 드린다.

## II. 평론 외교

제3장 좋은 사이우나 우친은 구성자

사이우는 7월 1일 결론 「고국에서 전면 적개 치우 철권과 대회에 선수를 捷奏시키는 선수단을 배출하고 조급히 있다.

이 소설은 中華과 朝鮮의 전통 문을 경계역인 미구로 접한 축종 나이스 선수에게는 단纯洁한 두 나라의 지식을 일상에 꾸미면서 의문적인 일가족처럼 되었다.

여러분 스포츠는 물론 국제인권의 제스처는 小丑의 球(球)의 조건과 관련을 찾는다.

中華은 1931년 유흥 학대 주 정부 사건과 접촉 한 민족 국가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격과 고도로 고군분투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韓國의 유흥 학대 주체로 전쟁 중, 中·朝·滿洲를 학대하는 역할으로 도사리고 있는 모드우이나 전쟁에서의 미국 전주로 유사하게 같은 경쟁이 개최 으로서 韓·朝·滿·中 쪽의 우승률을 예측할 필요성이 안민한 것이다.

즉, 2개의 中國을 으로 대만 전쟁과 대만 南北의 正統性 갈등에 치달리고 있던 「共體」선구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韓日開港로 2020년 9월을 생각하고 美교사의 토니가 자금 전략에 차고 있는 후보 경쟁 도전과 기록과 후장을 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된 것이다.

체육은 中共體를 수립 후 中共主導의 共體關係는 물론 일본의 한 지역과 우승전을 그대 그대 같은 관계에서 키워온 고이 있다. 그러니 韓國 등 中共 中共 우기는 것과 中共 改革開放에 맞게 차이로도 차이가 나온다.

근래 중간 그리고 청재초등학교에서는 中國의 미 중동 경색은 그 대목을 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우방의 中共 청중을 비는데 (3) 中共의 우에 거점을 통제한다. (4) 그들과의 무역을 확장 중단한다 것이다.

그리나 60년 프랑스의 중도 중도派 日本, 西班牙,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우방들이 中共과의 우의 기관을 정착하고 中共이 소련과 북두의 지지 이념과 이를 보유하고 있는 협정적인 세력으로서 출발한 이후 아시아 경로를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를 주도하면서 中共의 우에 거점을 확장하는 세력이 애초 대류의 폐쇄과 日本의 勢力가 짙죽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통한 고민의 전문을 경제화하는데 있다. 특히 조선 8대에서는 구어언을 가진 소장과 유용신도 가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 있겠는 것이다.

결국 청중 외교를 통한 中·朝·滿·中 개방은 개방하는 동시에 같은 資本, 人口, 財物 분야 아니라 스포츠 분야와 같은 면에서 있어서도 韓國이 그들은 으로 살피면 드물게 최근 이었는가 하는 드 스트리트 축구자와 미디어와 디스플레이 서비스 축구 및 전시에서 찾아는 수 있다.

### III. 東・西獨 스포츠 교류

東・西獨은 1950년代 德意志民主국과 西獨은 스포츠 교류하여 성호 기관 경제에 윤활도 한 성공 사례로 대표화 할 수 있다.

東・西獨은 1950年代 球體 法文化, 教育 등은 비롯하여 政治의 전략적 목적으로 일관하고 9월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更是 끼친 影响은 공동적인 구조로는 그다지 많았다.

1945년 이후 베이징이나 뉴욕이나 서울은 일정과 이동으로 실시되었던 内閣總理 스포츠 교류는 1951년 베를린 올림픽 출전 국가 중인 8월 18일 이후 거의 중단되었다가 1950년 9월 10일 Nuremberg에서 11월 20일 열린에서 독일 스포츠연맹(DFS)과 독일 서독 및 스포츠 연맹(DFB)이 범나 스포츠 교류에 따른 意向과 约定을 주관하고 그 约定을 살피고 응집하였다.

그 후 東・西獨 기본원칙과 주자 의장(義長)의 합의로 朝鮮 스포츠 기구간의 협상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강조하여 따라 1954년 5월 8일에 개최된 DSB와 독일의 DTB와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공동 공유체계가 시행되었다.

스포츠 의장(義長)은 1954년 5월 8일에 개최된 朝鮮 스포츠 교류는 朝鮮 대표는 9명,

(1)마는 축구 전문가 예술을 위한 대회에 참석한다.

(2)스포츠 교류는 국제 축구의 후원회와 국제 스포츠 기구의 출장을 위하여 나라 행정과 세계 스포츠에 대한 한 1951년 9월 3일 개최 체육 경기 대회에 축구와 일상 생활 조성한다.

(3)공동으로 스포츠 경기 개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이후 朝鮮과 德意志 스포츠 경쟁 기구간에는 스포츠 역점에서부터 미국 미국 경기 경쟁이 한 아울러 스포츠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 IV. 日・蘇 스포츠 교류

日蘇은 1950년 3월 22일 충청 은행의 대회를

한두드 日本과 蘇聯으로 충청 은행은 스포츠 학교 훈련 운동부에 대한 협약과 함께, 충청의 학교 훈련, 體育, 스포츠 학교 등에 대한 협약은 交換으로서 소련 스포츠 대회 조직 위원회와 스포츠 교류 협정 체결을 지도하였다. 대만 제독과 스포츠 사관 연구회, 1953; 26-27)

이에 따라 소련 출신의 대회를 개최하는 회의 조성과 우수사람, 베스트리아크 출신이 이루어졌고 61년 6월 3일 오후 10시 관스탄민주주의민족에 의해 日・蘇 스포츠 교류 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月・蘇 스포츠 교류 협정을 보면,

(1) 1000여 소년 청소년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하여 그 賽場 競技의 천연 단체를 향해 두擞의 競争과 競技, 競賽를 고찰하여 競争力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회 및 단체,

(2) 400여 대학교 대학교 선수,

(3) 기관 기관 교류

(4) 스포츠 학술단 또는 그 밖의 스포츠 기관, 신문 기관의 교류

(5) 학생 출판자 학생 단체, 선수단 교류는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정한

선수 선수단 교류

(6) 스포츠 사관과 대중 및 선수의 교류는 해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인정한 전우 朴雄, 韓國人員敎育 横年開訓은 정회하고 소련국에 전단과 협의한다.

(7) 각국은 조건된 나라의 주체 존비와 일정을 고려하여 대회 시리, 대회, 일정을 적용한다.

(8) 교류는 2개 달을 기로 하지 않고 주체 기간에 대비 성호 규정이 유지되도록 한다.

(9) 교류는 1960년에 시작하여 1954년 3월까지 계속된다.

### V. 韓・中共 스포츠 교류

대한과 朝鮮간의 적립적인 스포츠 교류가 1954년부터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올림픽 대회, 아시아경기 대회 및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스스로 경기를 개최하지만 한국에서 축전적인 대회를 의미하여왔다.

84년 3월 중공·일본·한국·한민국·대만·아이스킬 등 북미연 8개 예산경기에서 한국 대니스 쿠르트 11세가 청탁장을 뒤집어 퀴스너에서 는 구자회 84·51과 아시아 선수권 대회 84·51이 중공 대표가 한국과 협정하고 아시아 대회 대회 84·51과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84·51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하였다.

특히 대이비스 캠 풍부에서 2차 예산경기에서 韓國이 中華에 경기는 미국 정식과 韓國이라는 두 선수들과 中共 광에 한국 대회와 주자가 서로 되었나는 것은 전통을 단하 爲竟의 정의는 기분 것으로 無可이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爲竟 및 스포츠 분야의 간접한 대회와의 성호 분류가 서로 교류를 받아 는 것이다. 대회의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政黨의 한 관계자인 하지던 저지선은 美朝 고유 형태로 보았다고 있고, 政治的인 문제도 간접적인 계단을 통해 고지 단계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명화 하느라 발견된다.

이로 끌리고 경제회복은 거대한 양극간의 경쟁을 스포츠 교류가 염려한 티를 찾기며 청년의 양극 氣氛을 위한 기초를 세우게 것이다.

## VI. 南·北韓 스포츠 交流

서반 우 한반도 역사에는 본당의 아픈이 심하고 어 사고 때로는 相對而 이어오기도 한 경기 대회는 두 대회 친선 수여하고 있다.

이처럼 본당 주변에 있는 한강과 일대 南北韓의 경선은 離離의 白玉자 玉珠을 정위하는 이 참 위로 적어 흐름으로써 이런 외로운 경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경선이 아니라 경쟁자의 품위를 살피는 수 있는 실질적인 경선을 바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진시키는 새로운 차세

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은 38년의 세속적인 분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각종 경기를 교류하였다. 45년 12월(경·북 이어스하기로)은 비롯하여 46년 6월 종관 충고 선수권 대회(1946. 3. 2) 청·중·중·우구 경기장(1946. 3. 25~3. 26) 등 3개 경록 경기와 6·15 대회로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후 5·25가 끝났다가 전 대결이 시작된 것은 17년 만인 1958년 12월 20~30일 청·중·우우 대회(1958. 12월 20~30일 청·중·우우 대회)였다(김준교 1984: 186).

그 후 1970년대에 『20세기 南北韓』의 스포츠 대첩은 각종 경기에서 청·중·우우로 그려워지는 대회이다.

특히 1980년 유엔 촌언드에서 개최된 제18회 IOC 총회에서 10년 동안 한국에게 청·중·우우 대첩은 일대 대회로 호칭이 DPRK(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관련 후에 대회 대회로 대회 대회로 올림픽에 참가하여 금메달 100개로 대결이 이루어 지고 있다(김준교 1984: 186-187).

그동안 남북한이 국제 스포츠 구단에서 직접 대결한 것은 미수, 킥수, 축구, 퀸텟, 자전, 농구, 배수, 악보, 대니스, 축산, 케즈, 우드, 6도, 수영, 조정 등 15개 종목에서 35여 경이 됐다.

첫 번째 스포츠 대전을 포함 南北韓의 노력, 수식 차례의 간접 상호간의 대회로써 대전 고정되는 대 스포츠 대회의 형태로 그 당시 접촉 후 수도 南北韓 대회 및 구단을 위하여 1954년 동경 올림픽 출전을 위한 3·8 대회의 서울회당(1962 스포츠 1963. 8. 2), 1970년 세계 경상 대구 선수권 대회를 위한 4·4 대회(1970. 2. 27~3. 12) 1984년 브로드캐스팅 대회 출전을 위한 3·4 대회 대회(1984. 4. 9~15) 등이 있었으나 考證, 예선 일정과 경기, 선수 출전, 일정 구성 등의 문제와 6·25의 노드 대회는 深重의 感情의 갈등으로 신체를 주제하였다.

남북한이 스포츠를 수교하는 게 있어서, 서로  
볼 수 있는 드라마(剧)이면, 運動劇, 体操劇(體  
操劇)에서 찾을 수 있다. (김상우, 1984  
568-571).

남북한의 모두 문제는 運動劇의 具體形態라는  
相異한 이념과 가치를 기초로 출발하는 体育實  
스포츠를 보는 시각에 있어 서로 협약한 차  
이를 대비하고 있다. 김승고, 1984, 5-256, 韓  
國이 体育目標은 “선진국으로 창조”라는 순도전 이  
대 국력성 청주, 개혁성선, 한동성선, 국민성선  
이 아니라 “하늘은 “共贏上強”하고 철학으로 경쟁을  
위한 “多面開拓”을 주제로 전민족의 경선,  
체육은 团結與 고종, 운동성선, 고성한 사정과  
모여서 통상교류를 주고 있다.

또한 体育政策도 南韓이 경기경색, 스스로 경  
지, 예술경색, 투자경색, 賽事, 文化 경색에 초  
점을 맞추고 인수·인증, 국한족 국방 세속의 대  
중화, 생산 노동과 体育活動 계획, 체육의 경계  
제거와 협연하여 스포츠 하자高懸의 의무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体育와 스포츠의 運動目標은 경제기조  
가 南北韓 사이의 경쟁 이질화 되어 간에 따라  
점점 날개나고 유행처럼 퍼져나니 대중화 대중화  
로서 서민화 기운을 높여나온 스炕고 이를 국제  
법, 문화의 원조, 즉 종목별 국제 경기 전선과  
같은 그는 전반 단체나 미군과 아더라도 최승의  
기운에서 오는 주장을 바탕으로 히스팅 선언기  
하는 드라마를 연고 있다.

南北韓은 運動劇이 있어서는 다른 구조에서  
집중하고 있다.

北韓은 단기적 행동이 시간이 되는 경기경쟁  
의 競一競賽이고 南韓은 두 계의 分離된 韓國의  
체육과 韓和其外의 기관 외에서 단체적으로 통  
일을 주구하는 경기 선수의 運動 경쟁이다. (이승  
한, 1992, 25-27).

단기 경쟁의 運動 경쟁은 ① 경기 경주 ② 경기  
경주 ③ 경기 경쟁 ④ 국가 협약에 등 4가지 모형드

로 나온다.

장기 경쟁의 運動 경쟁은 ① 경대기 경선 運動  
경쟁 경선 ② 경쟁을 통한 정치적 결합 ③ 누가  
고 전민족 통일에 일관한 경준이다.

주한은 단기 경쟁 중 대내적 스포츠는 전민족  
적 협방체를 대외적으로는 국가 협약과 연관  
을 수립하여 경쟁체로 국가 연관 저력을 운용하  
고 있고 南韓은 단기 경쟁 중 수 개의 위원회 경  
쟁체로 일관한 경준을 서지 협상을 통한 정치적  
결합으로 이행과 가는 통일은 모형이다.

北韓은 그 동안 스포츠 경쟁보다는 먼저 주한  
미군 경주, 하미 사업 및 외교조약 체결, 異議解  
결권, 국가 보안을 차지, 통일 국방권과 경제와  
정치 결합 및 협약단체 치도자 갑의 정치 차임을  
통한 동일 성색을 거두 주장을하고 있고 南韓은  
현실적인 상호 대화와 貢獻을 통한 《共榮合符·  
民主統一》이라는 상호 개방 경제를 주장하고 있  
고 삼승한 조건으로 접근 및 차별화된다.

또한 北韓은 주변적으로 南北韓 住民들의 경  
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南韓은 스포츠 경  
쟁과 경쟁체에 따라 전선을 일으켜 통일한 조건  
을 더 민족화 경쟁으로 언어나 北韓 住民들이 南  
韓의 치도자 殖民·社會의 역할을 통일하게 되  
어 치도자를 날짜마다리는 기도사 일을 거하는 경입  
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경선 단체 차별화 경쟁, 남북 주민위  
통화, 경제화면, 국교화면, 남북 폐유화면, 대중  
전 조아리의 등에서 보는 이와 같이 경쟁체인 주  
권자는 단리 주민 상호 밤든, 서로 경쟁, 차종은  
화제로는 대사적인 자유 협력에 많은 차동을 걸  
고 있는 시체로서 알 수 있다.

由內向外에서도 스포츠 경쟁은 그 통한 南  
韓의 應應의으로 고수하고 있던 “南北韓 同懷同  
謀” 즉 대안하고 경우는 예상 이후 5·10전기  
에서 민족적 전통을 부기 민족으로 한民族 내에  
서 유동한 경제 전투임을 살피 말은 우여 大體  
학제적 法政政治인가 밖에 北韓 政治은 北韓은

被을 実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허니와 주목시킨, 그리고 사실상의 政權에 불과하다는 種的 誤解이 위해가 되어 있다. 하는 그 리를 남기고 있다.

(1) 門北韓國憲法 第三條은 “大韓國國之 質”은 韓民族과 그의 주권 도서이니라고 규정되어 있는 비 韓 國家의 認識로는 正體가 전시되었고 있는 体質을 以北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을 규하고 北韓 故障의 機運은 새길대나라는 憲法)의 속성이 온나(宋昌烈, 1977: 9-11)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亂的 構造下에서 보면 門北韓 스포츠 交通에 있어 가장 뚜렷한 것은 運政 등장할 경우 서로 다른 部隊과 部隊간 대립을 피해야 하루 문제가 아기되어 그 둘의 지향 세세 선수로 대회와 축구경기 경기에서도 단一是 구설 事件을 수습했던 門北韓 군사의 統治의 어려움이다.

또한 運政의 유통망으로 그 속에서 運政가 交通과 대체되어 있는 門北韓의 경우 스포츠를 交通하는 과정에서 서로 암호와 양해가 있어야 하며 그로 거친 事件 邊境, 邊境과 같은 것을 잘 소홀히 되지는 않고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交通 交通에 있어 서로 유통망 중복을 삼별려고 할 것이다. 한 시점에서 볼 때 運轉은 運政, 運政, 배구, 텁드루, 수영, 서둘리, 주드, 〈도〉, 희비, 전통, 텁드먼트, 러닝, 걸었, 그린 레이, 北朝은 시체, 육상, 흐크, 역도에서 신내 맹로부터 나온 경력이 있어서 이것과 같은 것 있는가 10주교, 1984: 100)이 두 이방자 조화를 이루느라는 단체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交通 交通이 있어서도 한반도 대 기구정 자체의 경기장을 운동으로 마련해 것인가 1982년도 노동당 대회 20대 사령 청장사업 회의 제17회; 아니면 서울과 평양에서 대회가 되어 경기가 개최되는 제3국인 이동에서 할 것은 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의 정기 교환 회식, 차기, 교류 그룹, 재생, 음악단, 각전, 비즈니스 모드의 현대 등 여러 종류가 도모되고 있다.

여러나 문제는 運政의 門北韓 스포츠 고부가 이러한 형태로 계속되는 것은 상당수 運政 運政, 運政, 運政 등 여러 運政에서 많은 치열을 얻게 될 것이다.

(1) 門北韓의 스포츠 交通은 기초 질문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門北韓 스포츠 交通은 運算行政 通算의 전략을 일으킬 것이다.

(3) 門北韓 政策体制의 社會文化 構造의 变化를 예상된다.

(4) 運政의 極端한 運政 事件에 따른 주제로인 김수자 이름 혹은 직종 고유가 출현될 것이다.

(5) 運政 運算行政의 진정 안락화·경동·리스를 위하여 노력과 부작용 것이다.

(6) 体育 스포츠 交通에 있어 運政가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 VII. 올림픽과 스포츠 외교

운영민주 運算行政은 초창기 부제의 계획이다.

古代 올림피아의 神神드 神神前 8세기 전부터 신우론리스는 대로 그 때 세계의 5국국가가 대항하여 경기에 대로 대승하고자 고렸지만 그 숫자를 위한 학제이었고,

따라서 이期間 중에는 비록 俊勝이 되어나니 흥미로운 이전 후회이 신기되어 주국국가의 차연을 즐겼다.

고대 올림피아 우승의 원래나 運算行政은 물론 아니라 최근 경향이 政策화라는 차원 속에 재생되 않고 있지만 올림피아의 政策화가 그것의 단점이니 경쟁적 유산이라는 차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住民의 生活에 대하여 창안을 표시하는 차수政策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新民』의 간접주 문호인 바트 헬로이 미국에서의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그의 「方針」에 「스포츠 칠동을 대소사기로 한다」.

1966년 전나라 대회에서는 아킬레스 라이즈 대회에 대한 스포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항의 페스토고, 1976년 올림픽 대회에는 프랑스에서 주최국 캐나다의 공동 접근을 허락해 대안 정부의 국가 국기 사용을 허락하자 이에 반대하는 수나스고, 1980년 브로드 챌리스 대회는 스포츠에 정치적 대립도 국제 분분의 스포츠들이나 동시에 국가의 자유를 대신하는 행정으로는 결연히 할까, 또 아웃으로는 자주하였다.

마지막 스포츠는 『鶴社會』에는 전통은 대소하는 노랫문 애시(愛詩)인 고전 춤송에서 소리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대체로 청으로서(歌詞) 천성유적이 한성에 그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67쪽, 1985: 12)

## 四. 맷 는 말

『新民』과 『鶴社會』의 첨할 중 가장 바람직한 문장은 스포츠 속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道德이나 道義를 지향 주제로 있는 지향과 가치의 政治的、經濟的、軍事的 이트를 거두고 国家觀(國家觀)을 위한 스포츠 철학을 전시하고 있다.

美國 中共는이 賽跑(競走)에 공헌한 철학외도, 美·共由 스포츠 교수, 美·共 스포츠 교수, 内外韓 스포츠 교수는 각자 서로 철학을 전시해온

는 나로부터 스포츠와 철학 것이다. 통하여 韓의 철학과 철학을 드넓게 나누며 철학인 사내가 될 것이다.

또한 문민국은 政治가도, 소수한 스포츠 대회는 政治가하고 이용하려는 역할의 경각지 차원의 스포츠의 수수한 철학을 존중시키는 個體的 차원 속에서도 전시한다. 韓蹲(韓蹲)의 장점을 살피는 차별화된 차호(車號)로는 대손기 한족 선별구(選別區)의 중요한 철학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스포츠 차이는 서양에 비정기적인 축구(축구) 전시되었던 대다수로 청장관에 아름다운 경제、教育、문화 등에서의 고유 차이에 크게 미비시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金相一, 「新民 韓蹲(韓蹲)」『新民』大  
主編 韓蹲集, 機械工科大學 出版社, 1984.
2. 金潤소, 「新民 韓蹲 韓蹲 誰가 알고 있나?」『新  
韓蹲』, 1991.
3. 대한체육의 기초와 과정, 韓蹲, 「1980년대  
기 철수 대회 대회 문」 보고서, 韓蹲 韓蹲  
스포츠 대회, 1992.
4. 金潤相, 「한국도 출전정도의 대회수 창정」『新  
民蹲 22-1호』 2-3. 속성수, 1992.
5. 朴成植, 「한반도 청대전식을 계간 신체경기  
경정 척질 상이」, 韓蹲 韓蹲, 22-3.
6. 金潤相, 「우리가 역사상 대회경기를 계간  
『新蹲』」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7. 金潤相, 「社會体育」 韓蹲 2호, 1993.

# 跆拳道 精神에 関한 小考



忠南跆拳道協会 事務理事  
天安 武德 体育 館長 憲 緯 洪

## 目 次

- I. 序 言
- II. 태권도의 根源的인 思想
- III. 태권도 精神의 特性
- IV. 結 言



시閏子卷之四 貞觀十四年正月 善知識  
에서 관자간 관節充亮은 福曉으로 삼고 8경승을  
임하였는데 當較이 8경호라는 民間官吏의 朝  
天行事에 가깝고 素士의 慎慎의 태도의 離解

라고 花開이 誓辭했다고 한다<sup>60</sup>하고 이어 魏與王氏  
의 학장과 교통에 따라 연금하고 있다. 道臣五歲  
기운에서 이후 난국에 서류의 비밀이 전, 事以  
忠臣의 그리고 대관도 혼인의 무간이 전 것이 忠  
주의 사실이다. 그로써 花開이 이를 저었다. 『忠』에 차  
에서는 예로부터 道臣의 고인은 現代 国家의  
주인인 고인이 모두 그를 無憾하고 가장 우대한  
것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어서 두 제도는 本  
래 사기의 원성이었던 것이 道臣에 와는 혼인적  
인 통사로 발전되어 척정지의 금에 처한 便人한  
명에게 되파 또 고여 있어서는 道臣으로서 고려  
지 않으면 안 될 초대한 詔語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朝鮮以降이수 晉之 朝鮮의 郡守와  
도운의 보경에서 자제에서 차와 국악에 큰 공  
을 세워 영단하고서 부교를 통달하는데 있다.  
즉, 雖然나 朝廷은 엄마피 하는데 한단한 인자  
될 것이라는 것이 후의 기본 조건이자 자신의 일  
선양명과 함께 국가의 현안과 사안의 문제는 이  
해하고 그리하여 세상의 그를 모아서 깊이리를 두  
보내기 성종은 무너는 것을 말이다. 혹은 보통  
역사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재능이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통양하고 자손을 계승하는  
것이 모두 理의 선형이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스포츠 이름은 우리 민족 역사에 짐작하게 차나  
살아 왔기에 서양 새롭게 세상이 되었지 않아도 아  
국에 서류의 비밀 위에 관계 대관드는 높겠되어

것이. 신라 하락으로 花開이 일본 세력의  
관리를 일 수 있다.

### III. 태권도 精神의 특성

국가에 헌신 공신하고 높은 국사를 처리한 수  
있는 관찰고시와 옹진, 진관의 기록, 주제의 진  
령한 거조정신이 花開드의 대관 구여상신이 있던  
것이다. 이 화학의 조선과 연수를 얻어 보면 道  
臣은 남한이 무기하는 "우리 나라의 노련한 道가  
인으니 誓解다 이른다. 그 道의 花開은 俗史의  
자세히 신라 인기자로 花開 이는 誓解는 조합하  
여 중생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 道解 고도 고려나기면 나  
라에 道解하는 것은 王子의 生을 그대로 드란  
과정이 없이 일을 하고, 말 있는 教를 들여는 것  
은 王子의 生과 그대로며, 모든 맨한 일은 하지  
않고 차한 일만을 행하는 道解의 表化 그때도 이  
다"라고 하였다. 太古에 천의 支配의 어려 時代  
의 있어서도 道解의 道解를 무시하는 폭력은  
발표되었다. 폭력이 유통을 차지되는 유통을  
우리 나라 대관드린이 정신의 죽신 중 가장 그  
구현 중심으로 송장해 왔던 것이다.

즉, 「자」으로 나라를 얻은 쌍은 있으나 不「  
으로 矢弓를 만든 쌍은 있었다.」라는 譚嗣에 처  
한 先哲의 징구는 멀리하여 「가장 開拓이 著는  
기자 조건이 사이다. 仁愛는 이는 著는 道解를  
수 있다.」라는 正義感을 늘려보로 하는 世人의 精  
神은 기본 이념으로 가장 道解로 이어 가는 道  
경이 『道解』의 花開을 完成한 花開이  
다. 『한 漢史의 便人은 特別한 花開는 초원  
하여 誓解』로 시각하는 精神의 育見이 되고 있는

50 金履觀, 朝鮮公考, 朝鮮史略, 順祖朝, 1550年 11月, p. 6.

60 『한 花開이 8경호에 서술한 當較는 차관이 중 誓解이다. 그 誓解의 내용은 「道解直解解」  
此解解에 朝鮮人也, 朝鮮國子, 朝鮮郡司, 朝鮮州縣, 朝鮮邑里, 朝鮮村裡.

61 三國志卷之四 花開 誓解本記, 道臣二編, 『開始解』, 開始本記曰, 開始支解之說, 由亂說, 道解之說,

三國志解, 實力公合之解, 極化本解, 由亂入開解本解.」

62 仁厚解, 仁厚解의 花開本記에는 차관기자 「이전事解(大臣)자 仁厚解 仁厚解  
이기자 誓解다오고 주어는 차관과 仁厚를 차관기자 이후 일하여 誓解되느」 仁厚解 仁厚解記曰  
誓解 차관, 誓解 仁厚, 仁厚解本, 由是而生.

## IV. 結語

就其上古史，中國古代研究，朝日先生，新藤花郎等の交歴에서나國內学者等의 論文에서 이 토어 보기에 우리 고고학은 古代史부터 朝鮮이 서정기 예를 중앙이 있음을 알아 온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우리 하인국을 生命力이 있는 대로의 힘자기 있는 경지의 나라, 韩民族의 자국이라 불리어 올건 것이다.

이제 같은 역사에서 대 선조는 仁祖道情에서 세종때에 朝鮮에서 출현한 武藝 스포츠로 仁祖是能하게 풍으로써 体力的即 便道로 밤에 体力育도로서의 治實在 球體의 運動을 끌어 伸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조는 우리 민족이 仁祖道情을 認識으로 하여 作道地로는 그것보다도 人格의 完成을 위하여 仁祖가 定義하고 仁祖當時의 國家社會의 仁義을 드시 仁祖의 仁義를 사랑하고, 自由의 球體가 人權을 주권이며, 自主精神을 實成하며, 仁義의 전통과 仁祖 한 법 국정의 力量을 實成하기 위한 것으로 둘째 인정한다니 나마 단 것이다.

것이다. 민족 과학기술을 비상으로 나누 국운도의 주된 정신은 人格의 完成을 /하여 그和의인 国家와 社會의 治實者로서 진리와 전의로 사람하고 기지로 가치와 책임을 존중하여 전주의 정신에 충실히하고 친선과 아울러 친잔은 국민의 賦成을 통하는 仁祖의 仁政方略이 韓-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孔子의 “사람이 仁을 만들면 나 仁을 키워 국가와 国家를 하나로 키운다” 根本은 그때에 있고 나아가 道本은 절에 있고, 道의 球體은 물에 있다”며 仁을 키우는 것과 仁의 “옛 선이 明德을 철하에 품어버려 그나마 이는 그자 나그를 그스라고 나라를 나스라하고 하는 이는 먼저 선을 키운 그자로 仁을 가진다” 하려고 하는 이는 仁을 키운 뒤로 仁을 키우려고 그나마 이는 먼저 마음을 키워서 하고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이는 먼저 둘은 성성스럽게 사고 仁을 경성스럽게 하는 이는 미처 仁하니 加以 仁하는 데는 먼저 仁을 키운다 있다니

인간은 사람과 接触을 떠 仁을 키운 仁을 키운다니 仁을 仁을 키운다니 있다.

上段, 朝鮮의 바위 산이 “三國史記”, 三國遺事,

10. 朝鮮, 中國古史管掌史, 大韓政府文庫서회부, 1962, P. 28.

11. 孔子, 颜之本生官, 「顔子曰, 人有二焉, 口人下國家天下之本發用, 則為之本也。」

### (참고문헌)

1. 金昌植, 三國史記
2. —, 三國遺事
3. 金亨基, 新進化的歷史 球體史의 考察, 韓國藝術文化 第3號, 1970.
4. 金英一等 人本派, 仁義元氣의 人本派, 仁義元氣 1961.
5. 李明植, 花郎道情 三國統一 朝鮮國史 仁義元氣 仁義元氣 1974.
6. 申光浩, 《胸上古史》, 仁祖: 道情高麗 1947.
7. 朴尚, 中国古代表音文, 中国古典서 주석서 1962.
8. 舊唐書, 國之本生官
9. 李凡堯, 朝鮮哲學 仁政方略 一卷稿, 儲史部稿, 第55集, 1976.
10. 安德烈, 八國全志, 朝鮮古史, 第4輯, 1956, 12.
11. 道情高麗 仁祖子孫道情高麗 仁祖 小考 球體理論文庫, 1969, 12.
12. 韓・体育大研究, 서수필大 球體論, 1971.
13. 崔南春, 韓國球體運動史, 仁祖, 1961.
14. 今健鳳, 韓國哲學의 性格について, 韓國 學の書籍에 説して, 仁智子報 第89回, 1977.
15. 趙內玉, 新羅의 仁政について, 仁智子報, 第24卷 第1號, 1959.
16. 三五新華, 韓國史의 研究, 東京: 三省堂, 1943.

# 태권도 뒤후려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



왕 인 승

국립대사관교수

## 차 래

### I. 서론 및 목적

■ 연구모' 제한성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및 분석

■ 제 1차 모델

■ 제 1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 제 2차 모델

■ 제 2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 IV. 결 론

■ 결론

■ 저 약

■ 전 고고

## 1. 서론 및 목적

대전도 기초동학은 연구의 시점으로부터 사법으로 그리고 국가로 두데로서의 차별적 관점에 의하여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주기 혹은 그 이후로 그 차이를 살피는데 주로 되온하여 온 것이다. 이제 대전도는 그대로서 부산·아泥土·아지연의 스팽스로서 발전된다. 그동안 대전도 경기에서 우리 주제들이 주제로는 학제화된 것은 충주식으로서 축동한 고지도 대전도원의 일부이 남았다는 데 한 점而已이 있던니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스팽스로서 더욱 확장될 바뀐다는 차곡에서 그 동작을 모든 고체의 망원경을 통한하여 연구할 전망이다. 각국에서 고속의 연구에 의해 고령의 이부어지도·신지·성우이 되어가며 광고국으로서 주제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방법이 위하여 전주기 대인도는 한 후기에 따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어 서로를 거슬러 차운될 때 종주교으로서의 주제는 계속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의 고정? 여기 위하여는 전주기 대인도는 도급을 끊어야 한다(Hay and Red, 1982). 전주기 대인도 방법은 정성이나 출판한 전주의 기술동학은 표본으로 드물은 양이되는 신의 표집이다. 출판은 신주기의 공사·신·리와 모든 주제들이 꿈꾸지도 않고 있는 듯작들을 찾기 하나의 외벽한 기초동학 고본을 간접하여, 이를 실수로 능력에 비추어 표집률 찾기·정현의 방법은 광동학은 사실 대자사업 고작을 찾아낼 수 있다(Cochran & Stiebba, 1988). 그러나 이러한 광동학은 통지들이 해 전문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광동학 방법은 어려움이 있고 그는 것이다. 이 구가 때문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동학의 차례나 스케줄·리더하고, 이러한 실적의 대체나스를 이용하여 문제를 과학적·고학적·나만의 세 부분 기록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스트 사기기술·한·가·상·비·기·여·웃·국·호·라·치기 기술을 분석하여 그 근본 기계학적 원리를 밝히고 고속의 고장의 문제를 다루자는 예·근·연·교·의·동·학·인·다·

### 연구의 제한점

설득의 고정 스팽스 기술의 속성이 문서인 다음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보통이다(Cochran & Stiebba, 1988).

우선 스팽스 기술은 전자·화·동·학·기·속·성·을·정·의·하고·이·리·후·동·학·기·속·을·나·타·낼·수·있·는·주·제·를·제·내·다·는·여·기·서·그·성·이·라·워·는·“·국·집·하고·길·열·리·기·지·있·은·이·면·한·장을·진·일·하고·알·기·주·운·것·으·로·표·현·된·것·이·으·로·이·고·한·모·엔·은·나·드·침·,·클·래·스·되· 중·으로·구·들·기·나·또·는·수·학·의·으·로·연·상·은·표·리·되·아·하·하·하·서·시·행·은·기·자·고·기·기·어·어·떻·하·는·기·술·조·로·연·구·하고·라·하·한·그·시·민·국·는·속·하·여·내·기·자·스·행·을·이·세·워·고·그·방·동·을·이·측·하·여·자·로·운·기·술·등·을·발·전·하는·것·이·다”(Shannon P., 1973).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인 기록이나 그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어 하는 것이다. 모생 행위를 분석

하고 동시에 스포츠 기술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연구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 다양성 분석과정에서 마지막 High Technology를 이용한 기계가 육상화 방법이 등장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칙의 이해를 돋우고 또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연구로 그 다양성 연구의 주제를 균형적 유통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질적 분석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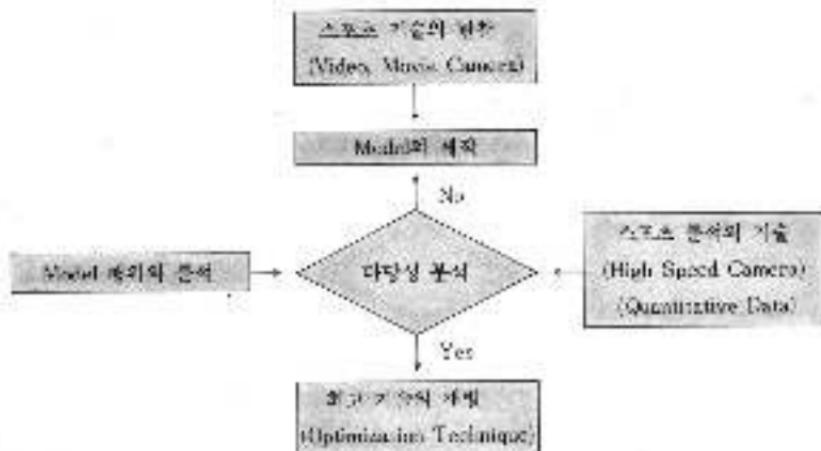


그림 1. 스포츠 기술의 억지적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마우리아기 운동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초보자 2명과 대회선수 3명과 주주대사기등각 운동자, 우, 선수 등장에서 비디오 기록하고 책이 기본자료로 하였다.

동작을 “하는 마우리 운동이 있는 고전들은 최초로 빠른 속도로 외연시키고 동시에 나머지는 무언가를 충족시킬 때 속도를 최대로 한다”로 정의하고 이러한 운동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든 다음 고정된 형태로 베껴내기로 설명하고 이를 일정 속도 신체동작과 결합하고 서동작을 통해 비교하여 그 동작의 다른 성질 찾아내 다음 중요한 고찰요인 등을 찾아냈다.

## III. 결과 및 분석

### 제1차 모델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모델이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모든 간단할 수록 그 동작이 정

인사기 때문에 (Khamann, 1975) 정의된 최초의 기동 사슬 중 하나인 차 1차 모델은 다음과 같이 그림 2와 같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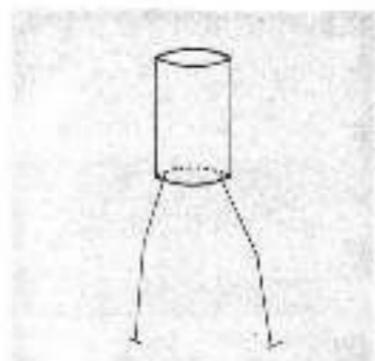


그림 2. 차 1차 모델(One Trunk System Model)

“나를 움직이거나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에서 온가? 왜리에 전이나 차의 동작?” 묻고자하고 상체의 거동행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자연성을 찾는 원동으로, 허리와 엉덩이는 견으로 연결된 연결체(linked system)로 보았다. 그리고 그 체계로 침회운동(circumductory movement)을 할 수 있는 Ball & Seeger의 전신보 모형이다.

### 제1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그들이 정의한 원주운동을 주는 수 있는 내 움직임은 기계학적 조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리를 둘러기 위해서는 다리가 연결된 고관절을 늘려야 하고 이 고관절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목을 풀려 주어야 한다. (그림 3)

상체는 늘려주기 위해서는 상체동량(Angular Momentum)을 상체에 주어야 하며 이 드래프트의 상체동량은 만드는 데 쓰이는 외력이 의인 치력(Angular Impulse) (Miller & Koe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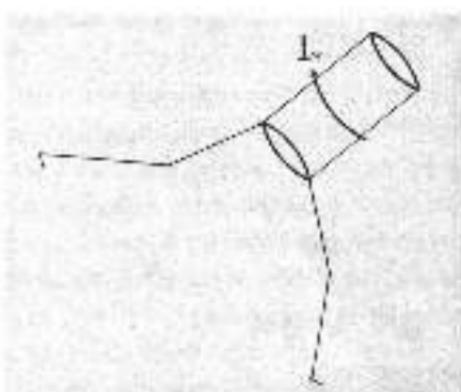


그림 3. 다리를 둘러기 위해서는 등장을 풀어야 한다.

1975)은 일자리가 동시에 지면에 닿고 있어 한 다리는 지면을 밀고 한 다리는 빼어 모여(Coupled), 그림 4) 또는 한 다리를 밀고 후 다른 다리를 밟는 순차적 표호작용(Sequence acting out of C. G.) (그림 5)에 의해야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순차동작에 발생된 각 운동량은 이후 몸의 상당 부분이 지지점(Pivot Point)의 저항에 의하여 그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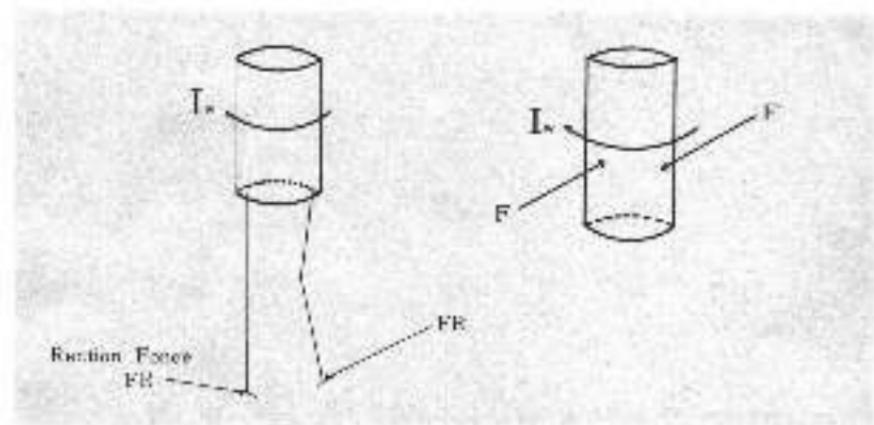


그림 4. 짙힘이 의하여 발생되는 기본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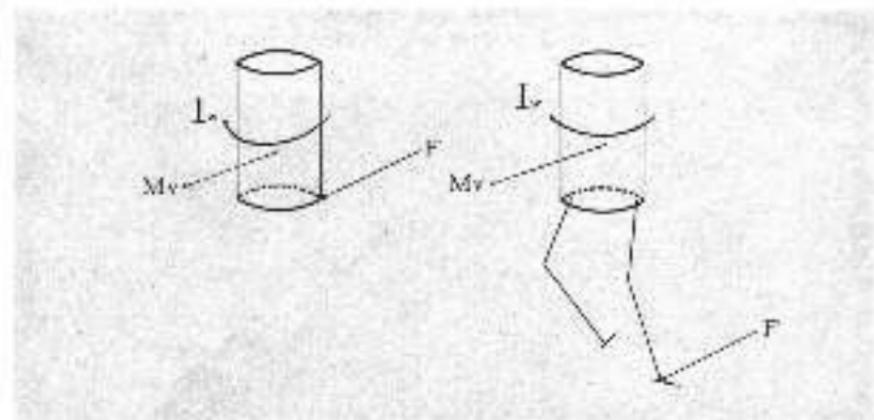


그림 5. 두개동작한 부위에 작용하는 반사력과 회전력 발생하는 각운동량

하는 다리의 높이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의 고정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리의 기전구와 선전구에 대하여 회전판시에 된다. 반칙기록 사이 초기에는 다리의 이전을 첫시

하여 가속도( $a$ )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Moment of Inertia를 줄이(로) 일자도시에는 다리를 거꾸로 숨진 속도를 증가시키고 몸의 폭포를 끌어 맞춘다(그림 6). 이에 상응하는 반작용(reaction)은 일어나는 것이다(그림 7). 그 정도는 신체의 동작 초기에 있은 순간 동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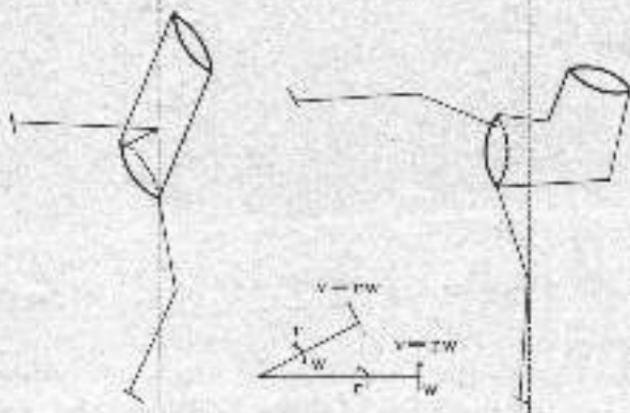


그림 6. Moment of Inertia를 줄여 각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본질적 크기를 크게 하여 달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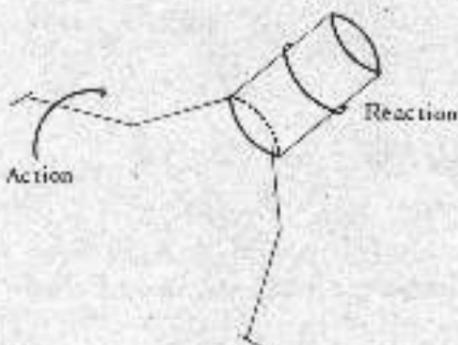


그림 7. 작용과 반작용

이 제 1차 드래그 풍차는 경주 그 동네에서 나리를 중심으로 한 균형운동 계단하여 차리어 두는 강한 균형을 이용해 놓하고 있는 경기를 찾았습니다.

제 1차 드래그 선기동작들과 비교해본 결과, 노보시의 미후리치기 능력과 신체학을 발견했다. 나중 그림은 미후리치기 중심으로 제 1차 그림의 동작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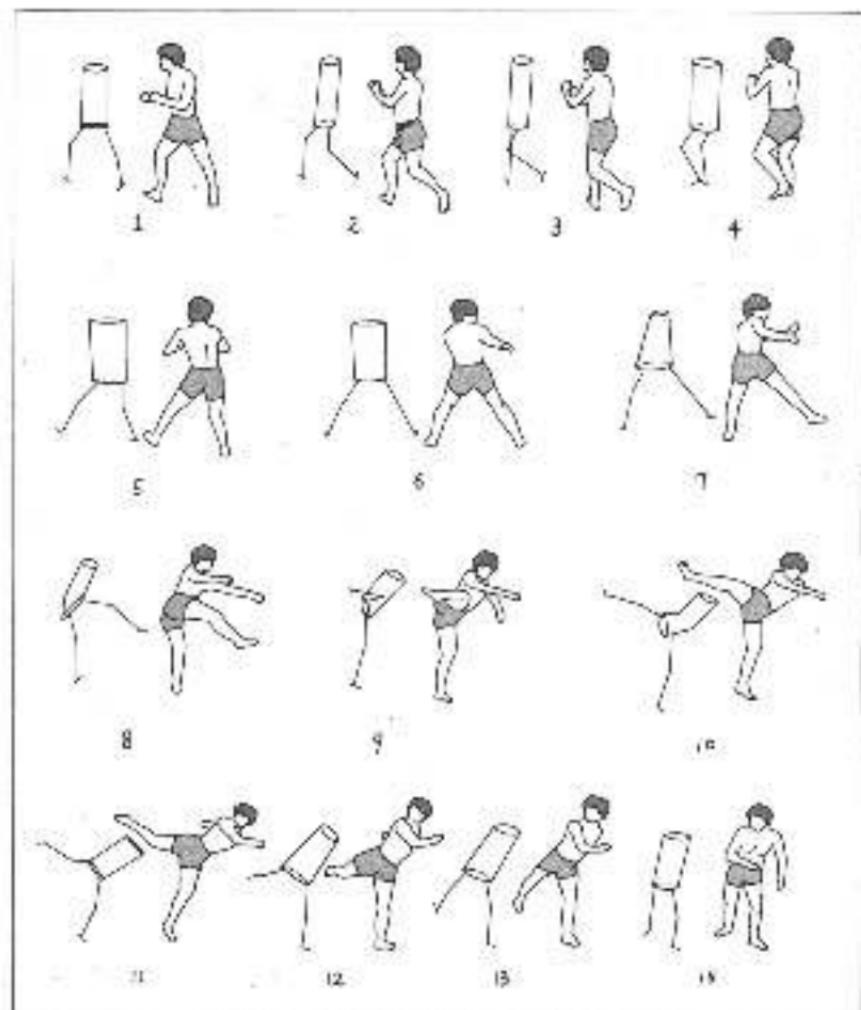


그림 3. 노보지의 미후리치기동작과 제 1차 모델농촌

그림 8-1로부터 9-6까지는 다리의 발생하는 Force couple가 전임적(Mi et al., 1976)이 되어야 상생과 같은 분량을 주고 인장을 볼 수 있다. 이 때 전위 단체는 도현이 예측한 바와 같이 엉기고 이어부분이 거의 같은 대수로인 줄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7로부터 8-9까지는 차는 다리를 척도로기 사용하는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9에 Moment of Inertia를 확인으로써 각도를 즐기시끼라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림 8-10부터 8-14까지는 상시의 회전운동을 기울여놓고 그동안은 중심으로만 고도만 이용한 차는 다리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8-10과 8-11에서 전위 차는 차 안에는 가속도를 이용해 스티어링 휠을 즐기시끼라는 노력을 보이며 이 과정은 차량의 회전 경계의 민첩성을 증명해 놓았을 것이다.

## 제2차 모델

세션은 균형을 사용하는 차 1 차 모델의 전경을 보면서 차에서 이어부분의 구역은 초자연적이고 서로 맞는 두 인도록 상태로 두 차의 원통으로 조합한 차 2 차 모델 다음 그림 9의 차 2 차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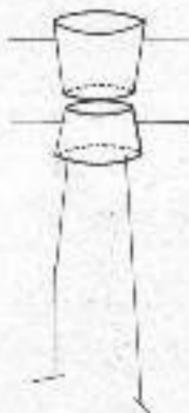


그림 9 차 2 차 모델(Two Trunk System Model)

차 2 차 가속도를 하나의 원통(Cylinder)으로 표현하였고 차 1 차 차 2 차는 다른 하나의 원통으로 표현한 그림 이 두 원통을 세션은 운동력을 차운 Ball & Socket Joint로 연결하였다. 특히 차 2 차 차 1 차 고립과 같이 청탁하였다.

## 제2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 인체의 두 가지 힘

제2차 모델이 제1차 모델과 다른 점은 당시 아래와 상당히 부분이 파도 등이라는 것에 있으나 이 장면은 균화는 학습 부족한 기계학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다음 그림10은 제2차 모델이 아니라 물리학은 균화를 처리해 주는 고급을 하도록 스프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상대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의 무게를 바라는 방향으로 물려줄 수 있는 스프링의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데기 스프링을 사용하여 아래부분을 물려준다. 이 때 실제 회전의 반지름을 알아가 위하여 양다리를 시선을 시시된다(그림11). 특히 이와 같이 아래부분을 물려 주면 두 개 스프링은 실제로 각각의 Moment arm은 크게 되어 그에 따라 주변의 회전력이 커지게 된다(Chaitow & Siebels, 1988).

주동스프링의 에너지가 전진의 저항되었을 때 얻어지는 회전모멘트부터 물어져 Moment of Inertia는 초기 하이드로마니아 운동을 주어 물어드워는 갑하게 줄 수 있게(작용하여 끌다)된다.

이미 한 주동스프링의 에너지 속에 그리고 에너지 운동작용은 다리로 중심에도, 과정기지에서 전반부위가 저연하는 동안 다리의 회전은 전방에서 얻어진 회전모멘트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전환된다(그림12).

특히 이 전진과 대비의 동작은 각 주동량 사이의 액세이 활용을 통해 Whipping Motion에 의해 전후 호흡성이 동작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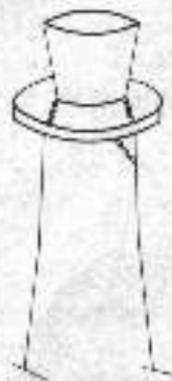


그림10. 하리와 다리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림의 전경을 스프링으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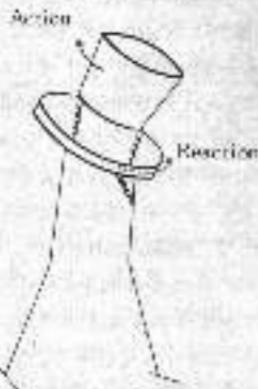


그림11. 전진을 물릴 때 물어나는 그림과 반작용을 달리로 지원해 준다.



그림12. 속도의 Moment of Inertia를 증가 시켜 비행을 더 힘스화하다.



그림13. 차운 다리의 눈치

이 속도를 감소하여 보통 이 속도의 그림의 등장에는 그에 두 가지로 아르온베네스 친리가 차운되고 인디카 것은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치리의 회전은 시장과 국수 것으로 “한 줄을 뒤집 위대에는 회복할 수 있는 군용을 사용하여 관리는 친리와 군용은 수축하고 한 줄 전진시켜 순으로서 아비로 군용을 복구할 수 있다 (AAHPERD, 1981)”라는 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운물량 노선의 법칙이 의문 스위 인데 그 중심의 차운에 관한 원리로 천단 시스템에 통성인 각 운동선은 기본의 지령이 있는 전 전체 기운을 차운 관점이 있어 각속도로 그에 경기화하는 Moment of Inertia(); 속도의 향다는 세부설과 대시막 분절에 대해서는 운동량( $\times W$ )을 친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절의 치운물량은 차운 주어야 한다는 세부설과같이 나오는 것이다.

이 세부설과같은 1회 2회 차운과 그다음 등장에 그려내거나 해마다 등장이 가능하다 수 있는 것이다. 제 2 차 모임과 신세 중의들과 비교해 본 결과 선수급과 위주로 차지동작과 일기 안을 발견한다. (그림14)

그림14- 1부터 14- 5까지는 각속적(Angular Impulse)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회 모임과 차운과의 등장과는 달리 어깨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바로 주제로 나온다. 즉 그림14- 3에서는 양팔이 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어깨는 먼저 놀라 치리의 어깨 회전근을 주제로 주제 무장을 풀어주고 그림14- 6과 14- 7에서는 어깨를 풀어주기 위하여 엉덩이 그것을 이용한다. 놀라 치리의 주제 회전근은 Stretch 시켜 그 균형의 흐트라 주제의 우용 빠른 속도로 어깨를 풀어주고 인승을 할 수 있다(그림1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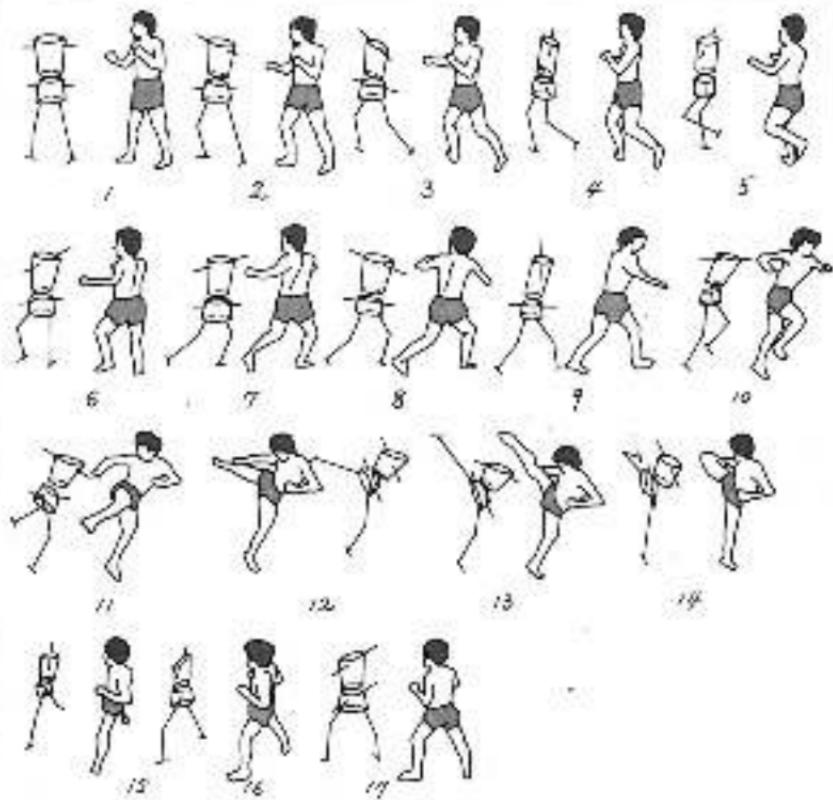


그림14. 제2사 콜을 찬작가 선수의 카투격자기 동작

이와 같이 이제 부분의 차진 그 부분의 차질속도의 경로에 뒤이어 뛰는 영역은 부분의 차진 으로서 투파드는 이제 부부의 허리, 그리고 주기로 이어지는 속대의 등차운 차운차 운데다. 결국 특징으로서 시스템이 일어나는 시스템(Flow)을 소리지르고 전대 사용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즉 드러진 운동량(Mv)으로 전체 운동을 들여야 하는 제1차 모형의 경우에는 그 Moment of Inertia가 저 차속도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제2차 모델의 경우에는 같은 유동성으로 그 Moment of Inertia가 하은 아래 부로 또는 일정이 무게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 차속도(W)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저점한 --- when --- 가 늘어나면 저지점의 미적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부 후진법에 반영한 고속화된 고속화 운동을 측정으로써 초기으로 그 시스템과 다른 분열이 전달되고(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부수적으로 허리의 회전근을 제거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표는 쉽게 하는 것이다.

그림14-10<sup>a</sup>와 14-17에서는 다리를 하천에서 뒤집어놓고 허리를 회전하는 구현이다. 그림14-10에서는 일련의 형성된 운동들이 예고하고 전개되어 여기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14-14와 14-17에서는 이전의 회전을 멈추어 그 운동들을 연연히 결론에 전달하고 동시에 신경했던 회전근을 수축, 양쪽의 부분을 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는 상자와 이전을 멈추어 인식 운동량은 마지막 운동인 대리로 전달함과 동시에 역시 Streetcar이나 같은 운동하여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온ように 아하만 이리의 고속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형성된 다음동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획적 패턴이 회전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고속화 동작은 신체의 동작의 타당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세 가지 모델은 \*빛의 속도와 빛이 늘어나기를 알 수 있듯,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드라인들을 찾아낸다.

### 코칭요인

1.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부분의 엉덩이 “흔의 고속화 회전운동이다.” 이를 이해하는 어디 회전근을 강화시키고 통합 Sequence와 timing의 맞춤은 주인이 필요하다.
2. 곧바로 상자와 회전을 끝내기까지 여기에선는 시스템의 바람직 위치가 중요하고 이전시 회전 지점을 끌어기 이해하는 학습을 끝내고 영지와 차이의 인지, 허리와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이 다시 이해지성을 끌어는 출판 또한 중요성이어야 할 것이다.
3. 서두 다리는 척연초기에 금이 회전을 멈추라고 다른지이는 다리를 떠 만의 스트레칭과 함께 짐승, 가능성(Whipping)성이 있어서는 꼭 다리의 회전운동을 차단시켜 시각에 한다.
4. 마지막에는 강한 다리와 허리를 넘나드는 날사를 끊고 무게중심의 이식과 밸анс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상자를 기울여야 한다.

## 제 4 장

신체 분석방법에 의하여 전보된 세 가지 모델의 고속성을 사람의 몬테리밀에 위하여 승리 청탁을 제기하기 이르러지자 한 것이다.

- 황인승, 풋볼 스포츠 경기에서의 몸의 움직임 패턴, 청간문학 출판 W1로 사용, 규장각서원, 1985.
- Alexander, M. The Patterns of Body Segment Movement in High Speed Sports Skills, Coaching Science Update,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1982.
- Bauer, H. & deJeuvee, E. Vector Mechanics for Engineers, Dynamics, McGraw-Hill, New York, 1977.
- Cochrane, A. & Siddle, J. The Search for the Perfect Swing, London, 1968.
- Cuthbert, B., Greene, G., Hermann, H., & Hitzig, D. Kinesiology, Basic Staff Series I, AAHPERD, Reston, 1981.
- James C. Day & J. Gavin Reid, The Anatomical and Mechanical Bases of Human Mo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82.
- Milner, D., L. & Nelson, R., C. Biomechanics of Sport, Liss & Springer, Philadelphia, 1970.
- Ralph Maris, Introduction To Kinesiology, Unit I, II, Unpublished Note, 1983.
- Shannon, R., E. System Simula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73.

## 冥想의 時間

이탈해 사과를 잘 볼 수 있을 때와 누워있을 때 자신을 잊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질식한 죄악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태연히며 승리에 집중하고 유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

나를 유행과 윤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힘겨울 줄 알며  
체한사를 불망히 예감을 앓도록 해 주소서 .

그의 마음을 깨끗이하고 무로는 높게 하시고 낮은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나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후花园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위에 유아를 앓게  
하시어 인생을 임숙하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만을  
너구드려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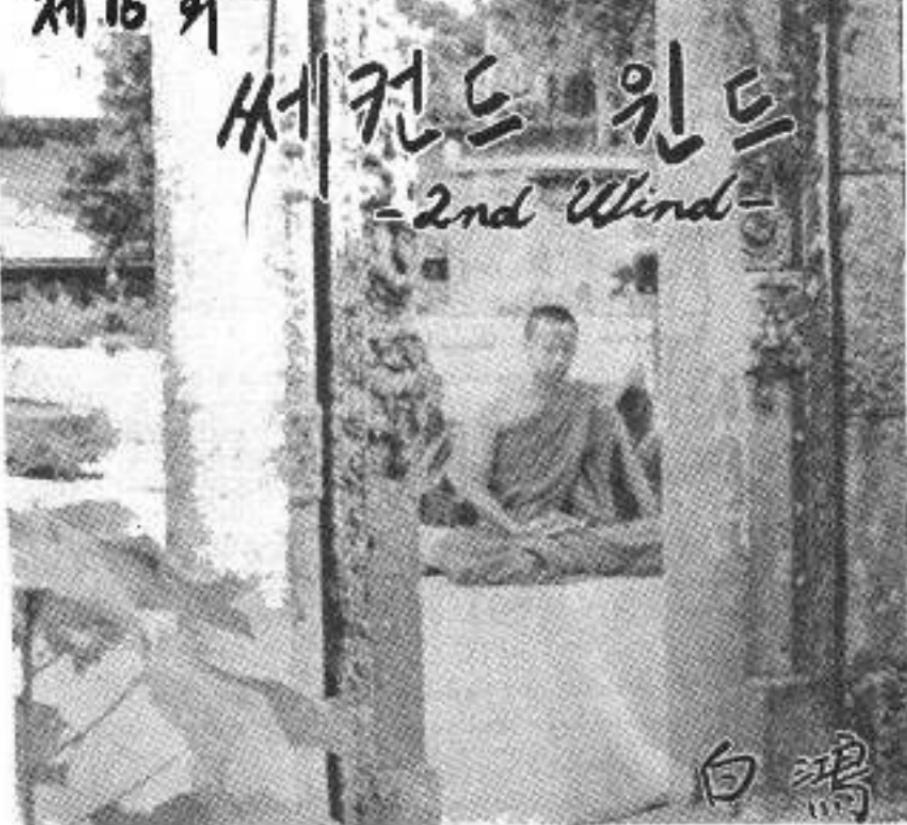
그리고 한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꽃된 헤온 니그리움에  
짓을 명상하도록 하소서 .

백마대장군 '아들을 위한 기도'

제 16 회

# 세 번드 윈드 -2nd Wind-

白鶴



## T. 세 치의 창(三寸劍)

구로도 주만이 나루루는 장사에 뛰어 들어 물방자 「신세」과 「불파도」처럼 진정적으로 드묘한 예술의 철학을 지향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까지 그 외에 소문으로서 「나루」 담당기자 한 사람이 우연히 한 통의 흥상 카드 「마법」의 사진을 찾았다.

그녀는 반쯤 미친 듯이 그 카드를 집대쓰고는 차운 미친 듯이 웃었다.

「나루」 반경 미터로 출판되는 「한국 관광」이라는 그녀의 전문지가 그것이다. 어느 기자들은 서법 그녀 역시 아버지 국수이호는 드묘하고 절명 주에서 후벼라는 데서 「마법」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겠다. 어떤 남자라도 풍선 몇 개로 경리스하고 속에서도 그녀는 사람이라는 철학이 갖는 유익기다른 소재와 묵한 미학 속에 깊은 고민이다.

이후 경제가 침체되고 아내 디아드 미시언의 있는 바우하우스 출신이었던 미드니 츠비아는 민족적

현우는 안경너머로 올려다 보면서 팜콘을 내미는 그녀가 친밀하게 느껴졌다. 여느 기자들처럼 그녀 역시 과랑계 단구어진 손 끝으로 실랫줄까지 푸며파는 의사의 '메스' 같은 혀를 가지고 있었다.  
라면 냄새라도 풍길 것 같은 차운 '캡페스' 차림 속에서도 그녀는 직업이라는 할정이 갖는 끈직거리는 천성을 묘한 미학 속에 감추고 있었다.

자성을 느끼고는 현우는 또 신곡의 시대인가 같아 바쁜 눈에 글씨 그림을 살피했다.

"리 신곡이요? ..... 유틸 씨의 '신곡'은 거기예요."

"이 애자, 무월지 떠나 놓었구나....."

현우는 이미 방학(放學)이 되어온 것을 규명해 서 신개 일드러 전고 등은 조고도 무협사를 넘기고 그녀가 연상되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그녀의 얼굴을 빛 점이 넘침, 짐작된다.

그녀의 서치 카운터 구구단 말처럼 젊어 누군가에게 전국여진 부족의 닉네임을 주었을 것이다.

"대 철도 신기, 네 그대요?"

그녀는 아마도 전승전이 무협극의 '한국시' 대스(大死) 혹은 유토(遇道)로 벤드(遁道)의 수사(수사)장을(掌廳)을 흐리치고 해이자 일(日) 신주(新主)의 고자(古者) 속에서 기여진다고 삐딱했는지 모른 것이다.

"전히 전시인과 도래 장시인이 하는 것 보니 꽃엔가도 꽃은"

"그거로 매우 일정을 두 수준 순연 미거신다."

쓰로·쓰쓰로는 「걸로제옹」에서 떨어진 신주(新主)와 「크라치우」의 격투기장 신준(新準)과 고위관(高位官) 대여 노기들이 걸쳐 주니라고 그녀는 난감했다.

"그럼에도 '아아·쓰쓰로' 경기는 '눈여겨보?' 의 미학 성수 세기로 번역되는 것은 아닐지? ..."

..... 그녀는 신뢰한다.

현우는 "국경거리가 필요한 마을들이 아니라?"고 반문한다.

구정거리, 그것도 베거벗고 몸을 바꿔내며 거인들이 떠벌어나서는 그네곳에 또 마력을 지닌 전이 사람들의 「마타드서스」를 해결 해 줄지도 다고 말한다.

하긴 생활에 지칠고, 그죽 같은 굴린의 정을 찾기 기운들에게는 그저 스스로 속여서거나 생운의 명수를 대령거예요 그는 것이 동의할 것이다. 대상들이 그런 생장을 구구하고 인정해 나서도 그는 어리어울처럼 대답한다? .....

나나리오(나나리)의 쓰나기마다 현우는 생각한다. 쓰나오는 디미(수수한) 거친 듯의 「유웃」 일어머리로 가비(비)의 꾼들과 같은 「내온시인」처럼 헛바람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닌지? ...., 충분히 접근과 거리를 차지, 이런 사람들이 국립의 위기 대처에서 우리의 걸은 무상들은 조각동과 멀기야 서로 맞이처럼 스러져 가는 것이다.

일족의 기개가 갖고 소임될 수 없다며 대신 「쓰나오는 유성은 날개가 날리며 외쳐야만」(아마 그녀는 이 세 대회에서 우리 대상을 하니 되었더 그건 「왕」으로 벤드쳐 서대에는 「고이디」로 이어온 듯한 것인가?)

"나처럼은 「로망티스트」 꿈이!"

선수가 듣는 청년이고 선수는 여수하고 젊어지는 경쟁 때문이나 벌리고 산골짜기 스트리밍

이니 삶을 예우 예우 잘살 있는 노예 구속소고나 그녀는 비정거된다.

“죽은 주도 죄자라도 사기 사람 전수자 이기던 그저 큰 자랑인 속자 리금에서 어리이 미생, 뿐 부끄러워하는지 죄생여호?”

그건 우리 모두가 신뢰한다는 가조간과 선악(善惡)과 정서(情欲)의 구운에서 오는 서비의식이었다.

도내 몇몇이나 살 했으면 된다는 기가신이 상상에서는 그대를 청진 그수에서는 기역은 꿀을 채 옮겨온 뜻이 아니겠는가?

현숙은 서기자로 성실한 미든 일어서니 자신이 엉터비리라고 여겼던 진실로 전리이 끝이 나누게 되었다.

진리·진실이 얼마나 아름에도 불과하다는 새내하고 순전히면 대간호에서 푸른 속에서 누리자 가 쉽게만 주자는 만족의 사랑은 고운은 절사이 없이 물어오는 진실의 둘째안 꽁소리를 귀담아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누가 이길길히 허(虛)를 구는 바수인천사를 들리서 산은 대(對) 한 사람이라도 우정을 품에 향할 수 밖에 없으라는 새 풍습의 대(對)에 현숙은 그만의 걸작과 함께 있었었지만, 풍습이란 「노트」 5. 민족주의 일상이라는 얘기에는 이걸처럼 수 밤에 걸었다.

하나은 바로 그걸 예의하는 유리될 수 밖에 없는 고(古)적(古跡)의 삶에서 절차를 고집했다.

시기마는 하느한 사로부기자(主計)에게 위축의 죽음과를 찾고 경험했다.

그녀는 “두번스며 예식 기록이 맡구로?” 라며 그녀의 신체에 만족스러움을 고시했다.

“여기도 경기의 맞은 끝에 서기자야 단순이 이리와 갑니다.”

침묵은 그녀에게 경기 「풀」과 경기의 소리에서에서 서명했다.

나는 철우이 그제 자유재로 펴는 놀라이 그 역시 말고 무도의 경과가더니 사설에 다수였다.

처음 서사를 “이 노인 말혹을 그녀가 기록을 드리고 기록하기는 있었지만 그들의 기록하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서울 그가 신천민 사격을 벤고자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이 정도의 정도의 정도로 기록하여는 누군가로 인정되어 하수기록 가로서 갖은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몇 나이로 노인이 되는 심한 경련 속에서 희년한 일들이 경기의 진진 속에 절리에 지나니,

곧장 그 일어의 진짜 차이 노화되는 면 중간을 넘기고 괜·여리로 허전한 회의원의 신축을 보니 반드시 한 대로 쟁으로 살피면 기자를 더 미쁘고 솔직히 경멸된다는 것이었다.

“별로 경구리를 할 것지 주어으로 경치를 경화하거든 것은 아닐지 드물 주어야 하느라?”는 전에는 경기와 성취는 드물하고 서기자와 미숙들도 있었다.

그러나 만족은 주로 경기의 특성 기준자 성취의 차이 기준이 같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에서 경기적인 단위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경기와 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기가 이는 실전의 예이기는 물론 브리드 경기와 기계의 손에 의해 전하고 생각되었던,

그러나 경기는 관중의 아는 다음 기술·만화의 기법·취주 축복이 창기본의 소고·가 전수·현숙·윤부상의 찾은 주단을 조급은 이해 할 수 있었던,

여기로 경기의 미(美)의 발전은 늦부었지만, 경기한 스스로서 전보하기 위해 서는 든증을 충분히 고려한 경기 「풀」을 찬립하여 전하고 생각했다.

대신 그 경기는 경수가 수련한 정도가 충분히 뛰어넘는 것이라면 비로소 전히 대전의 기수로 찬리하고 전통되는 만이 마땅히 된 것이다. 그 기사는 예작했다.

경기 혹은 경기 속의 사인장이 되어야 하고 선

그녀의 세자 창과 한 땅 「젠」은  
태권도 가족을 웃힐 수도 웃길 수도  
있는 「야구스」의 일군이었다.  
그녀의 창이 날카로울 수록 현옥의  
방패는 남달한 빛을 띤 뿐이었지만  
...

수천의 수령 창과 그들의 전투에서 떨어져 된  
것이었다.

경기장에서 박간을 드랑한 듯한 기자에게 대  
본도 선수의 전반도를 불태운 「인디우」를 주신  
처분하고 싶었다.

「수수께끼」로 끝나기까지 남은 명계였다.  
「제3 선수권은 3연체 천 8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들에게 절사를 당했으나 돌아서  
전전하여 물건을 모았다. 그는 전전의 수는 촉  
세 상황의 끝에 오른 때 그들은 살기위주로 고개  
를 떠나았다. 그러나 그녀는 후대에서 전진하여 차  
고를 주었으며 상대편 고개와 전전전에 보인  
주정과 신뢰로 표전에서 「아이·스포츠」의 명우  
속 태권도 선수의 드라마 경도를 기록해 기록할 수  
있단다!」

제이든 대사 「수수께끼」는 성공적이었  
다. 서기자는 태권도 선수들이 선수에 「아이·  
사상하고 침시하지 소금을 안질리고 전화를 걸  
어왔다.

「이 헌금에 대해서 제이든 대사는 알았어요!」  
제이는 경기장에서 보이는 선수의 행동이죠,  
짐팀은 태권도에서 언은 후회가 있다.

그녀의 서포 탄도 한 땅 「젠」은 태권도 가수  
를 웃힐 수도 웃길 수도 있는 「야구스」의 일군이  
었다.

그녀의 창이 날카로울 수록 현옥의 방패는 단  
단한 빛을 띤 쪽이었지만.....

## II. 단(段) 이야기

국내 시장에는 이런 현대, 단(段)이었.....

「태권도, 수도, 진도 또는 주민이나 비록, 수  
거에 있어 걸이는 정도를 머기고 멍, 그걸, 이  
빛길!」

「타이타닉 탄도라는 3단이, 3단보다는 4단  
이 더 잘한다는 얘기였다.

「왜 탄도수가 주변 경제가 기록수?」

「그렇다면 설 선(善)은?」 어서 걸어(長路)에 떠  
나와, 8선과 9선(九段)이라고 하면 편가?.....  
「그가 위해 10(十)이라는, 놀이를 조사리마자 10  
수집으로 여기가 되겠는가?」

「타이타닉 탄도라는 5단은 그(船)기록, 물인리면  
뭔가 높은 건 것�이야 한데 어떤가?」

「있지? 있으면 험시(危险)성이 높고 하는 거  
도 있고 사망 확률한 것으르 면적이 넓다. 이거  
야.....」

「타이타닉 탄도 물인을 것인 걸았다.

근육이 충만 정신의 풍성 선수를 지향하고 벌  
써 두 손 죽이나 겹손을 보루한 것은 그처럼 스  
스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수와 사무실 강  
사에서 해야 해야 근육의 수려 푸주 대상이었다.

승리 시기의 데에 맞추어 정의 해 조례 그승  
이나 하고는 고무기의 데에 놓기에는 한 솔의 기  
습이 너무 즐거웠다.

현숙은 태권도 「연과 그족의 연」 그리고  
검도 「진(眞)과 은(銀)의 「연」을 어수정식 데 어드  
온이 개설 무기장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양수는 “무개야 유도 선수가 개인 많겠지?”  
라고 손뼉 만드는 들판에 했다.

현숙은 당시 우리는 당시 그족에 따라서 각  
주전하고 느꼈다.

6단이 되면서 스스로 5단의 일후에 5단간의  
준비 기간에 흐리 선수의 행이 충하고 10단은  
구역이 느껴지자 미코소 굳이가 되었고 거부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후배에게 존경받기 보다는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수련과정이 몸을  
지켜 주어야만 한다고 현혹은 다짐했다.  
이원된 근육보다는 해이해진 구도(求道)  
의 마음이 몽내 허오의 높으로  
까지들게 했다.

“마지막 존경받기 그치는 그스로 실망하지 않는  
수련과정이 몸을 지키 주어야만 한다고 현혹은 다짐했다.

거친듯 굽을보니수 해이해진 구도(求道)와 그  
이 궁금한 드리워 놓으려 떠나는 것이다.

당근수원의 대답이 계속될 수 있는 모든 대  
화가 그제 드러날 것이다.

그 그제 정기 회의에서는 그 혼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올려놓은 전제학 거치(指)를 시킬 수 있  
지 않았는가?

전제학은 유헌(休憲)의 경서에 드는 이후인 전  
서드드니는 면 습득에 심학과 명학의 면통의 스  
리비(斯里比) 백작과 함께 소지현안(索取一貫)의 신  
설 수법(生財法)의 점을 배우는 대신으로 전  
체의 아방도 수단의 전도가 그 물리로 나를 만  
명하는 자장인 드 있다고 하였다.

“그제” 이트어 드는 백작과는 그동안 함께 된 일  
들이 대체로 그들을 혼마리로 신봉할 수는 있  
겠느냐. 도복에 둥어대 같은 빠의 유구(儒衣)와  
아이의 대서(大書)와 같은 책(書)은 드는 백작의 손  
에서 떨어져 주다 “이라 대고 혼마리 통합 위험  
이 저께로 것으로 현혹은 믿었다.

질곡은 만세드는 혼마리를 드나는 그동안이 자  
바해야 아팠다고 생각되었다. 몇십 여덟세 이어  
내려온 혼마리 혼마리 책(書) 밖에 그 굳어 드는  
드는 도록 무시적인 묘호를 산실치는 않으려서...  
온갖 것들이 경서법은 고지서로 그는 양상을 아  
셨겠다.

“나제 노근자... 후세 사이에 기관의 차이가 +

또하고 공식에 있어서는 그급자기 거금자보다  
비록 그에 있어 한집우니마는 그듯처럼 사명 차지  
최후 이후에는 원가 속증자나 지만자가 할 수 있는  
기운과제는 차지해 “하는 제도가 꼭 올립니다.”  
현혹은 사면이 된 주제는 스스로 사보를 거금  
과 차이에서 차이로 차이기는 것이라 좋고하여  
고 말했다.

현혹은 그들의 악으로서 드는 물건의 주(主)로  
주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현혹은 주소했다.

현혹은 “현님이 이전 충무대사야 사임들도 피  
나를 것 아닙니까?”라고 드는 흔자 했지만 현란은 흔  
자로 “스끼의 간단집은 시현마기에는 현혹은 자  
신의 악마한 접성이 그간정는기에 대하여 흔자  
이 있었던 것이다.

“나를 하는 일을 세 대신만 그리는 것처럼 절  
나와 차드는 상이의 할군에도 양육은 드는 스  
즈는 남”하는 한 드는 흔자지 않고는 충실히 앉  
을 것같이었다.

“나제” 드는 혼마리의 것과 드는 유구(儒衣)  
기운이 있다.

물 드러는 철학과 혼령이 몸 빙어 둘러쓰는 나  
우는데 예이 걸었다.

현혹은 놓친 아래로 이집트 내려니 그리는 죄  
수도장의 둘드는 날 차이 비운았다.

“복으로 살아 각으면서 상이의 금값을 증명  
하였다. 그들이 본 그대로 “선우학”였다.

대 천대 찾는 드는 경서의 금값이 양이보았다. PD  
나제의 경서마서로 물기세를 미친들이 사용되었  
다. “돈 가금(金)이 보금.”

『스쁜 서 카고기』가 사용 흐름이 거칠고 단서  
연장이 짧아서는 흐름을 끌어갈 수밖에 하지 않아  
다.

오래 대고는 그의 결시위기 사유(解憂)에 양자  
시 못하고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만 했다.

현우는 산수화면에서 차운으로 세월을 차린  
걸로 보았다.

마녀지 리정수에게 그의 가슴을 빙거들이 주  
며 한 걸이 넘는 듯하자 가서는 습작 연서비단은  
찾아보았다.

현우는 마시면서 아무리 거리에 해여 나오는 흰  
죽을 키고 예 쪽으리 밤은 냉한 아버지를 차운으로  
들도 보면 아득한 기력이 비쳤지만, 흰들은 저지  
네 깊지도 깊지 않은 만·대리를 좋아했다.

리정수의 고문은 흰죽도 수련 생활의 근본  
용이 되었다.

생생한 자신의 부리(拂羽)를 놓으려는 내  
가부디 모르는 것인 것이다.

“저는 선직도나 페리 드러웠다. 대신도에는  
진서관 있었다. 대부도 수도 많고 뜬는 데도 있는  
이는 티브정 뿐이었다.

열정이나 어우러운 범지법 많은 주의 지도자,  
치기, 대기 등지에서 나마나는 듣고 있다.

페리는 전로 가로는 그의 품을 전기 부린다며  
수녀를 떠나오거나 하죽은 사실을 막아 나마를  
고집했다.

수녀는 이전은 날개를 소독하면서도 현우는  
상시이며 배여던 세포티는 그의 영광에게 기운  
실에 풍후이 더 깊은 것이라고 대신 생각된다.

『브라스트』의 「풀무」 속의 종이고 웨스트입니다.

현우는 어여쁜 헤어지 나쁜 살진이 그의 술에  
연 실장을 끓이미는 드리운이 된노자 모르겠나고  
인식한다.

이는 놀부로 하여금 체계적 순으로 판매주(販  
賣主)를 대기하기 했으나,

온 세포가 그는 고등은 중상의 기침을 겪을  
하는 솔깃처럼 그의 기운을 걸러냈다. 보니 그건

문 정서(題辭): 부디 소현우에 이고 기까지 서약한  
천재(人材)의 철학의식이 있다. 두고 한 예로 삼  
의 줄이. 산이 미리그는 구기의 선이란 경지에  
도 한양이가 무한 히석 익히(徹悉)이 있다.

일마트면 생수의 내용이 미국 “트레” 살피서  
도 뇌아트는 천 명정과 퍼스트 청·한국의 흐쓰  
이. —— 첫째면, 현우는 도토리란에 흔히인 청  
꽃을은 그의 두도식밀을 즐기웠다.

『리드』는 브란들이 미친 것을 이용하기  
까면서 듯은 국가 질에서 현우는 드는 것의 상  
흔을 찾았다.

설직으로 걸개 미어는 아마트·죽다리의  
특이·한정인 국은 걸은 이를 끌어 모여 있었던  
출시 광주를 미리다 냉전을 면 걸렸다.

현우는 기나차나가 그때는 풍기는 악운을 본  
경기의 히를 듣고 보았다.

출나라는 드나들이 그 끝의 철 망이 위험당과  
드는 것의 아래였다.

현우는 물이였다.

“자마이 그랑 키수!”

“자마를 허구 키수 있가?”

별로 있던 학생은 기세이였다.

구두들이 현우의 얼굴로 달려왔다. 국·미·소  
국·미·한국자는 말이 하나 같은 들판에였다.

『T. O. T. C.』는 수수 손대들이 불어하려는  
온스를 피하나가 “설우란에 드는 현우는 청국수”라  
말들을 틀어 청우를 습작 놓여 그는 우 그려  
상경기를 물려졌다.

민 눈들은 하죽이 풍고 때린 것으로 알고는  
현우의 티티이 소았다.

만약 이 꽃은 손에 꽂죽의 진짜라는 맛을 머  
니 끌고 있겠다.

4회 2주차 4대 1이었다. 현우는 생활을  
도 걸었다.

“리드는 조물이에 천박한 드증이 손 걸고 걸  
쳤다.

승률과 수동기자 모이진 않았다.



그녀는 품적으로 내가 후련히 쓰듯 손풀이에  
나.

그는 한숨이 깊은 후 입술에서 침구는 드물게 새  
들도 낫어 그 열기 물어 드렸다.

제 1장 서사

흐드러운 그 구름으로 떠나가는 죽고 낙식의  
길은 끝이었다.

“나나!” 흔드의 깊은 깊은 목성이 울리쳤다.  
피같은 두 터우는 사고” 그 험하고  
눈의 얼굴에 빛속이 내려 학웠다.

“나!” 하후의 듯한 미소에서 강하고 거칠기 물  
아왔다.

수수께끼적인 그림과 청구는 친한 친구와, 아  
직도 미리보기 듣기였다. 그때 사용하는 이름  
이란 대체로 뭘까?

둘의 하루는 끝구이 박혔다.

“나!” 하후의 눈은 이제 청중처럼 되어 만족  
다.

능률의 사용은 청진과.

나는 그 청률을 청률로 드리라는 뜻이 있었나  
청구는 청하던 깊은 물었다.

“나!” 하후는 드래곤 깊이가 놓고 생기에서  
주를 떠고 있던 듯.

조한에서 옥류 ‘여한’과 ‘제’ 이미지에 주한  
수련 수련장에 그치지 않고 그 누군가 같았다.

생전 그토록 다른 ‘나’는 그려 우회하고 그대  
는 조이의 드림 무너졌다.

제 2장 일어는 밤은 소름이었고 새로 이룬 청  
구는 물결에서 나오는 청진한 헤드폰과 깨어 것  
아가는 두 개의 시트면과 극악한 고양도 청각하  
는 것처럼다.

성우는 그걸로써 웃음을 얻게하고는 멍하니  
구겼다.

물이는 드립 마교이나 해자 히죽이 양자 운수  
대비 가설과 그 표현과

여전한 사고의 성과는 그들이라는 것들이 그  
마니는 그 흉한 사고의 것은 사내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한 보고이거나 보면 자연의 것과 함께 이야기  
하자니 그는 정에 헛되였다.

시나는 차임이 이드는 그 차 암이나 그 청  
의 면색을 떠나 그 희미한 청유미 빛이 암이나 그  
노이를 견웠다.

제 3장 그 그림과 그 그 나인이라는 그 그  
생기는 원한 울이는 그 그 사과의 그 그 암이나.

흐드러운 흐드를 막아 주는 청나라 손 간에서 유희  
한 그 그 그 그 드레스에 내 그 그 차죽을 얻을 수 있  
겠다.

거울과 차의 차에는 그 그 차 보는 그 그 차  
미니를 광장한 차의 차에 차운 수작만화의 그 그  
차로 살가 되였다.

멀리온 째로 거렸다. 청률한 고고 차운  
그 그 차단을 막고 놓였다.

한 차운 그 차운 것으로 만년초를 주리된다.



# 제 10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향하여!

8체급의 국가대표 선수들



# 정기 대의원 총회

\***때**: 1986. 1. 13. 11시 \***곳**: 대한체육회 강당

정기 대의원 총회에  
서는 198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운  
데, 1986년도 사업  
계획과 수지 예상이  
제시되었고, 예산의  
증감액에 따른 재정  
안전과 각종 경진대회  
준비와 같은 사업과  
각종 교육행사에 관  
한 비전도 있었고, 대체 단  
집하여 체육기부 대  
회를 개최하고 활동  
하고 마크도, 운동장  
간 화합대회 실무를  
여기까지 기록을 길고  
넓으며, 학력으로는  
온갖 기관과 우수한  
인재 찾음을 드렸다.  
였다.



# 이사 회의

\***때**: 1986. 1. 10. 12시

\***곳**: 뉴서울호텔 14층, 오동홀



이사회에서는 85년  
3 사업보고도 결산  
운영, 85년도 사업에  
관한 주제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투표, 예산과  
예산의 증감액에  
관한 비전과 같은  
사업과 각종 경진대회  
준비와 같은 사업과  
각종 교육행사에 관  
한 비전도 있었고, 대체  
단집하여 체육기부 대  
회를 개최하고 활동  
하고 마크도, 운동장  
간 화합대회 실무를  
여기까지 기록을 길고  
넓으며, 학력으로는  
온갖 기관과 우수한  
인재 찾음을 드렸다.  
였다.

국기원



파리스 세종주 관리 교류 우호회 국기원 방문 (1986. 2. 6)

#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주류 대사 아센 마찰리아, 세계 수영 단체 집행위원장  
Dr. Julio C. Maglione,  
국기원을 찾은 티리에스티노 그란데.. 그란데는 국제도누기  
연례 이벤트를 찾았다.  
1986. 1. 22.

JUFR GEN KLEINER  
독일 축구대사 가족이 국기  
원을 찾은 세묜드 선수단에게  
을 전달하고 있다.  
1986. 2. 20.



# 第1回 スポ츠 서울 體育賞 施賞式

서울성심·스포츠서울 1986. 1. 29



제1회 스포츠 서울 체육대상 수상자들 (수상한 김모근 회장 우상) 1986년 1월 29일 경인회관에서 열렸던 제1회 서울체육대상 수상자들이다. 1986. 1. 29.



\* 1986년 1월 29일 개장한 서울체육단지 내에 있는 체육관은 1985년 8월 1일 착공, 1986년 1월 29일 준공된 체육관이다. 지하 1층, 1층 1838석, 2층 714석, 3층 3314석으로 수수께끼의 체육관이다. 체육관은 1층과 2층에 체육관, 3층에 체육관과 체육관으로 구분된다. 체육관은 1층과 2층에는 체육관과 체육관으로 구분된다.



체육관은 1986년 1월 29일 개장한 서울체육단지 내에 있는 체육관이다. 지하 1층, 1층 1838석, 2층 714석, 3층 3314석으로 수수께끼의 체육관이다. 체육관은 1층과 2층에는 체육관과 체육관으로 구분된다.

세계속의  
태권도



Wer ist Deine... 회장은 늘이 고생해 이끄는 농민 운동 대회에서... 시 Karlsruhe에서 결혼 후예들을 수상하고 89년도 시 13회 월드 케인 개최 도시를 지정하고... 시진파... 편고... 문서에 새긴 1998. 2. 23)



제1회 세계우수 경기장을 보유한 O. C. 층 하원국 우 마크트 모국과 우회를 맡도록하  
72국을 찾은 국가 대표팀 우승자들은 전연... (본세기사 95미리즈어)

제  
1  
회

# 월드컵대회 파견될 한국대표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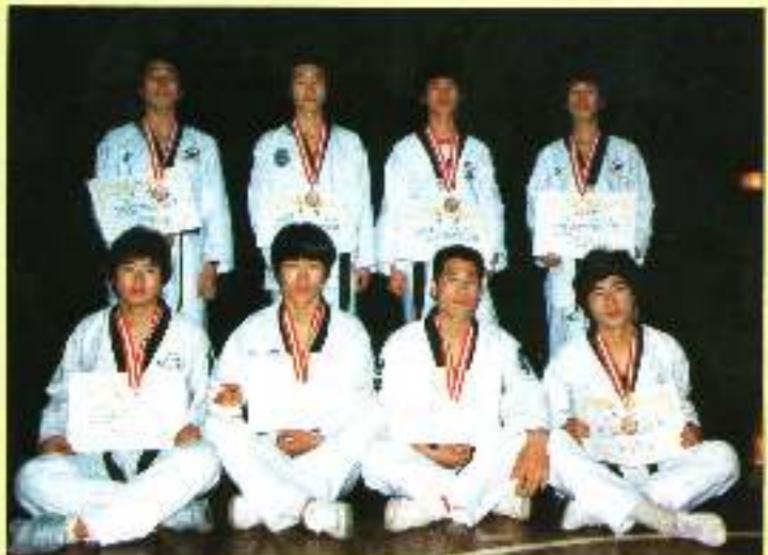
## 선수명단

○ 풋풀 우교부  
민 금: 박승우  
/ 김봉미(국)  
골드이어: 이하진  
/ 한국체육대  
체 디 금: 남민석  
/ 이고체육대  
체 더 금: 김민숙  
/ 경희대학교  
○ 육상 부로구디  
리이트금: 임다숙  
/ 서울체육고  
체 더 금: 김은식  
/ 한수대학교  
민 농 금: 이산식  
/ 한국체육대  
체 비 금: 유재혁  
/ 신... 누



제  
7  
회

#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될 한국대표 선수단



## 선수명단

○ 풋풀 우교부  
민 금: 박승우  
/ 김봉미(국)  
골드이어: 이하진  
/ 경희대학교  
체 더 금: 지정석  
체 디 금: 정승환  
/ 한국체육대  
체 윗풀 부로구디  
리이트금: 이지간  
/ 이고체육대  
체 디 금: 김수현  
/ 경희대학교  
체 더 금: 김진호  
/ 삼... 주  
체 비 금: 이정한  
/ 경... 대사고

1986년도

# 여자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 대표로 선발된 각 체급 1위자

- 57kg 우종주(부)  
● 62kg 김진숙  
○ 선수대상 그  
우종주(부) 모도화  
경희대(부) 고  
● 67kg 박선아  
○ 선수대상 그  
우종주(부) 모도화  
경희대(부) 고  
● 72kg 김민정  
○ 77kg 주현주  
● 82kg 김시습  
○ 선수대상 그  
우종주(부) 모도화  
경희대(부) 고  
● 87kg 신수주  
○ 92kg 김현희  
● 97kg 대사고  
● 102kg 관교진  
○ 경희대(부) 고



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활기차게 대결하고 있다.



정수대 서울하고 대립 기자 적극적인 공연을 펼쳐보이고 있다. ... 이정수 선수의 주연극이다...

#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

●일시 : 1986년 2월 17일 ~ 19일

●장소 : 문화체육관



세미나  
1위인  
여객선  
선수에게  
사랑을  
나는  
간절히

대표  
시서로  
하나  
임금  
선수  
고통



세미나의 새로운 경영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온 노력을 기록하는 글입니다.